



8

주체 96 (200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6(2007)년 제8호

(루계 제 718 호)

차 례

해방의 축포는 총대에서 올랐다	3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은 선군시대 문학건설의 근본원칙.....	4
기다리는 한마음	6
8 월 25 일 이어 외 1 편	7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8
작가의 인생소원을 풀어주신 태양의 품	9
장군님곁에 있습니다.....	11
언제나 함께 계시네	11
헌신의 낮과 밤	12
아무르강의 물결소리.....	13
예쁜꽃들아	13
사랑은 장벽을 넘어	14
주체문학의 대강	21
《백두보살》	22
수령님 그 품에서 나도 자랐다.....	25

그리움의 날과 날.....	26
청년절 이밤은 좋아.....	27
장군님과 영예군인.....	28
로병시인과 전쟁체험의 서사시적반영.....	32
경구, 격언.....	33
평론가들이 입을 다물고있는것은... ..	34
못잊을 고향역.....	35
전선길의 노래.....	36
시대의 요구와 작가후 형상세계.....	37
꽃사진.....	42
행 복.....	43
창조력을 높이려면.....	45
해당화는 바다가에 핀다.....	46
인민사랑의 절승 칠보산.....	60
삼국시기 옷차림.....	63
어느 한 정양소에서.....	64
《카프》작가 류완희와 그의 창작.....	70
강철로에 띄우는 편지.....	71
《큰자존심》에 대한 이야기.....	72

헌시

해방의 축포는 총대에서 올랐다

서봉제

우리 수령님
두컬레 짚신을 걸머지시고
만경대오솔길 내리실 때
조국은 선조의 뼈가 묻힌 곳이었건만
이름조차 빼앗긴 땅이었다

설한풍 이는 아득한 들
고개고개 험한 령 넘으시여
내 나라 지경의 눈덮인 압록강을
차마 선뜻 건느실수 없어
다시금 되돌아보시던 고국산천

피물은 노예의 채찍아래
겨레의 원한이 닿았던
저 하늘엔
한점의 푸른 조각도 없었고
이 강토는
설분의 얼음장으로 굳어져
우리 민족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거니

이 땅의 두터운 얼음장을 녹이고
저 하늘의 검은 구름장을 가셔버리고
조국을 찾기 전엔 돌아오지 않으리라
수령님 뜨겁게 남기신 그 맹세 안고
혁명의 수만리길을 이어가시지 않았던가

광복의 천리길을 이어
또다시 걸으신 눈보라만리
야수처럼 날뛰는 침략자의 등허리는
총칼로만 꺾어버릴수 있음을
결사의 의지로 다지신 걸음걸음
항일대전을 선포하신 빨찌산 김대장!

만경대를 그리시던 《사향가》 품으시여
손수 잡으신 기관총소리는 그리도 높았던가
차디찬 진대나무에 앉으시여
《조국광복회 10대강령》 구절구절을 새기시며
조선의 미래를 구상하신 우리 수령님

광복의 싸움길에 함께 계셨어라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그려보던
투사들의 꿈, 그 소원

오직 혁명의 수령만이 꽃피울수 있음을
혈전만리길에서 철리로 안으셨기에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사수하신
사령부의 친위전사 그 모습도

풀뿌리와 찬 얼음 깨무시면서도
무장한 원수와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겨레의 원한 한데 모은 백두산총대벼락으로
끝끝내 강도일체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조국해방의 대경사
환희의 축포를 터치였나니

8월 15일
력사의 이 아침 삼가 우러르노라
독립만세 드높던 이 강토에
태양처럼 빛나시던 모습들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조선의 광명성 **김정일**장군

일체의 아성 허물어뜨린 그 배짱
미체의 코대를 꺾어버린 그 담력으로
우리 장군님 백승만을 떨치시며
영광의 년대와 년대, 세기를 이어
주체의 조국은 세계에 존엄높이 솟았어라

아, 총대로 찾아
총대로 빛나는 내 나라
하나된 삼천리조국강산에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 높이 모시고
해방의 그날에 터쳤던 인민의 감격
통일조국의 아름다운 축포로 누리를 덮으리라!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은 선군시대 문학건설의 근본원칙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을 창조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고수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을 자주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민족문학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은 선군시대 문학창조와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사회주의문학의 존재와 가치를 규정하는 본질적속성이며 기본특성이다.

문학에서 주체성이 민족자주정신의 반영, 자기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의 구현이라면 민족성은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으로 발현되는 문학의 속성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민족문학의 얼굴이며 정신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에 의하여 민족문학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며 민족의 정기와 기상이 뚜렷이 표현된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민족문학, 사회주의문학의 생명이다. 주체성, 민족성이 없는 문학은 마치 빛을 잃은 육체와도 같다. 매개 나라에서 민족문학을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고수해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고수하는데 문학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맞게 사회주의문학을 창조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참다운 길이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은 민족문학의 창조와 건설의 전과정에서 제기되는 근본원칙으로 되지만 선군시대의 문학에서 더욱 절실하고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힘있게 파시되고있는 선군시대의 현실적조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현시대는 위대한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선군시대이다.

불패의 혁명무력에 의거하고있는 위대한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속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상은 더 높이 파시되고있다.

총대는 곧 국력이며 민족적자주권, 무적의 군

력에서 민족의 기상이 웅솟음치며 민족자주정신이 최대로 발양된다.

인간과 그 생활,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는것은 인간학인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선군시대의 문학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힘있게 파시되고있는 오늘의 혁명적현실,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자랑떨치는 우리 민족의 기상,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민족적존엄과 영예를 옹계 반영할 때에만 인간과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선군시대의 문학, 선군문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민족적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혁명의 무기이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천만의 심장을 끓게 하고 격렬한 전투성과 호소성으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을 전율케 하는 선군문학이야말로 철두철미 우리 혁명에 이바지하는 반제자주의 문학, 애국, 애족, 애민의 문학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은 선군시대의 문학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며 그 전투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강화하면 할수록 문학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참담게 발전하게 되며 시대를 선도하는 전투적기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다할수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할데 대한 문제는 선군시대에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현시기 문학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책동은 세계의 《일체화》흐름이라는 꾀변밑에 새로운 형태를 띠고 펼쳐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일체화》흐름이라는 황당한 꾀변을 내돌리면서 국경이 없는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에 있어서는 문학도 나라와 민족의 한계를 벗어난 《전세계적인 문학》, 《전인류적인 문학》으로 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매개 나라의 민족문학은 민족의 고유한 생활에 토대하여 발전하는것만큼 자기의 민족성과 독자성을 가지게 된다. 매개 나라의 민족문학은 그에 고유한 민족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세계문학발전에서 이바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주의》를 떠벌이는자들이 민족문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가로막아나서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매개 나라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데 그 주되

는 목적이 있다. 문학분야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민족문학말살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문학을 성과적으로 창조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오늘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의 화살은 우리 나라에 돌려지고 있다. 제국주의반동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목적밑에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썩어빠진 부르조아문학을 류포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침투에서 문학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문학은 이성뿐 아니라 감성에도 적극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상문화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세계관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문학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오늘의 세계정세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문학의 이러한 특성을 리용하여 저들의 침략적본성을 가리우고 사람들속에서 저들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민족문화발전을 억제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막아내지 못하면 민족의 자주적발전이 억제 당하고 나중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쓰라린 교훈으로 실증해주고 있다.

더욱 교활해지고 음흉해진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문학을 주체적으로 창조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나가는데 선군시대의 문학, 선군문학의 혁명성과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은 선군시대 문학창조와 건설의 근본문제로, 그의 성과와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문학에서 주체성,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할데 대한 문제는 문학창조와 건설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문학창조와 건설이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기초로 하여 진행되게 될 때 작품에는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이 정확히 구현되게 되며 자기 나라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 미감에 맞는 예술적형상이 창조되게 된다.

문학에 선군사상을 구현하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며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구현하는것으로 된다. 그것은 선군사상이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이 체현되어있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수호하고 민족의 통성변영을 이룩할데 대한 지향이 체현되어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구현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고 고수하기 위한 필수적담보로 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이다.

인간학인 문학에서 주체성, 민족성은 인간과 생활에 대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선군시대에 새롭게 변모된 인간들의 성격과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내는것은 문학에서 주체성,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강毅한 의지와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정서를 가지고있는 근면하고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으로서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민족적성격은 해방후 새로운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더욱 공고하게 발현되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에 이르러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군인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사상정신적품모를 높이 발휘하고 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민족적성격으로 되고있으며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고유한 혁명적품모로 되고 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격적특질과 헌신적투쟁을 규제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잘 그려야 선군시대 인간들의 성격을 훌륭히 전형화할수 있으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반영할수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 《강계정신》, 장편소설 《열망》, 단편소설 《스물한발의 포성》 등 작품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벌어지는 혁명적현실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선군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사상정신적품모를 감명깊게 그려내었다.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결사관철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형상을 통하여 선군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높이를 예술적으로 뚜렷이 확증한 여기에 이 작품들이 선군조선의 기상이 나래치는 작품으로 될수 있는 비결이 있는것이다.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잘 그리는것과 함께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공고화된 미풍량속과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잘 그려야 한다. 뿐만아

나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서와 비위에 맞는 민족적형식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언어의 예술인 문학에서는 민족적특성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고유한 민족어를 적극 살려쓰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볼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심리와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고유어를 리용하여 그윽한 향토미와 풍만한 민족적인 정서를 돈구고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

보는바와 같이 작품에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익숙되고 정서적으로 고착된 고유어들을 적극 살려 전반적인 시형상을 펼치고있다. 노래에서 구사된 시어의 하나 하나는 모두 풍만한 민족적향취를 풍기는 고유어들로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고향과 조국산천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서정시 《나의 조국》에서도 조국애와 민족애를 불러일으키는 고유한 민족어를 적극 살려섬으로써 짙은 민족적정서속에서 조국에 대한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감정을 풍부한 서정으로 펼치고있다.

《선군사상》,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 《충곡탄정신》, 《총대가정》,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와 같은 언어표현들은 선군시대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그대로 반영하고있으며 김일성민족의 넘과 기상을 생동하게 표현해주고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민족적형식을 옹계 리용하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민족적형식을 탐구해내는것은 문학의 민족적특성을 살리며 주체성이 구현된 문학으로 창조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미학적요구로 된다.

문학창조와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것에 정통하며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옹계 계승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자기 민족이 제일이라는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를 가져야 문학작품에 민족자주정신을 깊이있게 반영할수 있으며 주체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해낼수 있다.

작가들은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 김일성민족의 자존심,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살며 혁명하는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민족문화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을 다 바쳐야 한다.

우리 나라 력사와 우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과 전통도 잘 알아야 한다.

유구하고 찬란한 우리 나라의 력사, 우리 민족이 오랜 력사적시기에 걸쳐 이룩한 유산과 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지혜와 재능, 슬기와 기상이 깃들어있다. 따라서 그것을 잘 알고 문학창조사업에 구현하는것은 선군시대의 문학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창조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창조와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대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반대배격하는 것은 민족문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의 작가들은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며 극복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문학작품창작에서 자그마한 이색적인 요소도 배겨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강화하는데 우리의 문학을 선군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참다운 사회주의적민족문학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우리의 작가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문학창조와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의 원칙을 변함없이 확고히 고수하고 강화해나감으로써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을 훌륭히 다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리현순

가사

기다리는 한마음

그 언제 찾으셔도 정이 드시게
떠나셔도 못 잊어 그려보시게
선군시대 새 모습 펼치여놓고
장군님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새 마을도 보시면 기뻐하시게
발전소의 동음은 힘이 되시게

군인정신 떨쳐온 위훈을 안고
장군님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전선길에 쌓인 피로 다 풀리시게
기쁨속에 그 언제나 젊어계시게
선군절정 자랑높은 내 고향땅은
장군님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최향

8월 25일이어(외 1편)

김경기

멀리 저 멀리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더욱 우리곁에 가까와지고
귀중해지는 날이어

8월 25일이어
《E.C》와 더불어
4월 25일과 더불어
8월 25일 네가 있어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날은
승리로 명절로 이어지거니

기다리고 기다렸노라
희세의 천출명장 **김정일**동지
수령님 총대로 개척한 길에
선군령도의 첫자욱 새기신 날이어
선군의 전호에서
영원한 승리를 내다본 력사의 날이어

미제와 맞서 이긴 모든 날들과
노래춤 떠들썩한 행복의 날과 달들을
지켜주고 이어주고 빛내준 날이어
8월 25일이어

흘러온 년대와 년대마다
미제를 무릎 꿇리며
너는 마흔일곱해
혁명의 3세 4세를
자주적근위병으로 키워냈구나

《E.C》의 기발 달려온 백두산총대에
수령결사옹위의 넋을 새겨
이 세상 제일강군을 키워냈구나

비길을 걷고 눈길을 걸으며
밤길을 걷고 새벽길을 걸으며
너는 인민의 머리위에
종다리 지저귀는 자유의 창공을 안아왔구나
고난의 찬서리와 눈보라를 녹여
이 땅에 화창한 봄빛을 안겨주며
이 땅에 강성대국의 려명을 불러왔구나

심장의 노래 드리노라
이 세상 모든 영광 안고온 너에게
이 세상 모든 영광 다 합쳐
노래의 다발 엮어드리노라
백배 감사의 정을 담아
천배 고마움의 인사를 담아
숫구치는 심장의 불덩이로
뜨거운 헌시를 드리노라

오, 8월 25일!
백두산혁명강군의 진두에
절세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날이어
제국주의멸망의 마지막날을 내다본 날이어
위대한 령장을 대대로 높이 모셔
내 나라 번영이 천추만대 약속된 날이어!

우리 집 기둥에 부치여

잘못 놓은 주춧돌위에
기둥을 바로 세우지 못해
무너져버린 집들이 얼마더나
이 행성위에

허나 든든한 기둥을 바로 세워
세월의 눈비에도 무너지지 않고
시대의 광풍에도 끄떡없는 집이
우뚝 서있다
해쫓는 동방에

우리 수령님
백두산대돌위에 기둥을 세우고
백두의 추녀를 높이 얹은 내 조국
나의 집이어
너를 받들고 선 무적의 총대기둥을
세상에 소리쳐 자랑하고싶어라

우리 장군님
선군의 정신으로 버리고
붉은기신념으로 다져
태양의 사랑으로 만들어세운

우리 집 기둥

천하를 둘러보라

애족의 넋이 뛰고

애민의 피가 흐르는 《이민위천》의 총대를
기둥으로 세운 집이 있는가

보아라

혁명의 수령들이 세운

인민의 집은 많았건만

총대로 기둥을 세우지 못해

그 지붕아래 운명의 보금자리 찢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눈비조차 그을 곳 없는

방랑아로 헤매는것을

력사가 알지 못하고

시대가 찾지 못한 이 기둥

우리 장군님만은

인민의 집에

행복의 기둥으로 세워주셨나니

이 총대 강하에 세우면

언제가 구름우에 솟아오르고

이 총대 진펄에 세우면

새 거리가 꿈같이 펼쳐졌더라

이 총대 창공을 향해 우뚝 세워

무한한 우주도 우리의것이 되었더라

장군님은 이렇게 총대로 세우셨어라

천리전선엔 수호의 기둥

온 나라 가정들엔 행복의 기둥

사회주의건설장엔 창조의 기둥

태양민족 내 나라엔

강성대국의 기둥을!

아, 노래를 드리노라

불패의 총대기둥 다지고 버려

선군의 우리 집을 더 높이 더 우뚝

더 아름답고 더 강대하게 세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여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끄떡없을 총대기둥이 선

인민의 집

사회주의 내 조국은

행성우에 우뚝 솟아 영원하리라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청년사업은 내가 일생을 두고 심혈을 바쳐온 중대사의 하나이다. 나의 혁명활동이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것은 길림시절의 생활이 잘 말해주고있다.》

《나는 언제나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로 보았다. 청년들은 혁명투쟁과 사회적운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한 선봉대이고 주력부대이며 미래의 운명까지도 걸머진 골간부대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펼쳐보아도 사회개조의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있었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다. 만일 나에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잠글것이다.》

《지금 사로청대렬에는 **김정일**조직비서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수백만의 맹원들이 집결되어있다. 21세기의 우리 조국은 그들의 힘에 의하여 보다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러지게 될것이다.》

작가의 인생소원을 풀어주신 래양의 품

박춘택

시인 박팔양은 1920년대 초엽부터 시문학의 붓을 들고 수십년동안 창작생활의 행로를 걸어온 오랜 작가들중의 한사람이다.

창작의 붓을 권 때로부터 1천 여편의 작품을 창작하여 주체문학발전에 기여한 애국적인 작가인 그의 이름은 오늘 조선문단에 뚜렷이 새겨져 있다.

박팔양의 창작활동과 영생하는 삶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작가의 인생도 재능도 꽃피날수 있고 작품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본성과 역사적사명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고 문학발전의 앞길을 정확히 제시하며 작가의 정치적생명과 창작활동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받는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최상의 영예이며 최대의 행복이다.》

1905년 8월 2일에 경기도 수원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한 박팔양은 서울법학전문학교에 다닐 때부터 시문학에 애착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주체12(1923)년에 처음으로 《물노래》라는 단시 한편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시창작에 대한 신심을 얻은 그는 시인이 되는 길을 택하였다.

그는 주체14(1925)년 8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결성을 계기로 문학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카프》에 망라된 박팔양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무산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문학활동을 힘있게 벌렸다. 그는 작품에서 당대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주장하였으며 무산계급의 선각자를 전형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적리상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의 문학창작과 작가적인생은 이끌어주는 손길이 없고 보호해주는 품이 없었던탓으로 서리맞은 꽃잎의 신체를 면할수 없었다.

그는 시 《진달래》에서 이렇게 썼다.

날더러 진달래꽃을 노래하라 하십니까
이 가난한 시인더러 그 적막하고도 가냘픈
꽃을
이른봄 산골짜기에 소문도 없이 피었다가
하루아침 비바람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꽃을
무슨 말로 노래하라 하십니까?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슬픈 사실이외다

백일홍처럼 붉게붉게 피지도 못하는 꽃을
국화처럼 오래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불들고 울것이외다

비바람에 속절없이 진달래의 그 옅은 꽃잎이 지는것은 선구자의 불행한 수난이고 이 가난한 시인이 그 꽃을 불들고 우는것은 우리 선구자들 수난의 모양이 너무도 많이 머리속에 있는 까닭이라는 시의 정서.

나라없는 그 시절 우리 작가들의 운명은 비바람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진달래나 다름없었다. 박팔양자신이 모진 비바람 만나 흩어지는 가엾은 꽃이였고 찬바람 오고가는 산허리에 떨어져 쓸쓸하게 나딩구는 시든 꽃잎이였다.

활짝 피여 봄향기 풍기는 진달래가 되려는 박팔양의 인생소원은 해방후 우리 수령님께서 풀어주시였다.

주체34(1945)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신의주에 머무르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안북도당위원회기관지 《바른말》에서 일하고있던 박팔양을 한 기자와 함께 만나주시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그들을 맞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박팔양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선생을 알고있었다고 하시며 그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박팔양에게 친히 담배를 권하시고 손수 불까지 붙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결연한 어조로 이번 《학생소요사건》은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우리 인민의 애국적인 건국열의를 떨어뜨리려는 불순분자들의 사촉하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시였다.

박팔양은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한없이 겸허하신 인품에 매혹되어 그에게 신문기사 초교지를 내놓으며 보아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펜을 드시고 기사를 수정가필하여주시면서 기자들은 대중을 새 조국 건설에로 불려일으키는 글을 많이 써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박팔양을 만나신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신의주에 파견되어 일하고있던 김일동지로부터 그의 파거지사를 듣게 되시였다.

일제의 강요로 박팔양은 한때 친일단체에서 일하였었다. 그 점을 문제시한다면 버려질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박팔양은 《카프》시인이였다, 그는 일제통치 말기까지 조선말을 지키며 활동한 언론인이였

다, 우리는 한때 잘못 산 경력보다 민족성을 지키려는 그의 애국심을 더 귀중히 여겨야 한다, 문필가들은 나라의 귀중한 재사들이라고 말할 것이었다.

주체35(1946)년 3월 어느날 박팔양은 자기를 《정로》(《로동신문》의 전신)의 편집국장으로 임명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수표가 있는 소환장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박팔양을 당보의 초대 편집국장으로 임명하시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보증하신것이다.

박팔양은 인생의 봄을 이렇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긴 그는 시창작으로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뚜렷한 애국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모든 열정과 재능을 바쳐나갔다.

그러던 주체36(1947)년 1월 어느날.

박팔양은 여러명의 작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문학예술창작방향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박팔양은 문학예술에 대한 비범한 천품을 지니신 수령님의 위인적품모에 매혹되었으며 탁월한 수령을 모신 궁지와 환희로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그는 시문학의 붓대를 역세계 틀어잡고 시대정신을 구현한 훌륭한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열네살 어린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압록강가에서 다지신 맹세를 지켜 인류력사가 일찌기 모르는 20여성상 세월의 피에 젖은 고난을 끝끝내 이겨내시고 조국해방을 안고 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노래한 장시《민족의 영예》.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 총대와 함께 멸적의 붓대를 틀어쥐고 종군의 길에서 쓴 《진격의 밤》, 《영웅하게 싸워이기리라》, 《종군 4행시조》.

천리마시대를 노래한 《송남탄광으로》, 《천리마의 노래》, 《용광로야》.

이 모든 작품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려는 작가의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고 애국으로 불타는 시인의 고결한 념이 숨배여있다.

주체49(1960)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박팔양이 창작한 무대작품을 보여주시었다.

공연을 보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좋은 작품을 썼다고, 내용이 좋다고, 인민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거듭 치하해주시었다. 그리고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한 민족가극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한 평범한 작가가 창작한 작품을 놓고 작은 하나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말씀하시며 고무

해주실 때 박팔양은 우리 작가들의 창작생활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작가의 문학을 꽃피워주시려 크나큰 로고를 기울이시는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이 뜨거워 졌다

이런 사랑속에 태양의 빛발아래 박팔양은 인생 후반기에 풍만한 창작적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

작가 박팔양은 주체77(1988)년 우리결을 떠나 갔다.

우리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1(1992)년 1월 어느날 주체문학건설과 창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면서 《카프》시기 박팔양의 창작활동을 평가하시고 그의 시《진달래》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해방후에 창작한 시 작품과 함께 해방전에 창작한 작품들도 포함시켜 박팔양시선집을 출판하도록 하시고 그의 작품들을 조선문학사와 문학평론, 문학교재에서도 취급하도록 하시었다.

주체94(2005)년 11월 애국렬사릉에 작가 박팔양의 유해가 안치되었다.

《카프》의 수난과 함께 붓대마저 꺾이며 《하루 아침 비바람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꽃》, 《모진 비바람 만나 흩어지는 가없는 꽃》신세가 되었던 그가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온 나라, 온 겨레가 다 아는 박팔양으로 다시 태어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봄을 부르는 진달래와 같이 아름답게 피려는 작가의 인생소원을 풀어주시었다.

통일애국투사-비전향장기수 박문재동지는 작가 박팔양의 맏아들이다. 그는 아버지가 애국의 붓대를 틀어쥐고 신념과 량심을 지켜 한생을 꾀없이 살아온것처럼 통일애국의 길에서 신념을 지켜 싸웠다.

《삼천포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박문재동지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각오를 하고 적들과 맞섰으며 놈들의 《전향》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렸다. 그의 가슴속에는 아버지를 댁으로 부르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아버지에게 친히 술까지 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아버지 박팔양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박문재동지에게 불사의 힘을 주었다.

박문재동지가 조국으로 귀환되기 하루전 맏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향>을 하지 않은것은 네 할아버지와 이 아버지에게 베푸신 김일성장군님의 은덕과 고마운 조국을 저버릴수 없었기때문이야.》

작가 박팔양과 그의 맏아들 박문재동지의 인생행로에서 우리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품모, 고결한 인덕을 지니신 수령을 모실 때 인간은 참다운 삶을 꽃피울수 있고 영생한다는 진리를 절감한다.

장군님곁에 있습니다

한영빈

가장 가까이에 우리가
위대하신 장군님곁에 있습니다
설사 하늘땅이 뒤집힌다 해도
이 세상 끝이라도 장군님만 따라갈
가장 충직한 인민 위대한 민족이
언제나 장군님곁에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의 심장에
맥맥히 흘러듭니다
온 세계를 다 안고 호흡하시는
자애론 아버지의 뜨거운 숨결이
우리 태양민족만이 아닌
전 인류의 심장에 활력을 주며
새 세기를 이끄시는 거대한 심장의 박동이

그 숨결로 우리가 숨을 쉬고
그 박동으로 우리의 심장이 고동쳐
그이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 언제나
만년앞날을 내다보시는
장군님안광에 눈길을 모으고
승리와 행복만을 가리키시는
장군님말씀만 따르며 사나니

어느때건 나직이
우릴 불러 벽을 울리시면
그러면 우리
아직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들어본적 없는
그런 큰 우뢰로
강산을 울리리라

장군님 우릴 불러 우뢰되라 하시면
천동소리 하늘땅을 진동하리라
장군님 우릴 불러 번개치라 하시면
이 세상 원썩들 가루되어 날리리라

주신 사랑
배푸신 은혜
바치신 로고가
위대한 당이 되고
무적의 군대가 되고
훌륭한 인민이 되었기에

장군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위대한 당의 총비서
가장 강대한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가장 긍지높은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

아 **김정일**장군이시여!
언제건 어느때건
최후의 결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라
그러면 온 세상이 보게 하리라
아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선군으로 인민을 안아키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그 길에 불꽃같이 사라진대도
장군님품에 웃으며 별이 되어 영원할
우리가 있습니다
장군님곁에 있습니다

가사

언제나 함께 계시네

림철

우러르면 언제나 이 가슴 뜨겁게
문건을 펼쳐드신 두분의 사진이여
아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그 무슨 사업을 토의하실가
아 토의하실가

세쌍둥이 출생한 반가운 소식일가
최전연 병사들을 만나본 소식일가
천만가지 나라일 의논하시며

나누시는 이야기 끝이 없어라
아 끝이 없어라

조국과 사회주의운명을 위하여
인민의 끝없는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계속되는 두분의 사업
영원한 모습으로 함께 계시네
아 함께 계시네

헌신의 낮과 밤

사회주의는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다. 하지만 1990년대 초엽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사회주의는 일시적인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이 전진하고 있었다. 이런 속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과 세계 많은 정당들은 우리 나라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 세계사회주의수호를 위한 대리론전의 중하를 맡아안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헌신의 낮과 밤을 보내시였다.

어느날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집무실에 들어서서는 일군들을 인차 알아보지 못하시였다. 며칠째 밤을 지새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날 저녁 6시부터 그날 아침까지 꼬박 글을 보시다나니 눈앞이 뿌에서 일군들을 잘 가려볼수 없으시였던것이다.

일군들은 걱정을 금치 못해하며 위대한 장군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밤에는 꼭 주무셔야겠다고 절절하게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를 생각해주는것은 고맙다고 하시면서 나도 밤이 깊으면 못견디게 졸린다, 그렇다고 내가 편히 잠을 자면 우리 혁명의 전진이 떠진다, 그래서 나는 쪽잠에 들었다가도 인차 깨어나군 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고싶어도 마음놓고 잠을 잘수 없으며 한평생 마음놓고 잠을 자볼것 같지 못하다, 나는 밤을 새며 일하는데서 긍지감을 느끼군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정녕 감격의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가슴뜨거운 말씀이시였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보내신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낮과 밤은 그 얼마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등을 련이어 집필발표하시여 사회주의리념의 정당성을 론증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위업실현의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평양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혁명적당들의 공동의 투쟁강령을 채택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받아 안고 사회주의재건운동의 출로를 찾은 세계의 수많은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대표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80돐을 계기로 앞을 다투어 평양으로, 평양으로 모여왔다. 체류기간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을 다시금 정열적으로 탐독하면서 로작들에 밝혀진 탁월한 사상리론의 진리성과 생활력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으며 그에 기초한 공동의 투쟁강령작성을 모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지향을 헤아리시고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쌍무적 및 다무적접촉과 회담을 진행하여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해주시였다.

우리 당대표단과 외국의 당대표단들은 회담과 논의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사상리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립장과 방도를 집대성한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기자》**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참으로 평양선언은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을뿐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길을 명확히 밝혀준 위대한 투쟁강령이었다.

주체81(1992)년 4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평양선언이 나온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혁명적당들의 국제주의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평양선언이 채택될 당시 그에 서명한 정당이 70개였다면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는 270여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나라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는 사업에 크나큰 정력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낮과 밤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위기에서 구원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반공격을 가하며 급속히 재건, 건설되여나가는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면서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있는 끝없는 영예와 긍지에 한껏 넘쳐있다.

홍영길

아무르강의 물결소리

염득복

아무르강의 물결소리 물결소리
눈앞에 그림처럼 안겨오는듯
내 나라 대동강도 아닌
이국의 낯선 강이건만

조용히 조국을 떠나시여
차길로 5만여리
하루도 편히 쉴사이없이
로씨야방문길에 오르신 장군님

유유한 흐름따라 배를 타시고
하바롭스크를 부감하시며
어버이수령님의 발자취어린
못 잊을 지난날을 그려보시여라

아, 아무르강
항일의 그날 우리 수령님
네 물결소리 들으시며
동터오는 조국해방의 그날을 구상하셨으리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
네 물결소리 그리도 유점함은

네 물결소리 그리도 아름다움은
흘러간 물결의 추억을 싣고
수령님의 거룩한 그 모습이
맑은 수면위에 비껴있기때문이 아니냐

피어린 항일대전의 그 나날
하바롭스크에 남기신
우리 수령님의 자욱을 더듬으시며
장군님은 조용히 아무르강에 사색을 엮으시여라

두분의 거룩하신 영상
흘러가는 물결에도 씻기지 않고
변함없이 영원히 비껴있어
내 너를 그토록 못 잊는것 아니던가

나는 듣는다 지금도
출렁이는 아무르강의 물결소리
내 조국땅에선 수천리 먼곳이어도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그날의 모습
이 마음에 뜨거워 영원할 노래의 강
아, 아무르강의 물결소리여!

가사

예쁜꽃들아

문원모

참다운 사랑을 조국위해 바쳐가는
영예군인 전우된 고마운 안해들아
아 시대의 축복을 받으시라
선군이 피워준 예쁜 꽃들아 예쁜 꽃들아

봄날같은 사랑을 남편에게 바쳐가며
혁명의 꽃 피워가는 미더운 안해들아

아 시대의 축복을 받으시라
선군의 향기된 예쁜 꽃들아 예쁜 꽃들아

피흘린 전호가의 영원한 동지로
한생을 변함없는 영예군인 안해들아
아 시대의 축복을 받으시라
선군의 자랑인 예쁜 꽃들아 예쁜 꽃들아

사랑은 장벽을 넘어

박천걸

1

하늘나라 은하수인양
거리엔 별무리 떨기져 흐르고
강반에서 공원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청춘들의 가슴에
소중한 꿈도 많은 이 저녁

우리 당의 은정이
집집에 차고넘쳐
복된 생활의 웃음소리
창가마다 쏟아져나오는
수도의 이 저녁

보통강반에 자리잡은 초고층살림집
려연심부의장의 집에서
사연많은 불빛이
오래도록 꺼질줄 몰라라

누구나 이맘때면
누리는 오늘의 행복을 두고
생각도 많으리
그 행복이 시작된 첫 기슭을
마음속으로 후더이 더듬어 보며

그때문인가 건너방에선
피아노에 맞추어 부르는
손녀들의 노래소리 들려오건만
아는듯 모르는듯
홀로 생각에 잠긴 우리의 주인공

60을 넘긴 여성의 몸으로
오늘도 패기에 넘쳐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일군으로 일하고있는
려연심

그래도 집에 들어서면
인정무른 할머니는 어쩔수 없어
이맘때면 귀여운 손녀들의 재롱을 받으며
잠시 시간을 보내곤 하건만
오늘은 웬일인지
착잡한 심정이 얼굴에 비졌구나

하기야 며칠후면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에
우리측 대표단의 단장으로 가게 된 몸
몹시도 바쁜 날을 보내는 연심이다

얼마나 중대한 사업인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여성들
분렬의 비극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이

통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함을 다시금 절감하며
많은 문제들을 론해야 할 이번 토론회

모든 준비가 원만히 끝났어도
몇번이나 따져보고 보충하며
마무리를 한 연심이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무엇이 석연치 않아라

마음의 안정을 못하며
다시금 하나하나 더듬어보는데
방문이 벌컥 열린다
《할머니》그에게 달려와 안기는
유치원에 다니는 손녀 옥별이

《할머니 웬일이냐?》
언제나 이맘때의 즐거운 오락회시간이면
자기들과 《동갑》이가 되곤 하는 할머니얼굴에
오늘은 그들이 젖으니
우리가 묻고싶은 말을 아이가 하는구나

어서 가 놀라고
등을 떠밀어도
갈념을 모른다 귀염둥이 옥별이
머루같은 까만 눈을 깜빡이며 묻는 소리

《할머니 이제 서울에 가나?》
《그건 왜?》
《그럼 증조할아버지한테 가겠구나》
아마도 어른들의 이야기를
한모퉁이 귀동냥한 모양이다

《증조할아버지한테?》
저도 모르게 따라외우는 연심이
아 그것이였지
마음의 진정을 못한 그것이
손녀애가 튕겨주었구나

애써 잊자던 그것이
가슴속에 세차게 격류하며
다시금 뜨거움이 가득히 차오른다
옥별이를 안은 연심이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저 먼 남쪽하늘 바라보나니

그때문이었다
요즘은 앓으나서나 그 생각
사업의 여가에도
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시간가는줄 모르다가
문득 깨어나 자신을 다잡곤 하는 연심이

남녘
그에게 남녘은 생소한 곳이 아니다

거기는 태를 묻은 고향
머리가 희어진 오늘에도
추억의 파아란 하늘가에
동요의 고운 무지개가 비껴있는 곳

그리고 또 있나니
세월이 갈수록 그의 가슴에
그리움과 애절함만 채워주는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차디찬 땅속에 누워계시는 곳

얼마나 가보고싶은 곳인가
림종도 지켜드리지 못한 아버지령전에
늦게나마 꽃 한송이 놓고싶건만
그 한송이 꽃에
쌍이고쌍인 그리움을 다 담고싶건만

나라의 분렬
그것은 반세기를 안고있는
그의 절절한 소원마저 외면하고있으니
밤마다 아픔에 잠 못 들며
애절히 아버지를 부르는 딸의 목소리
콩크리트장벽을 못 넘었고
가시철조망에 찢기여 흩어지기를 그 얼마...

옥별이의 말대로
이번 서울길에라도
아버지의 묘를 찾는다면 얼마나 좋으랴
요즘은 가슴 한구석에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쳐들고
지금도 마음은 그곳으로만 달리려는데

(아니 그럴수 없어)
결연히 그것을 털어버린다
북남으로 갈라져
리별의 아픔을 안고사는 사람들
이 땅엔 천만을 넘는데
나만이 아버지를 먼저 찾는단 말인가

더우기 거기는 미제가 살판치는 곳
중임을 말은 몸으로
어찌 사사일에 마음을 쓰라는 그 심정
알수 있으랴 불행이란 말조차 모르는 이
손녀애가
어떻게 말해주랴 천진한 옥별이에게

아 어찌하여 우리 조국은
세기를 넘어 분렬국가로 남아있는가
그 언제면 수천만 선량한 우리 민족의
피와 눈물과 아픔을 자아내는
현세의 가장 큰 이 비극을 가실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 용서하세요
춘하추동 내리는 눈비를 홀로 맞으며
외로이 누워계시는 그리운 아버지
자식의 도리도 못 지키는
이 불초한 딸자식을 용서하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이 소녀가 마음껏 응석을 부리던 그 가슴에
흉악한 총질을 한 저 가증스런 미제놈들
우리 조국강토에서 기어이 쓸어버리는 그날

찾아가겠어요 우리 형제모두
아버지가 좋아하신 꽃들을
한아름씩 안고 말이에요)

가슴속에 떨어지는 비애의 눈물
그의 불을 뜨겁게 적시고
애절한 그리움은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를 부르며
끝없이 솟아 흐르는데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2

그렇게만 깊어간 밤이었던가
그렇게만 밝아온 이 아침인가...
평범한 날의
분과 초에도
참으로 크나큰 사랑이 실려 흐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

례사로운 한초한초에
무궁한 세기를 열어주는
그 숭엄한 사색을 깨칠가 저어하며
푸름푸름 밝아오는 새벽빛이
가다가
조용히 흘러들고있어라

그 몇번째인가
안타까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이제는 좀 쉬셔야 하겠다고
간절히 말씀드리는 부관의 마음
단가마의 물방울처럼
줄아만 드는데

수북이 쌓인 문건을 마주하시고
이 새벽을 맞으시는 어버이수령님
간밤 또 지새우신 피로가
그이의 모습에 어렸어라

노래에도 있듯이
수령님의 안녕은 우리의 행복
그것을 너무도 잘 아는 인민이건만
어찌하랴 격변하는 오늘의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거니

우리 알지 않는가
밖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공세와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배신행위로 빚어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
세계의 곳곳에서
예상밖의 일들이 꼬리를 문 이해를

어지럽게 휩쓰는 광풍속에서
우리 혁명은 또 얼마나 간고했던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
미제의 미친듯 한 새 전쟁도발책동...
그 모든것을 물리치며
사회주의보루를 철벽으로 더 든든히 다진 이해

어떻게 하면
이해의 마지막 한두달을
혁명과 건설의 더 큰 양양으로 장식할것인가

수령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며
나라의 크고작은 문제들이
수북이 쌓여진 저 문헌들

하나 그 모든것을 잠시 잊으신듯
깊은 생각에 잠기신 수령님앞에
그냥 남아있는 하나의 문헌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단의 일정계획과 보고문들

(연심이가 서울에 간단 말이지)
숙연히 눈길을 드시는
수령님
(서울 거기에
그의 아버지묘가 있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방안을 거니시는 수령님의 심중
발자욱소리도 사색에 파묻히고말아라
(려운형선생이 우리결을 떠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군
나라의 통일을 위해
그렇게도 애쓰던 선생이었는데...)

숙연한 정적속에
창밖을 바라보시는 어버이수령님
(연심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
아직 한번도 못 가본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됐으니
연심이의 마음이 평온할리 없지

그런데도 아버지를 찾아보지 않겠나?!
하긴 한가정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던 선생이였으니
연심이도 아버지를 닮았겠지

그래도 연심이의 아픈 마음이야 어디 가겠나
하나절이면 가닿을 아버지령전에
수십년세월 못 가는 연심이의 아픔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선생앞에
도리를 다했다고 하겠는가

나라의 분렬
그것으로 딸에게
조상전래의 풍습조차 못 지키게 한
오늘의 현실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아니, 그럴수 없지
우리는 혁명의 길에 나선 그날부터
그 어떤 위대한 사상이나 리념도
뜨거운 인간애를 바탕으로 할것을 주장했고
그것을 실천해오고있다

인간의 의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도 변할수도 없는
가장 뜨겁고 영원한것이기때문에 고귀한것이
아닌가?!)

심중에 그윽히 차오르는

뜨거운것을 누르지 못하시듯
창문을 활 열어제끼신 어버이수령님
시원한 아침대기를
한껏 호흡하셔라

기쁨안고 밝아온 수도의 이 아침
밝은 해살 뿌려진 맑은 거리며
이슬을 머금고 기지개켜는 아름다운 꽃들
아침해를 마주하여 열리는 집집의 창문들

새날의 첫 흐름우에 넘치는
청신한 기운을 느끼시며
간밤의 피로는
순간에 다 푸신듯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수령님
부판을 부르셔라

《이제 곧
화환을 하나 준비해야겠소
그리고 연심이네 형제들을 모두 부르시오》

3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들을 또다시 불러주시다니?!
진정 꿈만 같은 행복에
높뛰는 가슴들을 진정할새도 없이
벌써 다 왔는가
옷매무시를 바로하며
아늑한 방에 들어서던 연심이네 형제들

아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어버이수령님
몸소 두팔을 벌리시며
그들을 향해 마중나오시지 않는가

《수령님!》
서로 엮어질듯 달려가
달려가 넓은 그 품에
와락 안긴 네 형제
그만 인사말도 잊은채
감격에 흐느껴울어라

얼마나 뵈고싶었던 수령님이시였던가
얼마나 안기고싶은 어버이품인가
잠시잠간 떨어져있어도
천년을 헤어져있든듯 마냥 뵈고만싶은
어버이수령님
그래서 한번 안기면
영영 떨어지고싶지 않은 그 품

하기에 한번 잠간 만나뵈은 사람도
봄날의 해빛같은 그 미소앞에
저도 모르게 어려움을 잊게 되고
만인을 품으시는 그 친화력에

스스로 끌리는 마음 어쩔수 없다고
일생을 두고두고 못 잊는 그 품

만나면 만나실적마다
세기를 두고도 못 갚을 은정만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어버이앞에
인민은 언제나 저 남매들처럼
행복의 무아경에 잠긴 아이들 되거니

사람들이여
머리가 희여진 그네들이
주책없이 수령님의 옷자락을
뜨거운 눈물로 적신다고
부디 나무라지 마시라
가까스로 걱정을 누르며
옷매무시를 바로한 그들 남매
정중히 허리굽혀 절을 드린다
《어버이수령님!》
그리고 또다시 흐르는 감격의 눈물

《절은 무슨...
됐다 그만들 해라
이번에 연심이가 서울에 간다기에
너희들과 식사나 함께 하자고 불렀다》

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
동그런 식탁앞으로 이끄시는 자애로운 손길이어
상우엔 갖가지 음식들
정성껏 차려져있어라

일일이 수저까지 쥐여주시며
그들의 건강이며
아이들도 잘있는가
하나하나 물으시는 음성
세간난 자식들이 오랜만에 찾아온듯
다심한 어버이의 마음이어라

사양말고 어서 들라고
해방후 너희 아버지가 평양에 왔을 때도
우리 집에서 나와 허물없이 식사를 나누었다고
따뜻이 권하시는 수령님
《그때 정숙동무가 다 해줬지》

다정히 미소를 지으시고
그때 일을 더듬으시는 수령님
연심의 가슴속에 뜨거움이 복받친다
아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사랑
땅속에선들 아버지가 잊을수 있으랴

길지 않은 나날이었어도
수령님과 어머니의 보살핌속에

그 햇빛의 따뜻함을 심장으로 체험한 아버지
그래서 수령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
생명을 바쳤고
자식들의 운명과 장래도
그 품에 맡기지 않았던가?!...

그들형제를 대견스레 바라보시며
상가운데 큰 그릇을
그들앞으로 당겨놓으시는 수령님
《이것을 맛보아라
너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언감자떡이다
너희 아버지가 평양에 왔을 때는 여름이어서
이것만은 못해줬다고
정숙동무가 후에도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모른다》

그 말씀을 들으며
자기들앞에 놓인 먹음직한 언감자떡을 보니
연심의 눈앞에 떠오르나니
언감자떡이라면 그렇게도 맛있다고
때없이 자주 찾던 아버지의 그 모습

(아 이제는 이 자식들의 기억에도 삭막해진
아버지의 그 식성마저
어쩌면 오늘토록 못 잊으시는 수령님
그날의 아버지가 받아안은 사랑에
못다 주신 그 무엇이 있기에
오늘은 우리에게까지...)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크나큰 어버이정우에
다시 또다시 쌓여지는
대해같은 사랑이어

《내가 이미 여러번 말했지만
너희 아버진 참 훌륭한분이였다
나를 만나러 세번이나 평양에 왔댔다
대바르고 강직하고 정열적이였지
해방직후 남조선의 복잡한 정치정세속에서
민족의 단합을 위해 큰일을 하였다》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시원시원한 이마밑에
열정의 눈동자가 빛나던
그날의 애국인사를 그려보시듯
아무 말씀 없으시던 수령님
연심에게 몸을 돌리신다

《내가 이번 서울길에
아버지의 묘를 찾지 않겠다고 한다는데
물론 네 마음은 알만 하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생존엔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추석때면 꼭 산소를 찾아
부모님들의 명복을 비는것이
민족의 고상한 풍습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라의 분렬로
조상전래의 그 풍습조차 못 지키고있지
하긴 너희 가정뿐이 아니지
이 가슴아픈 비극을 생각하며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흐리신 안색으로
나직이 말씀하시는 수령님을 우러러
차오르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는 연심이
이 자식들의 추모의 꽃 한송이는 받지 못했어도
얼마나 뜨거운 그이의 심중에
아버지는 오늘도 살아계시는것인가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조국을 구원하시고 이끌어오시는
장구하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 수억만리
그 길에 우리 수령님
잠시잠간 만났다 헤어진 사람들 그 얼마이라만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불과 2년
한 일보다 아픔만을 더 남긴 아버지를
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수령님
애국인사로 거듭거듭 불러주시며
민족사에 길이 빛내주시는 그 믿음이어!

반아안은 영광은 하늘에 닿았는데
오늘은 혈육의 정까지
뜨겁게 이어주시는 수령님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너는 이번에 다른 생각 말고
아버지의 묘소부터 꼭 찾아보아야 한다》

뜨거운 눈물을 가까스로 삼키는
그들형제를 둘러보시며
수령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번에
너희 아버지 묘에
화환을 보내려고 한다
화환은 두개 준비했으니
하나를 너희 형제들의 이름으로
하나를 나의 이름으로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금 생존하시면
아버지가 백다섯살이고
어머니가 백세살이기에
흰꽃 208송이로 화환을 만들고
너희 형제가 모두 아홉명이니
가운데는 아홉개의 붉은 꽃송이를 넣어서
말이야》

마디마디 송고한 정을 담아
그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아아, 정녕 이것을
사랑이라고밖에 달리는 부를수 없단 말인가
이 세상의 못사랑과
같은 이름으로 불러야 한단 말인가?!

이 기쁜 날
눈물을 보이지 않자고
속다짐한 연심이네 형제
참고참왔던 걱정이
그만해야 뜻을 넘었는가
그들의 어깨가
세차게 세차게 물결치거니

예로부터 사랑과 덕망은
인간의 미덕으로 전해지건만
물어보자 수천만년 흘러온 력사의 그 어느
시대에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
기록된적 있었던가를

떠나간지 반세기
이제는 피를 나눈 자식들도
오늘의 생활속에
가끔 잊을 때가 있으리
그것을 사람들은 탓하지 않는다
세월이라는 시간의 연장엔
망각이라는 결수가 붙어있거니

생활의 당연한 리치로야
우리 어찌 헤아릴수 있으랴
하많은 세월을 넘으며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만 지는
불변의 이 사랑
이 크낙한 세계를

퍼내고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그 사랑의 샘이 원천을 둔 품
진정 우리 수령님은 어떤분이신가
겨레여 우리모두 저 남매와 함께 대답해보자
뛰는 자기의 심장에 귀기울여보자

참으로 그이는
떨어져선 순간도 못살
우리모두의 자애깊은 아버지
사상과 리념으로 위대한 혁명가이시기 전에
열화같은 인간애를 천품으로 지니신
그이는 열의인 사랑의 화신!

오, 행복하도다 인민이여
그 품에 너와 나 영원히 운명 말긴
이런 수령님의 인민임을 가슴헤쳐 자랑하자
그렇다 심장과 심장으로
우리의 밝은 태양을 더 높이 칭송하자!

4

여기는 서울의 어느 한적한 곳
마가울바람에 가랑잎만 쓸쓸히 날리고
서늘한 공기속에 모든것이
숨을 죽인듯 한산하던 나즈막한 이 둔덕

이 둔덕에 크지 않은 봉분이 솟아
세월의 눈비를 맞으며 그 몇해
찾아오는 이들의 발자욱
몇이나 되었던지

모진 땅 험한 세상에서도
그 뉘의 착한 손길인듯
잔디도 알맞춤히 입히고
돌도 가지런히 쌓아올린 이 봉분

낮익은 산천을 바라보며
한자욱한자욱
아버지 묘로 오르는 연심의 가슴엔
이름 못할 정희가 차올라라

어린시절 아버지의 손목 잡고
자주도 오르던 이 둔덕
어디냐 저 하늘의 종달새 동무하여서
즐거운 노래 부를 나라로 가자고
아버지와 우리 형제 노래하던 그 바위는
어디냐 술래잡이로 해저문물 모르던 그곳은

어이 알라
금시라도 저 숲속 어데선가
《애야! 넘어질라》 하시던
귀익은 아버지의 음성
다시금 다시금 울려나올지

새소리 물소리 정답고
물안개 하얗게 피어나던 이 산기슭
그날의 소중한 추억은

이 땅 이 가슴에 그대로 있는데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숫구치는 그리움의 눈물
울컥 쏟을듯싶은 그의 눈앞에
안겨오거니
아 저기였구나 차디찬 땅속에
아버지가 누워계시는 곳

허둥지둥 달려가
낮설은 봉분앞
아니, 긴긴 세월
홀로 계시는 아버지앞에
주저앉듯 꿇어앉은 연심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귀여워해주시던
맘이 연심이가 왔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아버지!

그렇게도 보고싶던 아버지
이 딸이 분렬의 장벽을 넘어 찾아왔는데
왜 말없이
누워만 계시나요?》

불러도 불러도 대답없는 아버지
무심한 산천도
연심이의 애끓는 부름을 받아외우고
둘러선 사람들의 얼굴에도
분렬의 비통함이 다시금 서리는데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훔치며
천천히 일어서는 연심이
《아버지 알고계시나요
아버지가 생존에 그토록 흠모하던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
아버지에게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화환이라니?!
웅성거리는 사람들
모두가 믿을수 없는듯 서로 마주보는 얼굴
평양에서 서울이 어디라고
그것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서
오래전에 떠나간 애국인사의 묘에 화환을?!

주위의 시선을 모으며
옆에 놓인 큰 함을 열어
정중히 화환을 꺼내는 연심
아버지의 봉분앞에 놓이는
함함한 꽃의 묶음

금시 이슬을 머금고 피였는가
향기론 떨기떨기
아 사람들의 얼굴에
삼시에 경탄의 빛이 어리거니

눈여겨보시라 사람들이여
눈같이 깨끗한 흰 꽃속에
타는듯 붉게붉게 피어웃는
9송이의 **김일성**화
9송이의 **김정일**화여

화환에 드리운 부드러운 땀기에
살아서 타번지는 불길인양
사람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나뭇기는
저 글발
《고 몽양 려운형선생을 추모하여
김일성》

아 외세가 살판치는 이 땅
차디찬 땅속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몸소 안아일으켜
뜨거운 온기를 주고싶으신 마음
저 글발에 새겨있는가
저 송이송이에 어려있는가

아니, 세월의 락엽은 한잎두잎
과거와 추억을 덮는대도
순간도 잊음 없는 반세기
은정으로 이어진 날과 날들이
이 화환에 머물러있나니

시간이여 잠시 멈추어다오
바람이여 잠시 불지 말아다오
수령님께 아뢰는
이들 부녀의 감격의 목소리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는가

려운형: 《장군님 고맙습니다
원수들의 흉탄에 제가 쓰러진 그날
누구보다 가슴아프시여
때식도 건느시며 잠 못 드신 그밤들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려연심: 《그래요 아버지
어서 일어나세요
나라의 통일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수가 없다던
아버지가 아니예요》

려운형: 《죄송합니다 장군님
우리 민족의 령수이신 장군님께
그토록 심장으로 매혹된 제가
장군님뜻을 받들어 많은 일을 하자고 했

는데…
그런데도 아픔만을 남긴 제가
무엇이길래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십니까》

감격에 젖어 울려가는 메아리
아 꽃이여 네가 또 이야기하라
그 이름 빛내준 사랑도
《조국통일상》을 안겨준 은혜론 손길도

아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품어주는 그 품이
영생의 봄빛으로 피워놓은 꽃이여
사랑의 날과 날로 뜨겁게 엮어온
세월의 아름다운 응결체여!

《아버지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 일어나 그날처럼
태양의 품에 안기던 그날처럼
이 꽃들을 안아보세요
은정의 향기 가득 넘치는
이 꽃송이들을 다 안아보세요》

행복의 눈물속에 터치는 연심의 목소리
그 향기에 젖어드는 누구나의 가슴에
뜨거운 감격이 가득히 차오르고
누리에 빛나는 존함을 우러러
눈가마다 후더운것이 젖어드는데

사랑의 그 향기
메말랐던 산천에 삶의 환희를 안겨주고
저 하늘의 못새들은 격정에 못이겨
깃을 치며 날아올라
저 푸른 창공으로 그 소식을 안고 내려쳐간다

인간사랑의 절정을 이룬
이 력사의 화폭을 담아
사진기의 섬광과 섬광이 번쩍여라

영광의 빛발속에
생시런듯 꽃에 묻힌 아버지의 사진을
뜨거운 눈물속에 바라보며
연심이의 가슴속에 울리는 속삭임소리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보세요 아버지
세월을 넘고 장벽을 넘어온
이 사랑의 향기
남녘의 모든 사람들 가슴에
희망의 봄향기를 뿌려주고있어요

이제 우리 수령님의 그 사랑에

저 원한의 콩크리트장벽도 녹아내리고
삼천리 이 강토에
통일의 꽃바다가 펼쳐질거예요

그날이 보여요 아버지
7천만이 얼싸안은 눈물의 꽃바다속에
마음껏 통일만세를 함께 부르는 사람들
은혜론 해빛을 받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들이 보여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의 그날
우리 형제 모두 다시 오겠어요
기쁨속에 아버지를 다시 뵈겠어요)

×

동서고금의 어느 시대에도
들어본적 없는 이런 이야기
바람처럼 퍼졌다 서울과 온 남녘에
불도가니처럼 끓는다 서울과 온 남녘이

가정과 일터
대학과 거리
남녘의 가는 곳마다에서
사람들모두가 주고받는 이야기
전설같은 이 이야기

신문과 방송 텔레비존들
이 경이적인 소식을
앞을 다투어 전해주어라
이는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

우리 대표단의 숙소로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물결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인사들

강연을 요청하는 수많은 대학생들...

그뿐이라
미국과 일본, 캐나다...
위도를 지나 경도를 넘어
지구의 곳곳에서 끊임없이 날아오는
전화와 축하전보 감동의 편지들

그 누구의 말을 들어보아도 좋아라
그 어느 전보의 구절을 보아도 좋아라
모두가 한목소리로 한결같이 말하거니
위대한 수령님은
이 세상에 오직 한분 위인중의 위인!

용암처럼 온 남녘에 끓어번지는
이 환희와 감격의 분출을 보며
수많은 파장들을 누르고
온 세계에서 울려퍼지는 이 찬탄의 목소리
들으며
연심이의 가슴속에 깊어지는 생각이여

(이 세상 오직 한분의 사랑
시공간의 한계를 모르고
세월의 한끝까지 빛발치는 뜨거운 인간애
그것을 당신들은 다 모르리라

누구나 한번 안기면
영생의 자양분을 부어주는 이 사랑의 세계
무궁한 세월도 바로 그 품에 있거늘
이 크나큰 품에 영원히 기약된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는
얼마나 창창한것인가)

연심의 뜨거운 눈빛이 가닿는 푸른 하늘가
저 붉은 태양은
은혜로운 해빛으로
온 누리를 포근히 감싸안으며
따사로이 비쳐들고있어라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싸워온 우리 인민의 혁명 투쟁력사를 형상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문학은 조국통일위업을 중요한 주제적과제로 내세워야 한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오늘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

《작가들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한다.》

《백두보살》

현호철

한때 박천의 봉린산중턱에 있는 심원사에 《백두보살》이라는 생불이 강림하였다는 소문이 그 지방에서 돌았었다.

그때로 말하면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이제 한두 해안으로 나라를 찾아주신대.》, 《백두산 어느 굴 속에는 대장수님의 부하들이 도를 닦고있는데 3천가지 도술을 부린다더라.》 하는 가지가지의 백두산전설이 파다하게 퍼져갈 때인 왜정 말기였다.

인민들은 희망과 심심을 안고 살아가는 속에 심원사의 중들은 근심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었다.

왜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마을의 청장년들과 처녀들을 전쟁터로 끌어가다못해 나중엔 밥바리와 숟가락, 저가락까지 빼앗아가는판이니 절간이라고 스쳐지날리 만무한것이기때문이다.

망조를 느낀 중들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더 빼앗아가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원래 박천지방에는 심원사를 본사로 하며 상추리의 약사, 덕삼리의 평천사, 청룡리의 청룡사 등 말사들이 열개도 넘어있었다.

그러던것이 왜놈들의 강탈에 다 폐허로 되어 이제는 심원사 하나 남았다.

심원사라 하면 관서지방에 맨처음 세워져 창시년대라든가 웅장화려함에 있어서 비길데 없다 하여 《관서초찰》, 《서도갑찰》로 뽐내여오는 절간이다.

웅진전, 극락전, 청풍루, 서공암, 향로각 등 여러 위성암자들을 거느린 심원사는 법당인 보광전만 하여도 런꽃무늬바탕에 청룡과 황룡의 싸움을 목각한 출입문부터가 《런화문은 조선 고대 4대미술의 하나》 라고 옛책에 기록되었을만큼 화려하기 그지없고 다른 절간들과는 특이하게 소란반자에 엽자금(순도높은 금으로 만든 꽃잎문양의 얇은 판대기)을 붙이고 금단청을 한 천정은 눈이 부시여 혼뿌리가 쑥 달아날 정도로 아름답다.

건물의 금새만 대단한것이 아니다.

그안에 있는 향로, 초대, 종, 운판, 바리, 접시 등 기물들도 금불이, 은불이로서 값으로 따지면 매우 비싼것들이다.

그러나 그때문만이 아니라 모든것이 우리 민족이 천여년전에 창조한 문화유산이라는것으로 하여 더더욱 귀중한것이다.

아무리 속세를 떠나 법가에 사는 몸이라 할지라도 조선땅에서 태어나 조선의 절간에 깃들인

중들이니 민족의 뛰어난 슬기와 재능이 배여있는 유물을 두고 근심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날로 흥흥해지는 세월속에 중들은 철을 보존할 방책을 모색하였다.

중기는 무슨 철이든 하여 번쩍거리는 금빛들을 감추어버리는것인데 그렇다고 회철이나 먹철을 타면 유물들에 손상을 줄수 있어 그렇게는 할수 없었다.

하여 이 절에는 특이한 령험을 가진 미륵보살이 지키고있어 누구든 흥심을 품고 들어서기만 하면 가차없이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무서운 고통의 벌을 받게 된다는 소문을 퍼뜨리는데로 나갔다.

여기엔 왜놈들이 미신을 많이 믿는 족속들이니라 녀으로 중들을 제어해보려는 타산이 깔려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이른아침 순사 두놈이 동창천기슭을 따라 올라와 심원사마당에 들어섰다.

멀망을 앞두고 값나갈만 한 물건이라면 가림없이 빼앗으며 약탈에 혈안이 되어 돌아치던 읍거리의 주재소순사들인 구로다와 스즈끼였다.

중들은 조선의 력사유물들을 모조리 빼앗아 일본으로 보낼데 대한 상급의 지지도 지시려니와 제 주머니를 채워볼 심산으로 미륵보살의 흥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달려든것이었다.

《에또- 여기선 어째서 아직까지 전쟁기부금을 한푼도 안 내고있는가. 공산유격대와의 싸움에서 우리 대일본제국이 질것을 기도하는것이냐 아닌가. 양!》

불쑥 나타나 다짜고짜 호통치는 구로다앞에 주지가 마주서 대꾸했다.

《예, 절은 시주를 받는 곳이지 주는 곳이 아니올시다. 나무아미타불.》

《빠가. 지금같은 비상시국때에 부처를 공양할것이 아니라 마땅히 제국의 용사들에게 공양해야한다.》

구로다는 청풍루 들보에 매달려있는 커다란 구리종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런거나 다 바쳐야 한다. 저건 구리이고 구린 전쟁에 대단히 필요한것이다.》

《절의 기물에 손대면 천벌을 받소이다. 미륵보살 나무아미타불.》

《벌을 주는가, 받는가 하는 판결은 우리가 하는것이다.》

중들은 황황히 막아서는 중들을 밀치며 보광전

으로 향했다.

제단을 돌아올라 문을 외락 열어제끼던 두놈은 흠칠 놀랐다.

홍심을 먹고 들어서는자들은 가차없이 일도량 단하여 버릴것이라는듯 주먹만 한 두눈을 무섭게 부릅뜬 두상의 수문장이 큰칼을 치켜들고 서있는 것이다.

비록 나무로 만들어 세운 목각상이라 할지라도 그 생동한 위엄과 기세에는 소름이 돋을만 하였나.

순간일망정 비겁성을 보여준것이 멋적었던지 구로다는 《에헴!》하고 허세를 부리며 들어섰다. 깨끗한 마루에 강도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히기 시작했다.

이것저것 주머니에 마구 쑤셔넣는 구로다의 발자국이 꺼리낌없이 찍히는데 비하여 스즈끼의 발자국은 조심스레 찍혔다.

구로다는 얼마간 불안해하는 스즈끼에게 부처의 귀도 당겨보고 코도 비틀어보이면서 《보라, 제국의 순사앞에서는 부처도 아프다는 소리들 못하지 않는가. 여기에 생불이 있다는 소문은 거짓이니 떨지 말라.》하고 제법 용기까지 북돋아주는 것이었다.

스즈끼는 여전히 불안한듯 《그래도 이런대선 귀신이 나온다던데 …》하고 중얼거리면서도 시주탁우에 놓인 은가락지 한쌍을 슬쩍 주머니에 넣는것을 잊지 않았다.

구로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히야! 이렇게 희한한 천정도 있었소까.》

스즈끼도 목을 젓하였다.

해빛을 받은 금단청과 엽자금은 운명이 경각에 이르렀음을 모르는지라 태평스레 빛을 내는 것이나.

이런 때 먹장구름이라도 콕 끼여 그 빛을 좀 덜어주었으면 좋으련만 아침해는 점점 더 밝게 솟구치고있었다.

《스즈끼상, 우리 노다지나 만났다. 이젠 다 금이다. 금!》

《아, 금!》

구로다의 탄성에 스즈끼의 두려움도 형제의 흥분으로 바뀌었다.

무자비한 강탈을 예감한 중들은 놈들을 외락에워쌌다.

그러나 장삼이 여러폭이여도 칼 하나를 못이겼다.

구로다는 걸음걸음 막아서는 중들이 시끄럽다며 칼을 휘둘러 그들을 보광전 한쪽구석에 몰아세웠다. 그리고는 스즈끼를 시켜 천정의 엽자금을 떼어내게 하였다.

중들은 칼앞에 제압된 상태에서도 차츰 번져가는 강탈의 불을 어떻게 하나 꺼보려고 부서져라

목탁을 두드리며 넘불했다.

불교에서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위협할 때 쓰이던 각이한 교리들과 지혜가 우주를 꿰뚫고 재주는 천하에 닿아 죄를 무섭게 닥달한다는 별의별 보살들의 이름이 쏟아져나왔다.

보광전을 울리는 목탁소리와 넘불에는 진짜로 자기들의 운명을 지켜줄수 없는 석가모니를 우상으로 애써 숭배해온데 대한 허무감이 짙었다.

한편 이제라도 넘불의 효험이 있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애라는 녀원도 배어있었다.

바로 이때였다.

천정에 올라갔던 스즈끼가 쿵- 소리와 함께 마루에 떨어지는것과 동시에 방금까지 서슬푸른 칼을 휘두르던 구로다는 눈을 까뒤집으며 뒤로 벌렁 나가넘어지는 것이었다.

죽었는지 까무러쳤는지 너무러진 놈들은 입가로 거품을 와그그 내뿜는다.

창졸간의 일인지라 중들도 와돌짝 놀랐다.

허둥이는 눈길을 모으며 준수하게 생긴 젊은이가 나섰다.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조금만 빨리 왔으면 사달을 미리 막았을터인데.》

그리고는 문턱에 걸터앉아 신발끈을 고쳐매기 시작했다.

어디서 이 일을 띄여보고 미처 신들메를 조일새도없이 뛰어왔음이 험등히 알린다.

《저 … 어디서 오신분이신지…》

주지가 떨리는 가슴을 가파스로 누르며 물었다.

《예, 저는 백두산에서 온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입니다.》

아마 세기를 두고 내려오며 내쳐 앉아있는 부처가 벌떡 일어섰다는 소리를 들었다 해도 이처럼 놀랄수는 없으리라.

백두산젊은이의 소개를 받는 순간 주지와 중들은 갑자기 눈알이 굳어지면서 숨이 막히는듯한 감을 느꼈던 것이다.

온 민족이 하늘님으로 경모하며 숭앙하는 백두산대장수님의 그 선성에 놀랐고 몇천리길도 한달음에 다니는 대장수님부하의 재주에 놀랐고 놈들이 제풀에 뻗게 한 그 위력에 놀랐다.

경탄과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는 중들에게 젊은이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기- 백두산마루에 높이 오르시여 온 누리를 굽어보고계시는 대장수님께서는 여기 십원사에 지금 검은 마수가 뻗치고있으니 빨리 손을 써야겠다고 하시였습니다.》

대장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에 손을 대는 놈들을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며 저를 보내시였습니다.》

《아, 웬일인지 근간에 봉린산에 올라가보면 장

수벌이 대낮에도 유난한게 벌나다 했더니,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우릴 굶어보고계시는줄 미처 몰랐소이다.

지금 일을 당하고본즉 부처나 보살이 신령스럽다지만 그건 빈말뿐이요. 실지로 신령스러운 존재는 백두산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지는 경건한 마음으로 백두산쪽을 향해 정중히 절을 한 다음 젊은이에게로 돌아섰다.

《그런즉 젊은분은 대장수님께서 우리 절에 내려보내주신 <백두보살>님이시구려.》

한생 무슨 부처요, 무슨 보살이요 하는 말만 입에 붙여온 주지인지라 《백두보살》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으나 중들은 진짜생불을 대하기라도 한듯 《백두보살 나무아미타불》하고 합창했다.

《<백두보살>이요?! 하하.》 보광전이 드롱드롱 울리도록 웃는 젊은이의 웃음소리마저도 신비로웠다.

이어 젊은이는 품에서 종이 두장을 꺼내 연필로 몇글자 써서 놈들의 상통우에 홀 던져버리고 보광전안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중들은 또 어떤 조화를 보여주려나 하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특별한 행동은 없는데 이상한것은 한바퀴만 돌아봐도 될것을 세바퀴씩이나 돌아본것이며 나라날 때처럼 문득 없어진것이다.

그때로부터 중들은 자기네 절간에 백두산에서 내려보낸 생불이 배회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렇게 믿을수 있는 근거를 말하자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백두보살》이 현신하여 놈들을 제품에 나동그라지도록 한 다음 보광전안을 세바퀴씩이나 돌고돈것이다.

더우기 확실한 근거는 《백두보살》이 사라진 후에 벌어진 일이다.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놈들은 상판우의 종이장을 펼쳐보고 와들와들 떨며 한시바삐 달아빠려하였다.

그런데 놈들은 무슨 마술에라도 걸린것처럼 발을 땅에서 떼지 못하고 애원의 눈길로 중들만 바라보는것이였다.

의아하게 생각한 주지는 그놈들이 들고있는 종이장을 빼앗아보았다.

종이장에는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할것. 백두산》이라는 글이 또박또박 씌여져있었다.

아하 이게 뭐냐, 그런즉 놈들의 죄과를 똑똑히 청산받고 쫓아보내도록 《백두보살》이 술법을 쓴 계로구나. 백두산의 덕분에 나도 큰소리를 쳐보는가보다.

주지는 비로소 깨도가 되어 죽장을 구르며 흐렘했다.

《사죄하고 보상해야 살길이 열릴지어다. <백두

보살> 나무아미타불.》

말뜻을 알아차린 놈들은 연송 머리를 조아리며 주머니에 쓸어넣었던 기물들을 몽땅 꺼내놓았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지어다. <백두보살> 나무아미타불.》

주지가 죽장으로 땅을 탕 구르자 그제서야 놈들의 발이 떨어져 걸음아 날 살려라 내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스즈끼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다.

구로다는 넘어진 동료는 상관없이 저만 살고볼 판이라는듯 어느새 꿈무늬를 뺀데 넘어진 스즈끼는 일어설념을 못하고 끄끙 갑자기만 한다.

주지는 이 또한 무슨 영문인고 하여 다가가보았다.

어디 다친데는 없는듯 하나 스즈끼는 두손을 짹짹 빌며 살려달라 애원한다.

이것도 《백두보살》의 령형때문이 아닐가.

《사죄와 보상을 깨끗이 할지어다.》

스즈끼는 좀전에 다 했는데 무엇을 또 하라는 식으로 이쪽저쪽 주머니를 다 뒤집어보였다.

감춘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이때 옷옷의 속주머니를 까보던 스즈끼가 《하, 이것때문에...》 하며 오이씨만 한 엽자금쪼박지를 꺼내여 바쳤다.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주지의 눈에서는 다시한번 불이 일었다.

그 금은 보광전의 천정을 장식하고있던것이다.

도로 빼앗아낸 기물들은 본래의 제자리에 놓으면 되지만 흡집을 낸 천정은 원상대로 보수할수 없는 안타까움이 분노를 더욱 치솟게 했다.

《이노음- 썩 사라지거라!》

주지의 노성은 봉린산을 흔들었다.

스즈끼는 몸이 풀렸는지 벌떡 일어나 뺑소니쳤다.

이런 일과 함께 확실한 근거의 또 하나는 절간 건물과 기물들이 안개의 장막에라도 싸인것처럼 빛이 흐릿해진것이다.

건물생심이라 화려하고 번쩍이는 빛을 보면 불 본 부나비때 날아들듯 또 어떤 강도들이 달려들지 몰라 무슨 칠이라도 해야겠다던 중들의 생각이 저절로 실현된 셈이였다.

또 하나의 근거는 그날로부터 며칠후 유격대와 싸운다며 압록강을 향해 달리던 왜놈의 군수렬차 40여량이 심원사와 시오리 접한 맹종리역에서 하늘로 달아올랐다가 조각조각 땅에 떨어지는 시원하고 통쾌한 일이 벌어진것과 구로다와 스즈끼가 미쳐죽은것이다.

보광전 천정을 망가뜨려놓놓고 수리하지 않았으니 보상이 철저히 못하여 《백두보살》이 벌을 내렸음이 분명했다.

여러 근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근거는 가장 포악한 왜놈강도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며 해방의 려명을 안아오는 그 크낙한 힘과 위력은 오로지 백두산박엔 떨칠수 없다는것이다.

하여 주지와 중들은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수하의 부하인 《생불》을 보내주시여 절간을 지켜주도록 하여주신 고마움에 날마다 감사드리면서 《백두보살》이야기를 널리 퍼쳐갔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나날속에서도 심원사를 찾아주시는것은 주체92(2003)년 2월 10일 석양도 스러져가고 어스름이 깃들 때인 저녁무렵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청풍루와 보광전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심원사의 유적유물들이 오

늘까지 원상그대로 훌륭하게 보존된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 하시었다.

전설적영웅을 모시여선가 심원사에 신비한 현상이 펼쳐졌다.

저녁어스름은 점점 더 짙어가는 속에 심원사의 유물들은 해빛을 마주한것처럼 더욱 번쩍번쩍 빛을 뿌리는것이다.

그 빛은 생명이라도 가진듯 장군님의 옷자락에 막 날아내려와 호들호들 떨어졌다.

위대한 태양을 모셨으니 빛도 생명을 가지게 된것이다.

그런즉 《백두보살》이야기속에는 심원사가 민족의 국보로 빛날수 있는것이 전설적영웅 백두산 장군들의 세기를 넘어 이어지는 따뜻한 보살피심의 결과라는 우리 인민의 흠모와 칭송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수령님 그 품에서 나도 자랐다

리진협

고마운 삶의 품이
패허우에서 락원을 안아오던 60년대
그때에 태어난 나는 행운아
수령님 그 품에서 첫삶을 받아안았다

누가 아버지를 물으면
통통한 두손을 높이 뻗쳐
수령님의 초상화를 가리켰어라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때없이 입에 올리던 아버지란 부름도
나에겐 다름아닌 이 노래 아니더냐

일제놈도 이기고
미제놈도 다 이긴 우리 아버지
누구든 그 품을 독차지하고싶어
자기에게만 아버지 되신다고
빠기며 내들던 엄지손가락
우리는 첫걸음마도 그렇게
수령님품을 향해 떼였다

복받은 내 삶의 걸음마여
어려웠던 나라의 혼전으로
손에손에 쥐여준 그 연필
공장과 마을 먼저
학교와 소년궁전부터 세워준 은혜로운 손길이어

불밝은 창가에만 세워주었던가
수학공식만을 외워서는 이 행복을 지킬수 없기에
배낭메워 세워준 군사야영길
불의와는 결판내고야마는 혁명가

백두산을 닮은 후손들로
대바르고 참되게 키워준 그 손길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바람 불 때도 헛눈을 팔지 않고
아이때 첫걸음마 그대로
스스럼없이 달려가 안기던 그 품

날이 갈수록 가슴쳐오는 이 행운
세월이 갈수록 새로와지는 고마움이여
머슴군 떠돌이인생이
투사로 영웅으로 자라난 품이여
목숨보다 값높은 삶을 안겨준
고마워라
아버이수령님 품이여

피바다 불바다속에서
자기의 존엄을 찾았고
패허우에서도 일어설줄 아는 인민
고난속에서도 락원의 길을 걸어갈줄 아는
김일성민족이 자란 품
영원토록 손잡아 이끌어주는
후손만대가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품이여

그 품이다!
투사로 영웅으로 사는 인민이
수령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그 행운
삶으로 이어지고 세월로 계속되는
아 그품
그 품에서 내가 컸다
그 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

그리움의 날과 날

김력룡

새로운 콩재배방법에 대한 농장협의회를 마치고 나오는 나의 마음속에 불쑥 조카딸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용모로 보나 품성으로 보나 누구에게도 짝지지 않는 끝끝한 조카딸을 둔 삼촌인 까닭도 아니다.

콩의 원산지인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주요곡물의 하나로 여기며 우리 조상들은 콩으로 매우 훌륭한 갖가지 식료품들을 만들어 리용했으며 산골, 벌방 그 어디 가나 널리 재배해왔다.

우리 농장에서도 콩을 많이 심어왔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종자와 그에 따르는 새로운 재배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따라세우면서 그 수확량에서도 손꼽히는 농장으로 되고있다. 나에게 《콩기사장》이라는 별호까지 붙었으니 그것은 농장의 모든 주요작물들과 함께 콩농사에 힘을 넣은 응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창 콩씨뿌리기가 막두했던 몇해전 어느날이었다. 내앞에 평장자리가 또렷하고 손이 닿으면 베질듯이 주름발을 곧추 세운 군복차림의 한 처녀가 불쑥 나타났다. 미출한 몸매에 서글서글한 눈, 살짝 군턱이 오른 보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드는 그 처녀는 다짜고짜 나의 손목을 덥석 잡는 것이었다.

《삼촌!-》

《아니?!... 이게 누구냐, 영?! 우리 금옥이 아니냐?》

청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나간 우리 일가의 귀염둥이였던 조카가 이렇게 불쑥 날아들 줄은 상상도 못했던 나였다.

《머칠전에 제대되었어요...》

《그래, 배치는 받았냐?》

《호호호... 급한 성미는 여전하시군요. 청진기 초식품공장에 배치받았어요.》

학교때부터 공부 잘하고 무슨 악기든 막히는 것이 없어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떠받들리다가 희망대로 군복을 입었던 조카였다.

군대에서 사관장직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부업지에 콩을 많이 심어 중대병사들의 식탁을 늘 푸짐하게 마련해주곤 하던 그는 제대되자 주저없이 사람들의 식생활을 직접 책임진 공장원으로 보내달라고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둘러 찾아온 리유가 우선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인사도 할겸 공장원로기지에 심을 파악있는 콩종자문제를 토론하자고 왔더니 실로 기록하기 이룰데 없었다. 나는 그곳 지대에 맞는 콩종자의 특성과 과학기술적재배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곳 토양에 맞는 종자전본까지 보장해주었다. 하기도 도시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기초식품들을 질 좋게 뽑는데서 한몫 해보라고 몇번이고 당부했다. 그다음 몇번 콩재배문제와 관련한 기술적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던 그가 웬일인지 해가 바뀌도록 종무소식이였다. 이악을 부리며 이 삼촌을 들볶아대던 조카가 얼씬하지 않자 나는 은근히 의문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일에 묻히고 분망한 나날속에 어느새 잊고말았다. 하기가 그동안에 한개 작업반을 맡아보는 초급일군이 되었다니 그 애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문제인들 한두가지일가. 이런 심중의 말을 식구들한테 몇마디 내비쳤는데 그게 즉시 그 애한테로 날아갔다.

《삼촌!》하고 어느날에는 불시로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찾아 안 가는게 이상하시지요? 호호 섭섭하시다구요? 난 그저 우리 삼촌이 제일이야. 하지만 삼촌, 이제 우리들 녀려를 마세요. 우리 공장에서도 콩이 짹짹 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공장원료문제를 풀기 위해 애쓴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서는 얼마나 흐뭇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방아간둘레에서 소란을 피우던 참새때도 영사라져버리면 서운하다고 조카의 발길이 뜸해지니 어지간히 마음이 허전했었다. 바로 그 빈자리를 메꾸느라 은근히 잡도리를 끌라한게 신랑감을 물색하는 일이었다. 마침 우리 관리위원회 계획부원의 사돈되는 청년이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도농촌경리위원회에 배치받았는데 착실한 총각이라는 소리를 듣고 말을 걸어본즉 반응이 좋았다. 제때답 금옥이 빨리 오라는 전보를 날렸다.

전화보다는 전보글이 더 강한 자극이 되리라고 타산해서였다. 본시 결바른 애인지라 무슨 큰일이 생긴줄 알고 지체없이 달려왔다.

나는 그 애한테 예두를것도 없이 직방 들이댔다.

금옥의 입에서는 어떤 대답이 튕겨나왔는가.

《삼촌, 고마와요 그렇지만 난 아직은... 부디 리해해주세요. 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공장에 꼭 모실 그 한마음뿐이에요.》

《위대한 장군님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누구나 이 한결같은 심정을 안고 지금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어요.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어서 설비며 작업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원로기지도 몇배로 늘구었어요. 생산문화는 더 말할것도 없구요. 그런데 제대군인인 제가

어떻게...》

《!...》

조카의 성미를 잘 아는 나로서는 다른 말을 꺼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심증이 착잡해졌다.

(용타. 금옥아, 그러나 규모가 크고 프르르하게 소문난 공장들도 많은데 자그마한 너의 공장이 어떻게...)

조카의 결심에 감동하면서도 그런 영광을 감히 바란다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어쩐지 나의 가슴도 울렁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하루밤 목어가라는 우리 집 식구들의 살뜰한 요구도 종시 마다하고 급급히 되돌아간지 한주일도 채 못되어서였다. 우리 관리일군들은 작년보다 높이 세운 여러가지 영농공정들을 놓고 저녁부터 진지한 방법론을 토의하다 늦게야 회의를 끝마치었다.

별안간 내 책상의 전화종소리가 다급히 울렸다.

《아이참! 마침 삼촌이 계시는군요. 삼촌이 퇴근했으면 어찌나 막 조마조마했는데... 삼촌...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셨답니다...》

《아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희네 공장을!》

꿈같은 소식에 심장이 뛴뛰었다.

《삼촌, 글썄... 글썄 어버이장군님께서 함경북도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길에 우리 공장을 찾으시고 우리 작업반에도 들리셨어요. 삼촌, 내 말을 들으시지요?...》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올해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식생활문제를 높이는데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생산장성의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어요.》

그 순간의 감격을 자세히 전하던 금옥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다.

《금옥아, 장해. 장하구나. 정말...》

나도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삼촌, 나... 나 앞으로 더 일 잘해서...》

《그래그래, 용하다. 용해!》

나도 그렇고 관리일군들모두가 감격에 젖어있었다.

《축하합니다. 청진조카가 그런 영광을...》

조카딸로 하여 감동어린 축하까지 받게 되자 나의 가슴속에서는 벅찬 기쁨이 더욱더 츤렁츤렁 차올랐다. 나는 서둘러 텔레비존스위치를 넣었다.

매마침 화면에서는 청진기초식품공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이 우뚝하게 어려왔다.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기초식품들을 차례차례 보아주시며 질이 높은데 대해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앞으로 더 좋은 기초식품들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콤퓨터조종실에 들리시여서는 주요공정들이 다 현대화된것을 기쁨속에 돌아보시고 원료보관과 관리리용에서 나서는 문제까지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는 어버이장군님! 북방의 이름없던 공장도 몸소 찾으시여 자그마한 성과에 대해서도 그토록 대견해하시고 우리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는 장군님을 뵈으며 감격의 눈물을 건잡을수 없었다. 텔레비존화면을 보면서 나는 어버이장군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불타는 맹세를 가슴마다에 품고 그이와 헤어지기 아쉬워하면서 경건히 위대한 장군님을 바래드리는 환희로 목메인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 바로 우리 집안의 사랑스러운 금옥이가 섞여있다는 긍지감에 가슴뿌듯함을 금할수 없었다.

조카를 통해 보고들은 그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기풍과 정신에서 나의 심장에 안게 되는 여운은 실로 고귀한것이였다.

감격과 흥분속에 내 가슴속에는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꿈을 간직하고 가장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사는 날과 달은 그 꿈, 그 그리움이 위훈의 날과 달로 이어지고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는 행복과 영광의 날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뜨거운 속삭임이 울리고있었다.

가사

청년절 이밤은 좋아

리창혁

별빛도 달빛도 밝은 청년절 이밤
청춘의 자랑넘친 우리 무도장
청년절 우리 명절 이밤은 좋아
너와 나 춤추며 노래부르네
아 청년절 이밤은 좋아

선군시대 빛내가는 우리는 청춘
위훈속에 자랑속에 우리 모였네
조국을 빛내일 불타는 열정

너와 나 춤추며 노래부르네
아 청년절 이밤은 좋아

장군님품속에서 자라난 청춘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빛내이리라
영원히 장군님을 받들어갈 맘
너와 나 춤추며 노래부르네
아 청년절 이밤은 좋아

장군님과 영예군인

박두전

나는
이 나라의 평범한 영예군인
두다리를 잃고도
두다리를 뿡뿡 구르며 달리듯
어디 가나 궁지에 넘쳐사는 시인

복받은 오늘을 생각할 때면
이 가슴에 먼저 떠오르는 자애로운 모습
장군님의 그 영상이 짝 차오르거니
그 품속에서 나는
두번 다시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간호자 없이는 움직일수 없는 이 몸
오늘은 장군님 보내주신 발동차를 타고
네거리를 누비며 달린다
나는 지금
사랑으로 뜨거운 대지를 힘차게 활보한다

1

우리 집 벽에는
가보되어 정히 걸려있는
한장의 사진이 있어라
그것은 나의 두번째 삶이 움튼 그날
우리 장군님 사진사를 보내시여
찍어 손수 보아주신
영예군인 결혼식사진

안해와 함께
축복받은 사진을 들여다볼 때면
잊지 못할 그날이
따스한 봄날처럼
우리 두 심장을 감싸안나니

그러면 들려오는 문두드리는 소리
반가운 사람들이 찾는 소리
행복을 안고 찾아오는 소리
어머니는 성급히 달려가
복을 마중하듯 문을 여는데

어이된 일인가
당중앙위원회 일군
우리 집에 찾아올줄
너무도 뜻밖이어서

어머니는 어쩔줄 몰라
두손만 마주잡고 망설이길 그 몇번...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시여 왔다고
책임일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의 방으로 들어섰다
온 방안은 출렁이는 물결처럼
기쁨에 설레었다

꿈같은 현실앞에서
모두들 눈굽을 적시는데
책임일군은
우리 집에 찾아오게 된 사연
뜨거움에 젖어 이야기하여라

현지도도를 마치고
방금 도착하신 우리 장군님
겹쌀인 피로도 뒤로 미루시고
수북이 쌓여있는 문건들을 보아주시었다
그러시다가 한 영예군인청년에게
처녀가 찾아왔다는 사연 알게 되시었다

기특한 처녀의 마음 헤아리시듯
문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장군님
머느리를 맞는 아버지의 기쁨인듯
그리도 만족해하시며
참 좋은 동무라고
백두의 사랑넉친
활달한 필체를 남기시여라

그러시고는 부어주신 사랑이 모자라신듯
책임일군을 부르시였어라
수령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빨리 수령님께 보고드리자고
바빠 집무실을 나서시었다

집무실을 나서시여 걸으시던 장군님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책임일군을 부르시었다
그러시고는
부락을 하시듯 또다시 당부하셨어라

《그 동무가 지방에서 올라왔겠는데
내 대신 평양견학을 시켜주시오
새로 건설한 광복거리도 보여주고

아 장군님의 하해같은 사랑이여
친부모도 줄수 없는 그 사랑
고마움에
끝끝내 오열을 터치는 온 집안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우리모두 절을 드리었어라

장군님 보내주신 승용차를 타고
장군님 보내주신 책임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평양전학의 길에 올랐다
어서 오라 두팔 벌려 맞아주는 광복거리여
합선의 갑판우에 오른듯
대동강우에 떠이고선 옥류관의 야외식탁이여

아, 9월이여 사랑의 날이여
너는 나에게 해빛을 주었다
푸르청청한 저 하늘에
눈부신 해살을 뿌려주신 장군님
그 사랑의 지붕아래서
복받은 씨앗이 움터났거니

행복의 9월 축복의 9월속에
또다시 반아안은 크나큰 영광
평양에서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금방 치른 뒤라
그처럼 바쁘신 우리 장군님
우리들의 결혼식을 잊지 않으시고
첫날웃과 결혼식상을 내려보내주실줄이야...

내 무슨 말로 노래할수 있으랴
무슨 말로 고마움을 다 전하랴
그이는 정녕
나에게 두번 다시 생명을 주신
내 삶의 은인
내 삶의 전부

장군님은 진정 우리 아버지
온 나라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의 지붕을 펼쳐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받은 행운아들인가

위대한 아버지가 펼쳐준
9월의 지붕아래서
나는
복받은 삶의 고고성을 터치였다
진정한 내 삶의
새싹이 움터났어라

그날은
민족의 아버이를 잃은지
두달이 가까이 오는 날이었다
온 나라가 비분에 잠겨있던 때
우리 대학 강당에서는
성대한 졸업식이 있었다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대학의 교수, 박사들이 참가한 졸업식
촬영가들이 렌즈의 초점을 맞추며
분주히 오고가는
마치 큰 대회장을 방불케 하듯이
사람들이여 아는가
그 졸업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평범한 영예군인의 희망을 꽃피우기 위해
쏟아부으신 장군님의 그 사랑
바다의 넓이로 켈수 있으랴
하늘의 높이에 비길수 있으랴

내 추억의 갈피를 번지노라
그러면
사랑의 지붕을 펼쳐주시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이끌어주신 장군님
줄기따라 흘러드는 영양소인듯
뜨거움에 젖어드는 9월이여
고마움에 목메이는 9월이여

그날도 나는
창너머 걸어가는
활기에 넘치는 대학생들의 모습
부러움에 바라보고있었다
그런데 조용히 문두드리는 소리
때없이 찾아오는 행복이 두드리는 소리
안해는 달려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결혼식때 왔던 낮익은 당중앙위원회 일군
또다시 우리 집을 찾아온것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섰는데
나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여라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영예군인동무가 대학공부를 소망했다는데
김형직사범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너무도 뜻밖에 차려진 행복이어서
하연없이 쏟아져내리는 뜨거운 눈물이여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장군님의 사랑이여

배움에 대한 열망
내 얼마나 컸던가
초소로 떠나면서도 어머니에게
귀한 보물처럼
교과서와 배운 학습장을 잘 건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군복을 입지 않았던가

조국의 바다를 지키던 나날
뜻밖에 적들과의 조우전에서
걸을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다시는 할수 없는 대학공부로 하여
내 얼마나
안타까움에 가슴벽을 쳤던가

하지만 태양의 빛발은
내 마음속 그늘에도 비쳐들었거니
비록 걸을수 없는 몸이여도
대학의 교정에 세워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아 세상에 나처럼 복받은 사람
또 어디 있으랴

장군님사랑속에
대학입학통지서를 받아안았건만
남몰래 걱정은 것들여
대학의 그 높은 층계를 어떻게 오르며
휴식의 그 짧은 순간에
나의 시중은 또 누가 들어주랴

허나 그것은
아니할 생각이었구나
아침출근때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니
그들은 다름아닌 우리 학급 동무들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대학으로 함께 가자며
이 몸을 안아
삼륜차에도 앉혀주며
대학으로 대학으로
나를 떠밀어주던 그 손길

나의 대학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노라
나 하나를 위해 대학이 세워진듯
교실에는 폭신한 의자와 키낮은 책상
강의의 그 바쁜 시간에도
나를 위해
설명도 자주 해주시던 선생님들

이런 사랑에 떠받들려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장군님 사랑어린 졸업증 받아안을 때
이 가슴에 차넘치는 걱정의 파도
아 그이는 진정 나를 손잡아 키워준
위대한 아버지이시였다
위대한 스승이시였다

그 품에 안겼기에
평생 침상에 누워있어야 할 이 몸이
누구나 쉽게 오를수 없는
대학의 그 높은 층계를 오르며
9월의 하늘가에 비쳐드는 해살을 안고
나는 이렇게 복받은 첫걸음마를 떼었다

3

장군님사랑속에
혁명의 붓대를 억세게 틀어쥔
나는 시인이 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군님따라 선군혁명 천만리길을
노래를 안고 변함없이 이어가기 위해
나는 시인이 되었다

나라를 위해 큰공을 세우지도 못한 내가
사람들의 부족속에 살아야 할 이 몸이
어떻게 노래짓는 시인이 되었는지
사연많은 이야기중에서
그 한토막을 내 펼치노라

순간의 휴식마저 다 잊으시고
수령님 물려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울
위대한 구상을 펼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장군님
영예군인 나의 생활을 또다시 료해하시였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작가동맹에서 생활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우리 장군님

아버이의 다심한 심정으로 말씀하셨어라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동무인데
우리가 잘 도와주자고

그때부터
나의 시는 날개가 돋힌듯
창공높이 나래를 쳤고
장군님의 거들되는 사랑속에
멸적의 총창이 번쩍이듯

나의 시는 빛을 뿌리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는

성장의 발자국을 찍어갔다
눈보라 사납게 울부짖던 겨울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찾아가던 나날
나는 장군님사랑의 그 깊이를
걸음걸음 폐부로 체험했나니

성한 몸도 아닌 내가
즐거운 휴양길도 아닌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었고
사변이었다

온갖 시련을 다 이겨내며
안해의 등에 업혀
끝끝내 백두산에 올랐을 때
백두산은 나에게
더없이 큰 재부로 안겨왔나니

련련히 뻗어간 산발들을 굽어보며
백두의 절정에 오르니
삼천리가 한눈에 안겨오는듯
눈앞에 펼쳐지는 눈보라는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장군님 추켜드신 한쪽의 붉은기인듯

여기서는 정신도 육체도
모두 장군님을 닮노라
여기에 오르니 나도 마치
항일빨찌산의 한 성원이 된듯
싱스런 그 대오에
나도 한자리 차지하고 선듯

그때 나는 생각했노라
우리 장군님께서
왜 나를 백두산으로 보내셨는지
웅심깊은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나의 육체는 시련앞에서 굽어들지 않았다
나의 붓대는 고난속에서 더 역세게 버리어졌다

그때부터
나의 시는
장군님의 전선시찰의 길을 따라
이어지고 이어졌거니

장장으로, 성강으로
구성으로, 락원으로...

취재에 취재를 거듭하고
평양길에 올라 집에 들어서니
또다시 나를 기다리는 소식
감격의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장군님의 어버이사랑이여

불편한 몸으로
취재길에 오른 나의 수고 헤아리시여
우리 장군님
일군들에게 절절히 말씀하셨다누나
영예군인동무가
불편한 몸으로 취재하느라 수고가 많겠다고
그에게 발동기가 달린
삼륜차를 보내주자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전설같은 발동기차가 태어났다
이 손에 총대와 같이 소중한
붓대를 쥐여주시고
오늘은 그 어디나 쉬임없이 달리라고
나의 몸에 무쇠다리를 달아주시었거니

이 무쇠다리는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장군님 심어주신 백두의 혁명정신이며
최고사령관동지를 웅위하는
결사의 정신이여라

그렇다 나는
붓대로 장군님을 웅위하는
최고사령부의 시인이며 나팔수
조국의 항로우에
위훈을 새겨가던
영원한 장군님의 해병

나는 오늘도 취재길에 오른다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 새겨져있는
전선길을 따라
사회주의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나의 무쇠다리는
쉬임없이 걷고 또 걸으리라

(유고작)

로병시인과 전쟁체험의 서사시적반영

-서사시 《땅크병이야기》를 놓고-

리수립

이 땅에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있는지도 어느덧 50여년의 세월이 흘러 그날의 승리자-전쟁로병들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렸다.

하나 우리의 로병시인들은 선군의 보람찬 시대를 만나 《로당익장》하며 열정적으로 심장의 노래를 부르고있다.

전쟁의 포화속을 달리던 지난날의 땅크소대장 한찬보도 그중 한사람이다.

노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풍년새가 날아든다》의 작사자로 널리 알려진 그는 지난해에 시초 《포화속의 노래》와 함께 서사시《땅크병이야기》를 창작출판하여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70대도 중반기를 넘어 80고개를 내다보는 고령의 영예군인시인이 한해에 서정시들의 묶음과 함께 시문학의 가장 큰형식인 서사시작품을 내놓은것이다.

로병들의 시문학, 그것은 혁명의 2세대가 포화속에서 체험한 혁명의 진리, 생활의 철학으로 3세, 4세들을 깨우치는 심장의 노래이다.

서사시가 안고있는 애국의 생활철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화국이 낳은 새 세대 영웅들인 조국해방전쟁의 영웅들은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데서 훌륭한 본보기로 됩니다.》

서사시 《땅크병이야기》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 312호땅크승무조원들의 투쟁과 생활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을 목숨바쳐 지키는 길에 우리 인생의 참다운 가치, 긍지와 보람이 있다는 숭고한 애국의 생활진리를 올려주는 작품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소대장 한명진과 포장 강철수, 운전수 김세훈. 부운전수 박병학, 장탄수 럼달현...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그들모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신 공화국의 품속에서 비로소 사람다운 생활과 참다운 행복을 체험한 젊은이들이다. 하기에 그들은 조국이야말로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며 조국을 찾아주신 수령님은덕에 한목숨바쳐 보답하는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깊이 자각하고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결전장에서 끝끝

내 전승의 날을 맞이한다.

이 영웅적군상에서 힘있게 울려나오는것은 인민적인 사회제도가 수립된 조국이야말로 우리들 때 사람의 행복의 근본담보이며 그 수호자는 총을 쏜 젊은 청춘이라는 철리이다.

시인은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과 그 미더운 수호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목숨바쳐 조국을 지켜낸 청춘시절이 인간의 한생에서 차지하는 가치와 의의에 대하여 감회깊이 깨우쳐준다.

서사시는 마지막부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전후에 사단을 찾으시여 땅크병들의 전투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는 숭고한 화폭을 모시였으며 조국을 한몸바쳐 지켜낸 청춘시절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간을 빛내인 우리 인생의 자랑임을 뜨겁게 주장하고있다.

독자들은 화폭들의 배후에서 자기 한생의 가장 빛나는 개화기를 긍지와 보람에 넘쳐 이야기하는 서정적주인공-로병시인을 본다.

...

후세들이 력사라고 말하는
준엄한 전쟁을 겪어온 우리

...

서사시의 첫시작에서부터 울리는 이 《우리》를 시를 쓰는 누구나가 대신하지는 못한다.

그 《우리》로 하여 시인의 목소리는 류다른 무게를 가졌다. 조국과 그 수호자에 대하여 인간의 한생과 총을 쏜 청춘의 삶에 대하여 말하는 서사시의 생활철학은 준엄한 지난날의 체험자된 자부를 안고 한생을 마무리지어가는 로병의 시점으로 개방되면서 자기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확신에 찬 음조로 울리고있다.

서사시가 읽히는것은...

서사시는 형상이 진실하고 깊이있는 대목들마다에서 독자들을 끌어당기고있으며 독특한 운률적여음새, 굴림새로써 흥취나게 읽히우고있다.

무엇보다도 서사시의 형상은 로병시인의 체험에서 출발하여 전쟁시기 우리 땅크병들의 투쟁과 생활을 생동하면서도 깊이있게 반영하는 좋은 점을 가졌다.

땅크병들의 전투적면모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는 생활적형상, 더 나아가서 조국수호전에 한몸바쳐 나선 공화국의 젊은 땅크병영웅들의 숭

고한 정신세계를 철학성있고 깊이있게 밝혀주는 생활적형상들이 서사시에 펼쳐져있다.

시인은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투쟁속에서 벌어지는 생활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다는 주체의 미학관을 지니고 땅크병들의 랑만적인 생활모습을 생동하고 풍만하게 그려내는데 힘을 넣었다.

진격의 길에서 땅크병들이 펼치는 화선오락회며 《말박사》의 즉흥출연과 고향편지들의 공개, 흥겨운 포신청소며 적땅크와의 힘겨루기, 《그라망》 격추사건 등...

그중에서도 땅크포장과 운전수의 승벽내기가 나중에는 씨름판으로 넘어가 병사들의 성격을 랑만적으로 떠올리는 생활은 얼마나 좋은가.

시인은 노래한다.

《...땅크는 하나/ 그 하나는 다섯/ 사람에게 모든 장기 다 있어야 하듯/ 땅크도 다섯이 그쫄할 때/ 완전한 하나로 되나니/ 오 땅크는/ 하나이며 다섯인 우리였다/ 우리의 성격이자 땅크의 성격이었다》라고.

생활도 진실하고 그 생활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노래도 진실하다.

어찌 이뿐이라.

시인이 《철의 심장에/ 철갑을 입고/ 철신을 신고/ 철포를 메고 달리는/ 전투대오의 일선병사/ 우리 땅크병들》을 노래하면서 《화살에도 활촉이 있고 칼에도 칼끝이 있듯 맨 앞장에서 달릴 기쁨》을 개방할 때 독자들은 이 비유적이면서도 진실로 충만한 시형상에 끌리는것이다.

이러한 생활적진실은 오직 체험자-로병만이 노래할수 있는 참으로 값진것이라고 할수 있다.

때로 로병이 체험한 진실이 사색속에 고이고 승화되면 심도있고 무게있는 시세계가 태어나 독자들을 매혹시킨다.

레컨대 시인이 우리의 땅크무력을 두고

...

땅크여 너는

한갓 쇠불이가 아니었다

...

달아오른 너의 철갑과

불타는 우리의 녀이

하나로 얹혀있었으니

너와 우리는

떨어질수 없는

쇠와 녀의 응결체!

...

라고 웨쳤을 때 그것은 정녕 포화를 헤친 땅크병들의 삶의 응결체-보석같은 형상으로 빛나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체적인 땅크무력에 대한 시적발견이라고 할만 하다.

시인의 철학적사색은 나아가서 50년대의 준엄한 포화속을 중횡무진한 이 나라 청년들의 내면으로 깊이 침투한다.

...

알았다 땅크병 우리들

불속을 가야 함을

목숨을 바쳐야 함을

그 불은 승리를 위한것이였다

그 목숨은 조국을 위한것이였다

아껴야 하는것이 목숨이지만

바쳐야 하는것도 목숨이였다

목숨과 불을 놓고 아낌과 바침의 대조속에 무게있게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시세계가 가지는 힘과 울림은 참으로 크다.

시인의 철학적사색은 이밖에도 투쟁속의 다채로운 생활들을 진한 색깔로 물들이며 독자들을 이끌어주고있다.

한편 서사시는 자기의 독특한 음악적위음새, 운율적이면서 민족적인 굴림새의 도움으로 독자들에게 잘 읽히우는 좋은 점을 가졌다.

서사적묘사방식과 서정적묘사방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서사시형상에서 서사적인것, 다시말하여 객관적인것에 대한 산문적인 서술이 순탄하고 흥취나게 읽히우려면 서사적이고 산문적인 내용이 서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형식에 유착되어

경구, 격언

- 《창작은 아름답고 비상히 힘들고 놀라울만치 즐거운 로동이다》
- 《지식의 다방면성이야말로 작가들의 귀중한 창작적재부이다》
- 《문장을 소리내여 읽는것은 창작사업에서 아주 효과적이며 본질적인것이다》
-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는것은 단순히 <이야기하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화필이나 연필로 그리는것처럼 말로써 사람을 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 《폭풍을 묘사한다고 하여 파도 하나하나를 그릴 필요는 없고 설레이는 바다의 화폭을 주면 충분하다》
- 《글쓰기기교-이는 함축하는 기술이다》

음악적인 엮음새, 굴림새를 타야 한다.
이를 위하여 표상적이고 회화적인것이 안고있
는 정서와 음악적틀조를 파악하여 시어탐구와 시
문장조직에 반영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면에서 서사시 《땅크병이야기》는 주목할만
한 경험을 보여준다.
하나의 레로 진격의 최선두에 서게 된 땅크승
조원들의 심리를 표현한 시구해서 보자.

...
유별스레 봉 뜬 세흔
운전수가 뜨니 땅크가 뜨고
땅크가 뜨니 승무원 다 떴다
떠도 앞으로만 떠서 좋다
절로 나는 노래소리
-가슴에 꿰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에 빛난다
...

독자들은 여기서 《뜨다》라는 시어의 다채로운
반복과 음수들의 조화가 조성하는 독특한 음악적
틀조를 따라 진격의 길에 오른 땅크병들의 앙양
된 감정선상에서 서사시를 순탄하고 흥취나게 읽
어가게 된다.

서사시에서 주목되는것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음악적틀조와 정서에 조선적인 맛이 돋구어지도
록 각별한 관심을 돌린 점이다.

4.4조나 7.5조 등 민족적인 음수들의 활용 그
리고 조선맛이 진한 조흥구들의 인입 등 여러면
에서 그러한 탐구적노력을 볼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래를 서사시의 형상세계에 적
극 인입하고있는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진격의 로정에서 실참에 벌리는 화선오락회의
노래들, 땅크포들 소제하는 장면에 나오는 즉흥
적인 로동민요, 해방의 감격 안고 서울시민들이
펼치는 춤, 노래들 그리고 저 멀리 평양의 하늘
가를 우러러 부르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서사시의 마지막을 결속
하는 노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등 이
서사시의 형상세계에서는 많은 노래들이 울리고
있다.

세계작가일화

평론가들이 입을 다물고있는것은...

프랑스의 작가 베르장이 어느날 작가 줄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줄라군, 자넨 평론가들에게 그토록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으면서 무슨 재미로 글을 쓰나? 한편
의 작품을 써도 매를 맞지 않을걸 쓰라구.》

줄라는 으시대기를 좋아하는 베르장의 빈정대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베르장, 소설을 쓰겠거든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맞는 글을 쓰라구. 평론의 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에
평론가들이 입을 다물고있는 그런 소설을 쓰지 말구.》

이것을 어찌 시인이 가사창작에 경험과 애착을
가지고있다는 한가지 조건에만 귀착시켜 설명하
라.

그것은 무엇보다도 노래와 더불어 시작되고 노
래와 함께 전진하고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진실
을 반영하기 위한 요구임과 동시에 준정형시가로
서의 노래가사가 가지는 조화로운 민족적음수들
이며 조선맛이 진한 갖가지 조흥구들, 그밖에 풍
부한 우리 식 운물조성수법들에 의거하여 서사시
의 형상세계전반에 조선적인 맛-민족성을 돋구는
효과적인 방도라는 점에서 무척 소중한것이다.

서사시가 남겨놓은 과제

서사시는 아쉽게도 미결과제를 남기고있다.

그 과제중에 주되는것은 전쟁이라는 환경과 정
황의 준엄성에 톤튼히 의거하면서 영웅적희생정
신을 본격적으로 부각하지 못한 점이다.

이것은 서사시가 땅크병들의 락천적인 생활묘
사에 보다 치중하면서 전쟁주제작품창작에서 환
경의 전형성과 성격의 전형성을 통일시켜 추구하
지 못한 약점에 기인한다.

오늘 선군시대의 문학에서 전쟁주제의 작품창
작에 각별한 주목이 돌려지고있는것은 이 주제형
상이 전쟁이라는 준엄한 환경과 정황을 생활바탕
으로 하여 영웅적성격을 떠올리고 숭고한 희생정
신을 감명깊이 부각하기때문이다.

창조적로동의 주제와 구별되는 전쟁주제의 사
상미학적인 의의와 독자성이 여기에 있다. 우리
가 만일 형상창조에서 비관주의적 현상을 경계하
고 락관주의를 고취하려는 주관적의도밑에 전쟁
주제에서 정황의 비극성, 비장성을 외면하고 락
천적인 생활반영에만 치중한다면 전쟁주제에 고
유한 묘를 살릴수 없게 되고 영웅적희생정신을
감명깊이 밝힐수 없게 될것이다.

물론 서사시 《땅크병이야기》에도 전쟁이 가져
오는 비통한 정황들이 계기적으로 몇군데 설정은
되어있다. 고향에서 보내온 편지를 통해 미제놈
들의 폭격으로 소대장의 동생이 죽은 사연을 알
게 되는 정황이나 락동강도하전투시 전우인 달현
이 전사하는 장면 같은것이 그러한 설정이다.

하지만 서사시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계기를 주인공의 내면세계에로 옮겨 분노와 보복의 열정을 활화산같이 터쳐올리지 못하였고 몇마디 설명적인 말로 지나치고말았다. 전우의 희생장면도 서사시의 마지막부분에 놓여 영웅적성격들을 더욱 돋구는데 응당한 몫을 하지 못하였고 작품의 결말을 그저 애도의 감정으로 채색하는 정도에 머물고말았다.

이와 반면에 서사시형상에 많은 힘이 기울여진 것은 전투의 째마다 땅크병들이 벌려놓는 씨름판과 이야기판, 오락회 등 흥취나는 생활장면들의 묘사이다.

그것들은 생동하고 풍만하여 독자들을 감흥시키는 힘을 가졌다,

결국 서사시는 흥취나는 생활들로 병사들의 낙천적성격들을 강조하는 긍정점은 가졌으나 준엄하고 비분에 찬 정황에서의 영웅적성격을 심도깊이 부각하지 못하여 전쟁주제작품에 요구되는 형상의 기본을 놓치게 되었다.

서사시는 또한 일련의 미숙한 형상들도 남겨놓고있다.

이것은 시인의 직접적인 체험이 미치지 못한 생활영역들이 응당한 수준에서 형상되지 못한채 작품에 인입된데 기인하고있다.

독자들은 최고사령부의 작전토의장면과 당황망조한 적들의 모의장면에서 그러한 대표적례를 본다.

등장인들의 간략한 대화들이 위주로 된 이러한 개소들의에도 작품에는 제시나 설명에 머물고 형상으로 전환되지 못한 개소들이 있어 예술적품위를 떨구고있다.

형상의 미숙성, 피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인은 직접적인 체험이 미치지 못한 생활을 그리는 데서 요구성을 보다 높여야 하였으며 사색과 탐구를 더욱 심화시켜야 하였다.

가사

못잊을 고향역

김파

동해선 달려갈 통일행 우리 렬차
목메이는 기적소리 내 고향을 부르는가
긴긴 세월 헤어졌던 부모처자형제들
고향역에 달려나와 부둥켜안으리라
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뜨거워
하나된 내 조국 내 고향역이여

울안의 앵두꽃 곱게 피는 내 고향집
정다운 그 얼굴들 차창가에 어리는가
꽃이 피도 눈내려도 가고싶던 고향길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 49(1960)년 8월 25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시여 선군혁명령도의 첫자욱을 찍으신 때로부터 47년의 세월이 흘렀다.

서사시 《땅크병이야기》는 이 땅크사단의 전투행적을 취급한 소재와 그 영광스러운 날의 뜻깊은 현지지도사적을 결말부분에 반영한 형상구성의 특성으로 하여 선군시대의 문학앞에 이 위대한 혁명사적을 본격적으로 파고들여 형상할데 대한 시대적요구를 강하게 시사하고있으며 그것을 미룰수 없는 절실한 과제로 안겨주고있다.

물론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형상화를 과제로 내세운 《땅크병이야기》의 세계에 위대한 혁명사적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형상적해명까지도 요구한다면 무리스러운 일로 될것이다.

위대한 혁명사적의 의미가 충분히 형상화되려면 땅크사단의 면모가 보다 폭있고 심도깊은 인간관계우에 펼쳐지면서 수령결사옹위의 지향우에 위대성형상이 높이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근시기 이 땅크사단을 거듭 시찰하시면서 제105땅크사단은 조선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보위하여온 영광스러운 근위부대라고 말씀하시였으며 싸움에서도 근위부대, 사상에서도 근위부대였다는 높은 평가까지 안겨주시였다.

선군시대의 오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령도의 력사를 밝혀 천만군민에 대한 교양을 더욱 심화해야 할 우리 문학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에 관한 작품창작은 자못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앞으로 우리 문학은 이 서사시가 안겨준 중요주제의 작품창작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밀고나가게 될것이다.

백두에서 남해까지 열리고열리리라
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뜨거워
하나된 내 조국 내 고향역이여

남으로 북으로 오고가는 이 땅우에
우리 겨레 울고웃는 고향역은 그 얼마나
태양의 빛발아래 통일의 문 열리여
온 나라 강산이 환희로 설레이리
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뜨거워
하나된 내 조국 내 고향역이여

전선길의 노래

철령의 이정표앞에서

강송계

철령을 오르며
나는 가늠해 본다
굽이굽이 구름우에 험준한 령길
한해에도 그 몇번
넘으신 그 자욱 다 이으면
하늘끝이라도 담을가

오 철령이여
너의 이정과 해발고는 끝이 있어도
우리 장군님
선군길에 새겨진 그 자욱자욱
전선길의 이정엔 끝이 없거니
따르는 이 걸음도 끝이 있으랴

한뜨락

주경

감 한알 손에 든 너병사를
곁에 세워주시며
장군님은 사랑의 기념사진 찍어주셨네
너병사를 다정히 곁에 세우시고

아 장군님과 너병사 사진을 찍은
초소의 뜨락은 크지 않아도
아버이장군님의 크나큰 품속에
최고사령부와 한뜨락으로 이어졌네

아, 그품

김흥규

포진지에 오르신 장군님
실전의 훈련모습 보아주시며
펼 펼쳐나는 싸움군들이라 치하하실 때
백두령장의 기상 산발을 흔들고
멸적의 안광이 빛발치더니

국가마 끓는 취사장이며
염소떼 흐르는 중대축사
양어장을 돌아보실 때에는
걸음걸음 인자함이 흐르고
봄날의 해빛같은 미소로
공기조차 따스해지더라

아 일당백용맹의 날개도
장군님 그 품에서 받고
아버이 다심한 사랑도
장군님 그 품에서 받는 병사는
장군님을 닮은
무적장군의 병사가 되더라

병영의 푸른 숲

오재신

푸르청청 병영둘레
жат나무숲을 바라보시며
우리 장군님 물으시네
저 나무들이 그때 심은 나무들인가고

몇해전
최전연 우리 고지에 오셨던 장군님
나무 한그루 심어가꾸는것도
총 잡고 나라 지키는 큰일로 보신
우리 장군님

만족하시여
너무도 만족하시여
눈길 떼지 못하신채
바라보고 바라보시네
더욱더 아름다워진
내 나라의 새 풍치를

아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수천수만리 선군장정의 그 길우에
총검의 숲만이 자랐던가
무성한 저 푸른 숲
선경으로 꽃피는 내 나라가 솟아올랐네

시대의 요구와 작가후 형상세계

-올해 상반기년도 《조선문학》 잡지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을 두고

리창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선군혁명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리며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를 펼치는 위대한 변혁의 해인 올해 상반기년도에 우리 소설가들은 시대의 요구가 잘 반영된 우수한 단편소설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이것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비등된 열의를 한층 고무추동하기 위한 우리 작가들의 들끓는 기세를 잘 말하여준다.

단편소설은 긍정적주인공들의 생활의 일단을 통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신속정확히 제기하고 해명할수 있는 자체형식의 고유한 특성으로 하여 우리 독자들의 귀중한 생활의 길동무로 되고있다.

단편소설에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 리도덕적문제가 제때에 반영되지않는다면 그리고 혁명적기상으로 나래치는 시대정신과 선군시대의 맥박으로 고동치는 생동한 성격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체의 사명을 망각한것으로 된다.

이것은 비단 현실주제의 단편소설에만 국한되는 사상미학적요구가 아니며 지난 시기의 생활소재로 썩여진 단편소설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의 사회적가치는 결코 그 부피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단편이라고 하여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지고있으면 얼마든지 명작으로 될수 있다.》

《조선문학》(올해 상반기년도)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살펴보면 주제영역이 다양하고 녀성작가들의 창작적열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왕성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주제영역을 개괄하면 수령의 위대성과 고매한 덕성을 취급한 수령형상소설들과 사회주의현실주제, 조국통일주제, 계급교양주제, 조국해방전쟁주제 등 현시기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를 취급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발표되었음을 알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녀성작가들의 진출이 눈에 띄이게 나타났다는것은 총 14편의 작품가운데서 6편의 작품이 이들에 의하여 씌여졌다는것이다.

특히 4월과 2월 우리 민족최대의 경사를 맞이하여 나온 특간호들에 실린 수령형상단편소설모두가 녀성작가들의 작품이라는데 있다.

그가운데서 이채를 띠는 작품으로서는 수령형상단편소설 《오작교》(박해란 작, 4호)이다.

단편소설 《오작교》에서 작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은 원썩 미제의 침공을 물리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의 봄을 안아왔다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중요상대인물인 대대장 박철과 항일혁명투사인 오중성의 딸 오영혜와의 관계속에서 생활적으로, 흥미있게 잘 풀어보고있다.

소설의 우점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전사 한사람한사람을 육친의 정으로 극진히 보살피시는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그려낸데 있다.

김화지구에 등지를 튼 적땅크기지를 습격할데 대한 명령을 받고 이 전투를 앞장서 지휘하던 대대장 박철이 심한 타박상을 받고 흠속에 묻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후방병원에 입원하고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박철 대대장이 입원한 후방병원을 몸소 찾으시여 시신경파파로 실명당한 그를 만나 그의 부상경위를 자세히 들으시고 안과전문의사인 원장에게 《아직 우리 손으로 고칠수 없는 부상병들은 다른 나라에 보내서라도 꼭 고쳐주자고》하시며 《자기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 부상을 당한 군인들인데》, 《지구상의 그 어느 병원에서도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킬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라고 간곡한 당부를 하신다.

한없이 자애로운 이 위대한 사랑은 그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대한것이였으니 그 사랑에 우리 인민군전사들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한다 해도 아직 팔다리가 남아있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선에서 쓰러진 전우들의 뒤통까지 합쳐 얼마든지 미군놈들은 죽일수 있다》는 끝없는 충실성의 뜨거운 열정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이다.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상으로 실명당한 박철 대대장을 이 부문 수술에서 명망높은 소련군의 와쉴리에브가 있는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 보내여 수술받게 하시고 수술회원으로 레닌그라드에서 류학하고있던 오영혜를 보내도록 하시는 장면이며 승리할 조국의 태일을 내다보시고 전쟁시기 오영혜를 비롯한 친위대원들을 외국에 류학보내시는 장면, 전쟁시기 최전연이 가까운 경치좋은 내금강에 있는 인민군휴양소를 운영하도록 하시

고 여기에 한개 련대의 고사포무력을 전선방어에서 떼내어 휴양소방어에 돌리도록 하시는 장면과 같은 생동한 장면들이 펼쳐져있다. 이 개개의 장면들은 정연한 이야기줄거리로 이어져있지 않지만 아버지수령님의 불같이 뜨거운 인간애와 위대한 풍모를 부각시키는 생동한 역사적사실들으로써 천출위인의 탁월한 령도와 인간적풍모를 잘 형상할 수 있게 하여준다.

작품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서 형상을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생활적으로 납득이 가게 생동한 세부들 《인입》하여 진실하게 그려보인 것이다.

건지리에 자리잡고있는 최고사령부주변에 친위 중대원들이 심은 추리나무를 살펴보시다가 작고 연약한 나무에 꽤꼭이 걸려있지 않은것을 헤아려보시고 그 나무를 영혜가 말아 키우도록 하시는 세부며 영혜가 따서 드리는 빨간 추리를 받으시며 고맙다고 칭찬하시는 세부, 짧은 휴식시간에 수령님께서 영혜와 산길달리기를 하시는 세부 등은 그 어떤 가식이나 틀이 없이 친자식처럼 보살펴주시는 친아버지의 육친적사랑을 생활적으로 타당성있게 느끼도록 하면서 이러한 세부형상을 통하여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인간중의 참인간이시고 정에 넘치는 위인이심을 가슴뿌듯이 새겨안도록 하고있다.

전쟁 4계단행정에서 또 하나의 큰 작전을 시작하고있던 준엄한 력사적시각에 영영 실명당할번했던 한 대대장이 외국병원에 가서 수술을 성과적으로 받았다는 소식을 받으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사랑에 접하여 측근인물인 남일은 이렇게 심장으로 웨친다.

(최고사령관동지, 우린 지금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이렇듯 큰 사랑이 전쟁의 엄혹한 겨울을 몰아내고 승리의 봄을 안아올것입니다.)

정녕 우리 인민, 우리 전사들을 위하여 것처럼 세심한 사랑과 심장과 심장으로 주고받는 뜨거운 정으로 하여 이 전쟁에서 나어진 병사가 영웅이 되고 삶이 죽음을 타승하는 기적이 일어날수 있는것이였다.

그 위대한 사랑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나라로 세계전쟁사에 대서특필로 기록되게 되었으니 그 사랑의 힘은 아직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강철의 령장, 천출위인의 불보다 뜨거운 인간애의 분출이였고 우리 인민모두를 자주적인 삶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주신 친아버지의 다함없는 헌신의 열매이기도 하였다.

작품은 구성조직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작품의 이야기는 시종일관 작가의 시점에서 현

재로부터 과거로, 과거에서 다시 그 이전 과거로 그리고 현재로 부단히 바뀌어지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심리세계에 대한 묘사를 자유분방하게 펼치고 있다.

여기서 중요상대인물인 박철 대대장을 외국병원에 보내어 시신경과피로 인하여 실명당한 눈을 수술받게 하시는 장면, 수술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더없이 기뻐하시는 장면 그리고 해방직후 오영혜와 박철이를 알게 되시는 이야기, 오영혜가 박철이와 오누이관계를 맺게 되고 사랑을 맺게 된 사실, 오영혜의 류학가기 전 친위중대에서의 생활과 류학간 후의 생활 등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돌려주시는 믿음과 사랑의 세계, 고매한 인간적 풍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주선 이외에도 작품에서는 작전지휘성원인 남일에게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전선가까이에 위치한 내금강의 인민군휴양소를 운영하도록 과업을 주시고 인류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필요한 대책까지 취해주시는 이야기는 작품을 관통하고있는 주선의 사상적내용을 보충해주고있다.

이것은 작가가 단편소설이라고 하여 단순한 이야기줄거리조직만을 절대화한것이 아니라 비교적 긴 시간동안의 이야기를 현재(전쟁시기)의 한 단면에 투영시켜 집약적으로 펼치면서도(그것도 사건줄거리가 아니라 몇몇세부형상으로)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돋구어주기 위한 형적인 폭도 가능한것 넓혀보려고 시도하였음을 실증해주고있다.

여기에 이 작품의 비교적 높은 사상예술적풍격을 보장한 중요한 요인이 있고 수령형상단편소설의 구성을 새롭게 하려고 고심한 작가의 깊은 탐구와 사색의 자취가 깃들어있는것이다.

단편소설 《숨의 교향곡》(리정옥 작, 2호)도 수령형상소설로서의 풍격을 비교적 잘 갖추고있는 작품이라고 본다.

소설은 한마디로 말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산림과학자가 한생애 품었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활력에 넘쳐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방법으로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사업에 발벗고 나서도록 이끌어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이야기를 펼치면서 일군들로 하여금 당의 경제로선관철에 떨쳐나서도록 하신 현명한 령도풍모를 함께 그려보이고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생을 실패한 학자》로 자처하고 연구사업을 중단하달싶이한 한 산림과학자의 소망을 헤아려보시고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그학자의 아들로 하여금(그도 산림학을 배우고 입대하였다.) 아버지의 뜻을 지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을뿐아니라 그 과학자도 신심을 가지고 현대적이며 공업적방법으로 통이 크게 나무모를 길러 산림학을 새로운 궤도에 추켜세울수

있게 몸소 구체적인 방법과 대책을 세워주신다. 이리하여 빨리 자라면서도 수종이 좋은 나무모수만그루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다 보내주시었고 이 양묘장의 첫 책임자로 그 학자를 임명해주신다.

몇해후 그의 아들이 군사복무기간에 주변의 산림을 수림화하였을 때 이를 본보기단위로 설정하고 여기에 한 도당책임일군(그는 《고난의 행군》 시기 학자의 사업을 외면시킨 일군이다.)을 데리고가시여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사업에 앞장서라고 일깨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작품에서는 이렇듯 어버이장군님께서 한 과학자의 사업실태를 료해하시면서 온 나라의 산림실태를 꿰뚫어보시고 당의 전략적인 로선과 관련한 전사회적인 문제를 착안하시고 그를 실행해나가는 이야기를 무리없이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이것은 작가가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우리 당의 전략적이며 로선적인 문제를 무게있게 제기하고 풀어나갈만 한 높이의 정치실무적자질과 창작적기량을 갖추었음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그리고 수령형상단편소설창작의 첫걸음마를 비교적 원만하게 내디딘 이 작가의 창작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나치게 론리에 치우친 아쉬운 점들을 찾아보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도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단편소설들가운데는 중요인물들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처리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고향으로 가는 길》(정기중 작, 1호)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류민호 작, 2호) 《약》(배경휘 작, 3호), 《어머니의 모습》(조인영 작, 6호) 등이 그러하다.

이 작품들에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한 량심적인 인간의 운명문제를 그렸다는 점에서는 크게 문제시할 점은 없다. 하지만 일부 작품들은 무엇때문에 꼭 주인공들의 운명을 삶이나, 죽음이나 하는 피할길 없는 계산에 올려놓고 형상해야 작품에서 제기한 문제해명에 《원만히》 처리했다고 할수있겠는가 하는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이나 중요인물들의 운명을 죽음으로 처리하는 작품이 왜 유형적으로 적지 않게 나오는가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죽음 그자체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그늘을 던져주며 혁명투쟁의 간고성을 강조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와는 달리 사람들에게 비애의 감정에 잠기게 함으로써 새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것보다 애상과 불안, 아쉬움을 자아내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단편소설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한 영예군인이 정전직후 어선의 사수로 배치되어와 적들의 불의의 도발로 하여 생긴 위기일발의 순간에 자기 한몸을 내대고 전사한것으로 주인공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일련의 론의점들을 주고있다.

이 작품이 가지는 부족점은 첫째로 영예군인(그것도 다리를 의족한)을 배의 사수로 배치되어

오는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영예군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전사회적으로 돌보며 내세워줄데 대한 우리 당의 따사로운 품에 대한 외곡된 반영에 있으며 둘째로는 그가 오르내리는것을 힘들게 하다 보니 그를 둘러싸고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이 남자씨지 못하다고 오해하는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몰아간것, 셋째로는 그가 장렬하게 희생된 후에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이 《그런것두 모르구 배에서 내리우게 해달라구 제기까지 했으니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라고 당위원장에게 제 잘못을 비는 대사와 《당위원장은 저만 알고 선장에게까지 최주선이 영예군인이라는 말을 안한다.》그와 로쳐너인 봉녀의 죽음을 두고 《살아서는 서사로 사랑을 못했던 그들이 죽음을 앞둔 몇초사이에 서로 진정으로 사랑한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 시각 봉녀는 자기가 바라던 진짜사나이다운 사나이를 만났던것이 아니였겠는가.》하는 생각을 했다는 《나》의 애잔한 심리묘사가주는 서글픔이다.

이 작품에서 영예군인 최주선의 죽음은 물론 혁명적비극이지만 그가 주는 미학적감정은 이런 묘사로 하여 큰 손상을 받고있다.

무릇 비극은 비애와 불안과 공포를 주며 인간과 생활에 대한 허무감을 자아내지만 혁명적인 비극은 이와는 반대로 뚜렷한 생의 목표를 내걸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자기 희생성의 모범으로 하여 뼈아픈 상실감과 그를 따라배우려는 강한 충동과 깊은 여운을 준다. 그러므로 혁명적비극은 우리의 간고한 혁명투쟁과 더불어 필요한것이며 그자체를 부인해서도 안된다.

자기 고향을 해방하는 전투에 자기 한몸을 내대고 앞장에 서서 배길을 안내하다가 17살의 청춘을 용감히 바친 《고향으로 가는 길》의 박순금.

조국해방전쟁시기 락동강계선전투에서 전사한 남편의 뒤를 이어 어린 자기의 쌍둥이 두 아들을 시어머니와 친어머니에게 각각 맡기고 자원입대하여 싸우다가 제대되어 고향에 온 후 친어머니에게 맡긴 만이는 찾지 못한채 군사분계선부근의 한 마을에 들려 급한 환자치료에 전심한 《나》의 어머니(《어머니의 모습》)...

그는 전쟁시기 미군놈들이 투하한 세균무기로 하여 발생한 전염병환자치료에 전심하다가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다.

보는바와 같이 이들의 죽음은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바친 그 고귀한 자기희생성의 모범으로 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도 강한 충동과 여운을 준다.

이 작품들에서는 중요인물들의 죽음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비극으로 옹바로 처리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사상예술적풍격을 보장하고있다.

단편소설 《고향으로 가는길》에서는 주인공인 항일투사출신 대대장이 해방후 미군놈들이 동지

를 뜬 서해안의 어느 작은 섬마을을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해방시키는 전투를 앞두고 집을 떠난 사이에 낳은 딸을 물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나 긴박한 정황인지라 딸을 딸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길잡이로 나선 딸 또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때 떠다니는 얼음장으로 하여 배길이 막히게 된 순간 순금은 얼음장에 뛰어올라 배를 밀어보내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작품은 독자들을 공감시킨다. 아버지와 딸관계의 설정, 이것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설정은 아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버지가 딸을 알아보는 순간에 위기일발의 정황이 생기고 딸은 그 정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택한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혈분이마져 잃고서야 고향으로 가는 길을 개척한다...

그로부터 15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그 대대장은 상장의 별을 단 몸으로 계속 군복을 입고있다. 그리고 한때 얼마동안 연락병으로 있었던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작품은 이에 대한 《나》의 심리를 토로한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고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고싶어하면 나의 옛상관, 오늘도 군복을 입고 그는 어디로 가는것일까? 그는 지금도 전화의 그날처럼 고향으로의 길을 계속 이어가는것이 아닐까?... 그리고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멀고 험난한 조국예로의 길, 고향으로의 길을 걸어왔건만 아직도 가닿지 못한 길, 끝나지 않은 길이어서 평생 군복을 벗지 못하고 가고 또 가는것이 아닌가?!...》

참으로 우리 혁명의 간고성을 상기시켜주는 내면심리토로이다. 이러한 심리토로와 사색이 짙은 심리묘사와 작가의 의미심장한 지문들은 때로 작품의 양상을 어렵게 하지만 긴박한 정황의 설정과 딸 순금이의 영웅적인 최후 등은 이렇다 할 사건적인 줄거리는 없지만 독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고 깊은 여운을 안겨준다. 이것은 작가가 높은 예술적기교로 단편소설의 사상에술적풍격을 잘 보장했기때문이라.

단편소설 《어머니의 모습》은 차분하게 생활을 엮어가면서 어머니의 불같이 산 생애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도록 이려저려한 생동한 세부들을 잘 탐구하여 이야기에 《인입》하고있다.

급한 환자치료를 위해 굶은비 내리는 날 사품치는 산골탁류를 마다하고 물을 건느는 어머니, 자기 피를 뽑아 경각에 달한 산모에게 넣어주었으나 그 산모는 끝내 소생 못한다. 그가 낳은 아이를 딸삼아 기르는 어머니...

전쟁시기 허리에 파편상을 입은 영예군인의 몸이었으나 그를 내색하지 않고 항상 환자치료에 전심하면서 왕진의 길을 달리고 또 달린다. 모성을 뛰어넘은 고결한 인간애로 길지 않은 한생을 환자치료에 바친 어머니, 그의 영웅적최후는

독자들에게 자기희생의 산모범으로 커다란 충격을 준다.

작용에는 물론 그의 사상에술적풍격을 높여줄 여지가 있다.

생활을 좀더 깊이있게 파고들어 그려주었다라면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라렬할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부라도 보다 특색이 있고 생동한것으로 탐구하며 《인입》시켰더라면...

올해 상반년도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보면 우리 작가들이 현실의 절박한 사회적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새로운 인간성격과 인간관계를 통하여 해명하려는 탐구정신이 강렬하다는것을 뜨겁게 느낄수 있다. 이것은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주제와 조국통일주제, 계급교양주제의 작품들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그가운데서 몇몇 작품들은 비교적 우수한 사상에술적풍격을 갖추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론의할 점은 적지 않으나 우의 주제의 작품들 가운데서 일정한 공감을 주는 단편소설들로서는 《돌산의 노을》(김창수 작, 2호), 《내 사랑 저 하늘》(리라순작, 4호), 《답》(김혜영 작, 4호), 《돌아온 반지》(리성식 작, 5호)등이다.

《돌산의 노을》에서 작가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부원인 제대군인 진명이가 돌광산이 자리잡고있다가 자리를 뜬 곳에 있는 수심정보의 돌산을 정리하고 2년사이에 풀을 심어 목지로 만든 이야기를 통하여 《조국을 가슴에 안기 전엔 꽃으로 피어도 <헛꽃>으로밖에 못된다》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풀어보이고있다.

나라의 한치땅도 놀리지 말고 기름진 대지로 전변시키려는 주인공들의 높은 자각과 협상곳은 돌밭을 채종포전으로 전변시키려는 이들의 열정을 세 세대 청년들인 진명이와 리향이의 투쟁을 통하여 보여준 이 작품에는 랑만도 있고 성격들의 개성적인 면모도 비교적 잘 그려내고있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과 투쟁이 잘 납득되지 않는 점들이 있다. 그것은 군농촌경영위원회 부원이 자기 직분에 맞지 않게 당면한 농사일이 아니라 국토사업을 맡아하는것은 작가의 주관적인 설정으로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내 사랑 저 하늘》은 수도의 어느 한 대학의 환경공학부에서 사업하고있는 경주라는 처녀교원이 고무공장에 나와 앞으로 확장될 생산능력에 맞게 새로운 방법의 제진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문제는 사람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수도의 거리를 알뜰히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현실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이 제기한 사회적문제성은 현실적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는것이다.

소설은 대학교원 경주가 책임기사 한철목의 도움을 받아 공장굴뚝으로 나가는 미세먼지와 아류

산가스를 말끔히 잡을수 있는 새로운 형의 습식 제진장치를 받아들였을뿐아니라 그 과정에 지금까지 늦추었던 결혼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흥미있게 엮고있다.

소설의 사상에술적풍격으로 보나 이야기를 조리있게 끌고나간 기교의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부족점이 없는듯 하다. 이런 의미에서는 소설로서의 체모가 빈틈없이 보장되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는 독자들이 접수할수 없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허다하게 나타나고있다.

우선 습식형의 제진장치는 우리 나라 공장들에서 수십년전에 거의나 도입되었고 적지 않게는 보이라페수를 리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작품에는 최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오늘에와서 이제야 폐수에 매연그을음이 풀린다는것을 알았다든가 아이들이 갈때기를 불어대며 물을 뽑는 장면을 보고 분사식으로 습식장치를 해야 하겠다고 착상했다든가 지어는 정확성을 기여한다고 하면서 녀성대학교원이 열기가 풍기는 굴뚝안으로 들어가 폐가스채취며 온도측정을 하느라고 손까지 다 데였을뿐아니라 하마트면 큰일날번 했다는 이야기가 씌여져있다. 이것은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작가의 《고안》이 아닐수 없다.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는 실력있는 대학교원이 보이라페수에 먼지가 잘 씻긴다는것도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습식형제진장치를 뽀개식으로 오늘에 와서야 착상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이 부문 전문일군이라면 다 알고남을 과학기술적상식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발명품》으로 내세우다니 이것은 현실을 모르고 고안해낸 과학기술적문제이다.

작품에서는 《현대적인 측정기구는 많아요. 이렇게 굴뚝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하나의 기구로 바람속도, 습도, 온도를 동시에 재여 표시할수 있는 클리모마스트리라는 환경측정기도 있어요. 측정하기도 쉽고 또 정확하고... 하지만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 더 마음을 놓을수 있거든요.》라고 쓰고있다.

이렇게 경주는 현대적인 기구보다 제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을 놓을수 있다고 하면서 열기에 온몸을 그슬리고 손까지 데면서 굴뚝밑으로 기여들어간다.

미감도 좋지 않고 현대과학기술을 무시하는 이런 《자기희생성》이 어디에 필요하단 말인가. 오늘의 과학자, 기술자, 대학교원을 이런 식으로 형상해야 선군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울수 있단 말인가.

《답》에서 작가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재능을 마음껏 계발시켜 내세워줄 때만이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빠짐없이 키워낼수 있다는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작품에서 제기한 인간문제, 우리 시대 교원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는 옳은것이며 의의가 있는것이다. 또 작품전반에서 이 문제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풀어보이기 위한 진지한 탐구정신이 엿보인다. 이런 점에서 작품은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학급에서 겨우 10~20등권에 속하던 아이가 한해동안에 군적인 소학부문 최우등생경연에 참가하여 단연 1등이 되었다는 이야기자체는 도무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담임선생이 학생들의 생일날에 초청받고 그리로 찾아가는 장면은 교련에 어긋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다.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주제의 작품으로서는 이밖에도 《높은 위치》(오광철 작, 5호)가 눈길을 끈다.

작품에서는 우리 시대 일군들의 자세와 립장문제를 두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로 승화시켜 풀어보이고있다.

어느 한 성의 부상인 최우혁과 오랜 기능공 로동자인 김천일과의 관계에서 벌어지고있는 이야기는 오랜 구면친구간인것으로 하여 더더욱 절절하고도 심각하다.

다만 작품에서는 한 광산의 운명문제와 관련된 기술실무적문제를 두고 명백성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왜 광산을 땅속의 광석을 다 캐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하며 그것이 왜 정당한가를 정확히 알수 없이 되어있다.

올해 상반년도 《조선문학》에 실린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은 형상세계의 측면에서 볼 때 종전에 나온 이 주제의 소설들이 가지고있던 부족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있으며 일련의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오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통일열기는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그런데 단편소설 《약》(배경휘 작, 3호), 《행복의 조선》(김진경 작, 3호)에서는 전쟁시기 흩어진 가족들의 불행과 고통만이 짙게 언급되고 조국통일을 위해 어떻게 살며 일해나가야 하는가를 형상으로 구현해내지 못하고있다.

《약》에서는 남조선에 어린 아들을 두고온 김은숙녀성이 의용군으로 싸우다가 전후에 제대되어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도시병원 소아과 의사로 배치된 후 토질병에 좋다는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남조선에 두고온 아들이 토질병을 앓고있었다.) 온갖 정력을 다해 연구사업을 하는것이 그려져있다. 그는 한생을 다 바쳐 그 약을 끝까지 만들어내고 눈을 감는다. 완성단계에서 자기 몸에 그에 대한 실험을 하다보니 그 후파로 일찍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물론 작품에는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지닌 《우리 민

죽끼리》의 리념문제를 절절하게 제기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인간문제로 풀어보이려고 깊이 탐구한 사색의 흔적이 력연하고 이야기도 한곳으로 잘 엮어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뒤부분에 첨부한것에 불과하지 주인공 김은숙의 형상에는 마지막피 한 방울까지 태워버린 애절한 통일의 열망만 가슴을 칠뿐 실지 그의 투쟁은 자신에게 가해진 지나친 《가혹성》으로 하여 양상이 어둡고 이야기가 무겁게 흘러가는 부족점들이 있다.

우리의 일부 소설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치료시간외에 연구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구를 자신의 몸에 먼저 실험해보는 이야기가 종종 그려지고있다.

이런 형상수법이 자기희생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이렇게 되어야 시대의 요구에 민감한 우리 시대 주체형의 전형을 창조할수 있는가.

《행복의 조건》은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이지만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살며 투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흠어진 가족의 뼈아픈 추억과 고통, 자책만이 짙게 묘사되어있을뿐 오늘 시대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이야기만 라렬되고있을뿐이다.

작품의 생활소재는 원형에 기초하고있으나 원형의 지나간 경력을 소설적인 이야기줄거리에 맞추어 서술하였을뿐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생활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조선문학》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그린 단편소설 《옥이》(김영선 작,

5호)가 실려있다.

작품에서 작가는 우리 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고 억지감이 있는 세부와 인간관계설정으로 의혹감을 갖게 하고 있다.

신석수술이 고통스럽기때문에 그것을 파쇄기를 만들어 없애려고 그 의료기구를 자체로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창로의사, 환자들에 앞서 자기가 먼저 실험적으로 치료해보겠다는 각오밑에 신석형성성분이 많은 산채류들과 기타 식품들을 먹고 제 몸에 인공신석을 만들어내던 나머지 급기야 수술하지 않으면 안될 정황에서 제 몸을 수술에 맡기는 창로의사.

그의 이러한 행동이 과연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자기희생정신의 귀감으로 된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 사회현실에 대한 외곡된 반영이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자기희생정신에 대한 그릇된 리해의 반영에 불과한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선군시대의 요구를 주체사관의 견지에서 똑바로 알고 한편의 소설작품을 내놓아도 시대와 인간을 우리 사회의 본성적특성에 맞게 아름답게 그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관적인 편견으로 시대의 요구를 대할 때 시대와 인간을 그릇되게 반영하는 저조한 작품, 있으나마나한 작품을 쓰게 될것이다.

꽃사진

김명훈

절승의 황홀경 농칠가보아
농치면 다시나 못 볼듯
백화가 만발해 꽃배경도 많아선가
어서 오라 부르며 꽃사진을 남기네

얼굴에 미소를 함뱌 머금고
행복의 순간들을 남기는 사람들아
가슴을 터놓고 묻고싶구나
만첩의 봄꽃들이 어떻게 피어났는지...
이 좋은 날들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아, 전선길의 찬눈비 다 맞으시며
우리 행복 지키시려 찾으신 초소

그 초소마다에 남기신 야전복 입으신 장군님의
영상이
가슴을 치네 가슴을 흔드네

사랑의 한품에 병사들을 안으시고
장군님 찍어가시는 그 많은 사진들에
이런 황홀한 꽃배경이 단 한장이라도 있었던가

꽃속에서 꽃을 골라
행복을 담은 사람들아
그대들 찍는 한장의 사진도 무심치 않구나
전선길 헤쳐가시는 장군님의 헌신속에
오늘의 모란봉 꽃사진이 웃고있구나

행복

서진명

순간

세월에 비하면
순간입니다
아버이장군님
발전소 새 마을에 살림을 편
우리 가정을 찾으신 날은

벽에 나란히 걸려있는 군복이며
액틀에 끼운 사진에서
오늘도 천연초소에 마음을 두고사는
우리 부부의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그 한순간에
오늘도 변함없이 병사시절에 살아
일 잘하는 부부라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며
온 나라가 다 알게 내세워주셨습니다

만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절정에 올라섰기에
우리 부부에게는
장군님을 모셨던 그날이
순간이 아닙니다

바란다고 누구나 다 지닐수 없는
그립던 장군님품에 안겼던
크나큰 행복과 영광속에
오늘에 살고 래일에 살
우리 부부의 복받은 한생입니다

언제와 우리 사랑

태어난 집
중학시절을 마친 해 서로 달라도
꿈 많던 선택의 시절
약속이라도 한듯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
그 이름으로 불리우며
우리가 걸은 초소길을 생각합니다

등을 떠민이는 없어도
여기 흥봉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고향땅의 정깊은 분조원들
부모형제들 곁을 떠나
묵직한 병사배낭을 메고 우리가 걸은
굽이도 많은 그 고개길을 생각합니다

어깨에 썩살이 배기도록
한치 또 한치 언제를 쌓아올리며
뛰며 내닫던 그 돌격전의 나날에
어찌하여 우리 두 청춘의 가슴에
그렇듯 궁지와 보람만이 넘쳤겠습니까

생각해보니 그것은
가까이 만나뵈지 못했어도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신 장군님
헛자옥 없이 곧바로 걸으라고
참되게 빛나게만 살라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셨기때문이였습니다

그 높으신 뜻을 따르는 길에
우리 두 청춘의 발걸음이
하나같이 찍혀지고
우리의 피더운 심장이
하나같이 불타올랐기때문이였습니다

마주선 산과 산을 이어
금진강, 그 오랜 흐름을 막아
거연히 일떠선 발전소연제
그 거창한 만년성벽은
한길을 걸어 한길에서 만난
우리 사랑도 깊어지고 무르익게 한
행복의 상상봉이기도 합니다

풍 경

병사시절을 잊을세라
거울처럼 매일 보며 살면서도
그 보위색군복을
선군조선의 풍경으로
생각해본적 없습니다

화가가 남긴 그림도
화려한 장식품도 아닌
초소의 눈비에 젖었던 군복을
우리가 왜 집의 벽에
나란히 걸어놓고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비록 초소는 떠나왔어도
병사로 변함없이 살고있는 궁지
그렇게 한생을 살려는
우리 부부의 지향을
그 군복이 다 안고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글썄
세상 아름다운 화폭이
생동하게 그려져있기라도 한듯
우리 집에 오신 장군님께서
그 군복을 유심히 보실줄이야

보람차던 그 병사시절처럼
여기 외진 산중의 흥분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꽃피운
전사들의 마음이
군복의 갈피갈피에서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있는듯

혁명적군인정신, 그 만능의 보검으로
금진강에 안아올린 대인공호수
그 풍만한 물로 발전기들을 돌려
부강조국에 밝은 빛을 더해준
어제날 병사들의 미더운 모습이
군복에 다 비껴있기라도 한듯

선군시대에서만 볼수 있는
자랑스러운 풍경이라고
아버이 우리 장군님
못내 기뻐하실 때
제것이면서도 제것이 아닌듯
우리 부부는 군복을 다시 보았습니다

다시 보고 또 보며
피땀은 심장에 새겨안았습니다
새라새로운 선군풍경을
이 땅에 꽃피우는 변함없는 병사
우리 모습이 비길 때라야만
군복도 우리 장군님의 기쁨
선군조선의 풍경으로
세상에 빛나오를수 있다는것을!

온 나라 사람들의 축복속에

강기슭에, 산허리에
붉은 수를 놓으며
진달래도 떨기떨기 피어 웃고
우리 가슴에도 사랑의 꽃이 피던
그 봄날이 다시 온것만 같습니다

우리 집을 찾는 사람들도
그날에 미처 못 온 결혼식손님들인듯
돌격대병실의 결혼식상앞에
그 시절의 행복한 신랑신부가 되어
앉아있는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한생에 다시 없을 그 잔치날
화려한 첫날웃을 입고
고향사람들의 축복을 받고픈 생각이

하지만 우리의 행복이고
조국의 밝은 래일이기도 한

키솟구는 발전소언제결에서
기쁜 날을 보내고픈 마음이 더 강렬해
건설장을 떠나지 않았을뿐인데

어찌 상상인들 할수 있었겠습니까
군복처럼 사랑하는 돌격대제복을 입고
소박한 결혼식상을 받을제
그것이 우리 장군님의 기쁨이 될줄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수수한 야전복을 입으시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헌신의 길을 씩없이 걷고계시는데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돌격대제복을 입고 결혼식을 한것이

불같은 사랑인줄 압니다
산같은 믿음인줄 압니다
우리 부부만이 아닌
온 나라 청년들의 리상이

고결하고 혁명적이기를 바라시는

돌격대동무들과 같이 보면
그 못 잇을 결혼식날이

오늘은 온 나라 사람들의 축복속에
다시 돌아온것만 같은
이 경이적인 기쁨, 이 무상의 행복은
아버이장군님께서 주신것입니다!

행복

애써 일한 뒤끝에 느끼는
창조자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보글보글 밥가마가 끓어오르고
훈훈하게 방안이 더워나는 집에
세상 걱정없이 사는 이 행복은

남의 덕에 호강하며 산다면
즐거움이 샘으로 솟아나듯
우리의 생활이 이렇듯 기쁨에 넘칠수 있고
창가에 피어나는 웃음꽃이
이렇듯 궁지와 환희에 넘치겠습니까

발전기들의 고르로운 동음소리에 실려
되살아납니다 되살아옵니다
힘겨워도 눈빛을 별처럼 빛내이며
언제의 산을 하늘가로 받들어올리던
돌격전의 그 무수한 날과 날들이

팔벌려 산중의 호수를 끌어안은
언제의 산악 그 어디라없이
진하게 묻혀있는 우리 흘린 땀방울들이
빛을 뿜어올립니다 열을 뿜어올립니다

집집의 그 밝은 불빛으로
온돌방들의 그 따스한 온기로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행복이란
밤이 지새면 새날이 밝아오듯
저절로 찾아오는것도
그 누가 가져다주는 선사품도 아니라는것을

행복은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어
행복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며
자신을 묵묵히 바친데서 찾는
그 남다른 궁지와 보람

장알이 진 이 손, 이 어깨로
만년대계의 새 기념비들을 안아올리며
뛰어 내닫는 힘찬 발걸음
래일을 위해 오늘에 흘리는
피같이 진한 땅인줄 압니다

(금진강홍봉청년발전소에서)

상식

창조력을 높이려면

최근 뇌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뇌에서의 창조력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이 하는것이 좋다고 한다.

첫째로, 사물을 관찰한다. 그러나 만약 대충 관찰한다면 영상이 망막에서 재빨리 사라진다.

둘째로, 목적의식적으로 사물을 관찰하여야 한다.

셋째로, 창조과정에 반복적으로 시험해보는것이 매우 필요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꼭 성공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넷째로, 실패하더라도 맥을 놓지 말고 연구방향을 확정하고 의식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다섯째로, 자기가 찾아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언어표현기교도 숙련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뇌의 모든 부분의 기능을 다같이 발휘시켜야만 창조력이 나타날수 있다.

또한 상상력과 창조적사유를 배양하는것도 창조에서 자못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식은 제한되어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것을 포괄하고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며 지식의 원천으로 되기때문이다.》



랑정수

얼마전 나는 텔레비전에서 《대계도》 간석지 마감막이에 대한 현지보도를 시청하던중 낯익은 얼굴들을 보게 되었다.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환성을 터치는 건설자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의 마음은 어느덧 천리먼 《대계도》 간석지의 완공된 마감막이현장에 가 있는듯이 격동되었다.

한주일이라는 길지 않은 취재의 나날을 건설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그들의 불같이 뜨겁고 순결한 정신세계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게 새겨져있다.

1.

2004년 X월 X일 안개 짙음

오늘 속회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반장의 얼굴이 너무 차갑고 사업방법이 거칠다는 것이다. 둘도 없는 딱친구한테서 받은 비판도 비판이려니와 생각해보면 수십명의 작업반원들이 언제 나의 얼굴표정을 세세히 살펴보았으며 또 내 인상이 우리의 부채치기작업에 그토록 큰 영향을 준다니 놀랍기만 하다.

반장이라고 해서 언제나 웃는 얼굴 또는 밝은 표정만 짓고있어야 한다니 정말 딱한 일이다.

골재나르기, 몰탈운반, 휘틀조립 등 치차처럼 맛물려 돌아가야 할 작업공정이 오뉴월 엇가락처럼 늘어나고 명절날 식탁에 오른 짜배기마냥 뒤스러져나가는 경우에 어떻게 밝은 인상과 고운 목소리만 낼수 있단 말인가. 오늘 사업총화때도 기사장동지가 수첩을 탁 덮으면서 《거 그렇게 뒤쪼리에 끌려다니다가는 (해당화작업반)이라는 이름대신에 (거부기동네)라는 딱지를 이마에 붙일수 있어.》 하던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하다.

아버지와 자별한 사이였고 지금도 한동네에서 사는 기사장동지가 우리 작업반 실적을 놓고 일

마나 답답했으면 술한 사람들앞에서 그렇게까지 말했으랴만 솔직한 심정같아선 그때 개구멍에라도 들어가 숨고싶을만치 창피했다. 기증기운전공으로 일할 때가 제일 좋았어. 그저 온 기업소가 기증기, 기증기 하고 찾아주니 일할 멋도 있었구 보람도 컸더랬지. 지금은 수십명의 처녀애들을 책임진 반장인데다가 노상 골재, 세멘트, 철근, 휘틀, 계획 또 계획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래일부터는 작업조구성을 좀 바꾸어야 할가봐. 노래 잘하는 옥주는 3조에 넣구 오락회대장 명희는 7조에 넣어야 손발이 맞을것 같아...

혜순이가 사업총화에서 돌아와 일기장을 마주한지도 퍼그나 시간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어둠을 흔들며 은근한 파도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온다. 제방도 백사장도 절벽도 그 무엇이든 애무해주는 파도.

호실에는 온종일 부채치기에 녹초가 된 처녀들의 고르로운 숨소리와 체취가 짙았다. 혜순은 모포를 차던진채 꿈나라를 헤매는 그들의 베개머잡자리를 바로해주고나서 살그머니 마당으로 나섰다. 당장에 우유빛의 안개가 속눈섭을 축축하게 적셔준다. 녹녹하면서도 비릿한 해감내쉬인 바다공기가 폐부로 흘러들었다.

마당가에 빙 둘러섬은 해당화생울타리에서 독특한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난다.

어디선가 어둠을 베어던지듯 용접의 섬광이 빙긋거리고 건너편 부채직장에 우중충 솟은 기증기가 이따금 자태를 드러내곤 한다. 기증기! 로동의 첫걸음마를 기증기운전공으로 시작한 그다. 정말이지 저 기증기와 못잊을 첫 인연을 맺은 그날부터 어려운 날에도 즐거운 날에도 일터를 비운적 없었다. 그러던것이 지난날에 간석지건설사업소적으로 유명한 처녀작업반-부채직장의 《해당화작업반》 반장이라는 직무를 맡게 되면서 정든 기

중기에서 내려오게 된것이다.

부재직장은 혜순이의 마음속에 못 잇을 인연이 맺어진 곳이다. 바로 아버지가 직장장으로 일한 곳이며 운명의 마지막달까지 여기서 일했던것이다. 넓으나넓은 간석지판이며 뻗어나가는 제방을 한눈에 굽어보던 혜순이가 문자 그대로 눈코뜰 사이 없이 아름다운 계획과 항시적으로 부족되는 자재와 때로는 눈앞을 아득하게 하는 오작사고까지 나군 하는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래도 이를 사려물고 다우쳐대는 덕에 그럭저럭 과제도 수행하게 되고 사업의 묘리도 터득하여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는 평판도 듣게 됐는데 오늘은 사업작품이 거칠다는 비판을 받은것이다. 펍 오래전 일이지만 한창 책가방을 메고 뛰놀던 시절에 혜순이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아버지의 일터에 갔던 적이 있었다. 그날은 때마침 어머니가 속한 《가족지원대》가 현장에 가는 날이었다. 제방 양쪽에 장식쌓기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가족지원대》를 떠들썩하며 반겨맞았다.

오랜만에 귀염둥이의동딸을 보게 된 아버지는 구레나룻이 꺼칠한 얼굴에 웃음을 담고 혜순이를 답속 안아들었다. 아버지는 《간석지건설자를 뒤개 분대썰은 낱아야겠는데...》하고 노상 입버릇처럼 외우곤 하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동생이 안생기는 집안에서 혜순이는 공주처럼 떠받들려 자랐다. 《우리 <꽃순>이가 왔구나. 어디, 그래 아빠가 보고싶었니?》 혜순이라는 이름대신 《꽃순》이라는 애칭을 즐겨 부르며 불을 부비는 아버지의 꼭꼭 찌르는 수염이 싫어 어린 딸은 몸을 꼬면서도 고개를 까닥거렸다.

정말이지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모른다.

제방이 전진할수록 출퇴근거리는 멀어져 아예 현장에서 침식을 이어가면서 가물에 비꼬치 떨어지듯 어찌다 집에 들리는 때조차 자기가 굳잠에 빠진 재발중이였고 어둑새벽이면 서둘러 떠나곤 하여 어찌 보면 서먹서먹하기까지 한 아버지다.

그런 날 아침이면 어머니가 넓고 해어진 아버지의 작업복빨래를 행구는것을 보고서야 엄마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며 《엄마, 아버지 왔됐나요?》 하고 묻곤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면서 어린 딸의 랑볼에 하얀 비누거품을 살짝 묻혀놓곤 했다.

그런 아버지가 그날엔 엄마의 만류도 뿌리치고 어린 딸을 안아드채 부득부득 아찔하게 높은 기중기사다리를 톱아올랐다.

거창한 간석지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기중기운전칸에 들어선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딸의 불에 《쩍》 하고 입부터 맷취주었다.

하지만 어린 딸은 아버지의 애무에는 아랑곳 않고 열빠진듯 부산스럽게 눈길을 옮겨갔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

혼석을 가득 싣고 줄지어 달려가는 대형화물차들의 행렬, 산더미처럼 쌓인 박토를 밀어 부글부글 끓는듯한 바다물에 처넣는 불도젤의 용쓰는 소리.

퍼그나 자그마하게 안겨오는 사람들의 움직임 ...

지상에서는 미처 느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새라새로운것이 꼬리를 물고 연방 안겨왔다.

《혜순아, 우리 <갈도>에 갈가?》 아버지는 경황 없는 딸의 시선을 수평선가까이에 솟은 자그마한 섬으로 집중시켰다. 혜순이는 두눈을 반짝이며 아찔하게 높은곳에 오른 무섭중도 있고 《갈도》와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저긴 언제 가나요?》 《인차 가게 되지. 우리 <꽃순>이가 이만큼 커서(아버지는 딸의 머리 썸웃쪽에 팔을 껴서 가리켜보였다.) 중학교에 다니게 되면 간다. 그땐 우리 집두 저기 <갈도>에 이사를 가지. 어때, 좋지?》 딸은 짹자궁 했다. 《야, 좋다 그럼 아버지 매일 집에 오지요?》 《그럼, 그렇지 않구. 그때가면 여기는 온통 간석지논벌이 펼쳐지게 되구 벼바다가 춤을 추게 될게다.》 아버지는 하얗게 소금꽃이 핀 간석지판을 빙 둘러 가리켜보이고는 딸을 번쩍 추켜들고 호탕하게 웃었다. 아득한 밑에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조마조마해서 지켜보던 어머니와 《가족지원대》도 영문을 모르고 와 따라 웃어제졌다. 행복한 추억의 한토막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 없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때는 혜순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다.

《갈도》 간석지 제방공사의 제일 어려운 구간이었던 6호제방의 《합지골》 물끓을 단숨에 막아치울 거창한 준비로 들끓던 때였다. 기업소에서는 류달리 세찬 물살과 높은 수압, 깊은 물끓을 단시일에 극복하기 위해 오랜 경험과 높은 기능을 가진 기술자, 노동자들로 돌격대를 꾸었다.

그런데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연유사정이 긴장해지고 동력과 식량난이 겹쌓여들었다. 부재를 싣고 달리던 중량차들과 배들이 몇어섰다. 혜순이의 동경의 대상이던 기중기도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러던 어느날 수십년래에 처음 보는 해일이 덮쳐들어 공사장을 무자비하게 휩쓸어버렸다. 재해중에서도 제일 무섭다는 수재는 건설자들의 희망이 새겨져있고 땀이 스며여있는 제방과 《합지골》막이전투장을 흑심하게 파괴해버렸다. 건설자들의 결사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구간이 끊겨나갔고 타입중의 부재들이 깨어져 앙상한 철근골조가 드러났다. 아버지는 간고한 재해복구현장에서 아예 불박혀 살다 싶이 했다.

온 기업소가 떨쳐나 아버지네들이 새롭게 착안해낸 《합지골》수문공사를 지원하느라 언제 날이가고 달이 지나는지 몰랐다. 혜순이는 과외시간, 휴식날을 모두 제방복구장과 수문공사장에 나가

군 했다. 그러나 간석지공사는 이어지는 연료난, 동력난때문에 중시 중단 되었고 제방은 멈춰서게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뉘그러한 뒤말이 귀에 들려 온것이 그무렵이다.

부재직장장이 실성했는지 줄창 수문에 앉아 낚시질만한다는 소리였다. 이따금 집에 들어서는 아버지의 손에 망둥어 꿩미가 들려있을 때도 있었으며 낚색은 어둑컴컴하여 모녀를 놀래우곤 했다. 만약 그때 혜순이가 아버지의 마음속고충이나 육체를 파괴하는 병마에 대해 다문 얼마만큼이라도 알아차렸다면 얼마나 놀랐으랴...

아버지가 뜻밖에도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세월은 변함없이 흘러 그날의 단발머리소녀였던 혜순이가 미출한 처녀반장으로 자라났고 간석지건설은 다시 시작되어 까마득히 멀리 있던 《갈도》가 어느덧 지척으로 가까와졌다. 머지않아 특지의 품에 안긴 섬 아닌 《섬》으로 될것이다. 혜순이는 점도록 그린듯이 서서 용점의 섬광에 드러나곤 하는 기증기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추억하였다.

2

건설장의 밤은 정적을 모른다. 파도의 설레임 때문만이 아니다. 점점 가까와지는 두 제방의 끝머리에서 교대를 이어 벌어지는 전투의 소음때문이다. 용점을 끝낸 역철은 망치로 슬라크를 탕탕 두들겨버리고나서 빼근해진 허리를 늘구었다. 언제부터 별려오던 《해당화작업반》의 몰탈혼합기 설비개조를 오늘에야 끝낸 참이다. 계획수행총화 때마다 번번이 마지막순위를 차지한 탓에 머리를 못 들고 얼굴을 붉히던 혜순이의 모습이 가슴에 무직하게 엹혀있었는데 오늘에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개운해진듯 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간석지건설총국(당시)설계실에서 일하던 역철이가 현장에 달려나온지도 벌써 일곱해가 되어온다. 그동안 간석지건설이 외곽 추진되어 이제 는 마감막이를 눈앞에 두었다. 기업소 시공부원사업도 할래, 기술혁신사업도 도울래, 얼마전에 포치된 《마감막이설계현상응모》준비도 할래 몹시 드바뻐지만 오늘은 혜순이를 위해 잠을 좀 밀치기로 든든히 작정을 하고 툼툼이 손대오던 새 기재를 지금 막 완성한 참이다.

역철은 담배를 붙여물었다. 담배연기가 안개발파 어우러지면서 못 잇을 사람의 얼굴이 떠올려진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대학을 추천받은 역철이가 못 가겠다고 마감막이공사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겠다고 떼질할 때 밤새워 설복하던 구레나룻 짙은 직장장의 얼굴이다. 대학시절에 간석지건설이 중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밤새 고민에 잠겼을 때 받아들였던 직장장의 편지도 생각난다.

《...자네에게 건설장소식을 전하자니 괴롭구만.

1호부터 6호제방까지 모두 건설이 중단됐네.

나라가 겪는 어려움을 털어보자구 온 직장이가 떨쳐나서서 등짐을 지구 뛰고 달리면서 제방을 보수하고있네만 그러느라니 자연히 생각이 많아져서 자네에게 편지를 쓰고있어. 요즘은 밥을 씹어두 모래알을 깨무는것만같구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아. 어쩐지 나라앞에 큰 죄를 짓는것같단 말일세. 간석지건설에 평생을 바쳐오면서 일해온 나날을 돌이켜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살아온 그것이 오늘은 왜 이리도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것일까.

자네를 대학으루 떠나보내던 날 얼핏 이야기했지만 우린 계획을 미달한 날이면 연장작업으로 등짐을 저서라도 무조건 100프로. 아니 200프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하곤 했어. 그런 날이면 밤이 깊도록 노래를 부르구 춤도 추었지.

오늘에 와서 돌이켜보면 사실 그런 밤일수록 공부를 했어야 했던 말일세. 골을 싸매구 열백밤을 패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했는데 과학과 기술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것으로 생각하면서 과학과 기술이라는 시대적요구를 외면한탓에 얼마든지 더 빨리, 더 많이 할수있는것도 늦어지게 되었구 절약할수 있는 자재도 더 낭비한게 아닐가.

10년전이나 오늘이나 제방의 전진속도는 별루 큰 차이가 없네. 과학과 기술로 무장하지 않으면 남에게 뒤치게 되구 시대의 락오자가 되고만다는 생각이 가슴을 치기에 자네의 등을 대학으로 떠밀었네만 오늘 중지된 기업소건설장을 돌아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프구만. 부단히 새 기술, 새 공법을 탐구하구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우린 벌써 <갈도>간석지를 막아버렸을게 아닌가. ... 배우라구, 옛말에 할수 있는자보다 하려고 하는자 더 많이 한다는 말이 있질 않은가. 피를 태우구 뼈를 갈아서라도 새로운 첨단과학과 기술을 익혀야 해. 남들이 결을 때 우리는 뛰어야 하구 남들이 뛰면 우리는 천리마를 타야 한다는건 이미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가 아닌가....

역철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간석지건설사업소에 갓 배치받은 날 처음 만난 직장장은 한눈을 찌긔해보이며 《이녀석 우리 아들이라면 좋겠다》했다. 며칠이 지나 그를 찾은 직장장은 대뜸 《이녀석, 대학추천 받은걸 마다하구 여기 왔다면서》하고 거칠게 올려메듯 따져물었다. 그렇다는 역철의 대답에 《배우지 않겠다는건 바보들의짓이야》하는 투박한 말 한마디를 툭 던지고 쓴오이보듯 외면하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추억에 잠겼던 역철의 눈길은 우중충 어둑속에 솟은 기증기에 멎었다. 운전실과 기증기팔끝에서 작업등이 밤바람결에 흔들린다. 그러자 흰한 얼굴에 코날이 상큼하니 솟은 처녀의 모습이 직장장의 모습을 지우며 슬며시 떠오른다. 한창 로동

의 첫걸음마를 익히던 시절 드문히 아버지를 찾아 현장에 나타나곤 하던 단발머리소녀, 월계획을 넘쳐수행한 날이면 뿌려지는 꽃보라와 오색테프속에 소년단원타이를 팔랑거리며 선창 달려와 꽃뭉음을 안겨주곤 하던 직장장의 외동딸이 지금은 어엿한 《해당화작업반》반장이 되었다.

처녀로 숙성한 혜순이를 다시 알아보았던 그날의 광경이 다시금 떠오른다.

중단되었던 제방공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은 건설자들뿐만이 아니라 국설제설에 불박혀 기술자료와 씨름질하던 역철이까지 단숨에 현장으로 달려나가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미 고인이 된 옛 직장장의 기대와 희망을 언제든 기어이 자기의 손으로 실현하고야말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품고있던 역철임에랴... 일시 조성되었던 어려움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건설장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사납게 날뛰는 파도가 동강난 제방의 파공을 제멋대로 넘나들며 갈기를 일으키고 포말을 쭈뽀렸다.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6호제방과 4호제방의 분기점에 모여들었다. 새 전투의 시작을 선포하는 절기모임이었다. 운집한 군중의 기쁨과 흥분은 말이나 글로써 형용하지어려운것이였다.

힘찬 구호들이 연방 터져나왔고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박수갈채도 아낌없이 일으켰다. 어떤 노동자들의 얼굴은 온통 눈물에 젖어 번들거렸다.

많은 녀성들이 흐느껴울었다. 이 땅을 휩쓴 가지가지의 고난과 시련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이 나라 녀인들의 마음에 보다 큰 상처를 입혀놓은 때문이라랴. 얼마나 커다란 공지와 영예가 여기 건설장에서 얻겨 소용돌이쳤던가.

이 땅에 벼바다 물결치는 논벌을 펼쳐놓고야말겠다는 열망이 모든 노동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불태웠다.

그런데 모임이 끝날무렵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군중속에서 한 처녀가 뛰어나와 쏜살같이 어디론가 달려가는것이였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돌발적인 처녀의 모습을 띠어보았을따름이였다.

역철이 역시 그 처녀가 모임장소 한켠구석에 서있는 기증기의 사다리를 탕탕 툴아오르는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있은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결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결에 들려왔다.

《저게 4분사업소 부재직장장의 딸이 아니요?!》

《하루가 멀다하게 숨죽은 기증기 주변을 맴돌더니 오늘은 왜 저런다요? 혹시 실성한게 아니요?》 그제서야 역철은 정신없이 기증기로 뛰어오르는 처녀가 어제 날의 단발머리소녀, 옛 직장장의 딸임을 알아차렸다.

기증기로 오르는 처녀의 모습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의문을 자아냈다. 도대체 영문을 알수 없는 불가사의한 행동이였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희열에 들떠있는 이때에 저 처녀는

제방쪽에 외롭게 솟은 기증기로 올라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것인가. 군중의 놀라운 눈길을 모은것은 혜순이가 기증기운전실로가 아니라 바다바람에 흔들리는 기증기팔끝으로 돌진하듯 기어나가기 시작한 그무렵이였다. 오늘의 경사가 저 처녀를 정말로 실성하게 만든게 아닌가싶은 전율이 사람들의 마음을 집게처럼 조여들었다. 하필 실성했다 하더라도 기증기의 팔끝으로 기어나갈만큼 실성할건 또 뭐란 말인가. 이제는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체 군중들과 지어는 주석단에 점잖게 서있던 일군들의 시선까지도 처녀에게로 집중되였다.

못사람이 손에 땀을 쥐었다. 이제는 구원대책을 세우재도 늦었고 소리쳐불러 내리재도 늦은 때였다. 그런데... 그런데 발뼘발뼘 기증기팔끝에 다달은 혜순이의 행동이 또 한번 사람들을 크게 놀래웠다. 처녀가 기증기팔의 철끝에 의지해서 엉성하게 자리잡은 까치둥지를 와락와락 헐어버리는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머리위로 삭정이가지들이며 새털몽치들이 너울너울 훑날려내렸다. 이의의있는 날에 이제날의 기증기운전공처녀 혜순이의 눈에 비쳐든 까치둥지야말로 숨죽은 건설장과 더불어 해를 두고 모진 아픔을 준 상징이였으리라. 어려운 그 나날들에 우짚던 까치소리는 아무런 새 소식도 안겨주지 못했고 태풍과 해일에 뭉청 끊기우고 터져나간 제방을 구원해주지도 못한것이다. 힘찬 전동기의 소음과 신호공의 호각소리, 신호기발에 따라 큼직한 부채를 척척 맞물려 쌓으며 전진하던 기증기팔끝에 자리잡은 까치둥지는 숨죽은 사업소의 축소판이였다.

아마도 할수만 있다면 처녀는 기증기팔끝에 우뚝 일어서서 두팔을 번쩍 쳐들고 목메인 소리로 《만세!》를 웨치고싶었으리라. ... 그때부터였던지 처녀의 모습은 옛 직장장의 모습과 함께 역철의 마음속에 강렬히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남달리 승벽이 세고 일욕심이 많으면서도 마음이 곧고 진실한 《해당화작업반》반장인 혜순이가 역철이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3

8월의 폭양이 사정없이 내려쬐인다. 백사장이고 감탕판이고 온통 화끈한 열기로 따갑게 달아올랐다. 기습의 해당화잎새며 잡관목들마저 생기없는 잎사귀들을 축 늘어뜨린채 까막앓고 지지는 듯 내려쬐는 해벌에 몸을 맡겨버렸다.

쉴줄 모르는 바다만이 《좌- 처절썩》하고 파도를 기습에 밀어붙이며 시원한 자연의 노래를 읊조리고있다.

때로 격랑을 일으켜 장엄한 음악의 최고음부를 연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든 아기의 고운 꿈을 지켜선 엄마의 자장가와도 같이 부드럽고 살뜰한

최저음부를 노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간석지건설자들은 일년 사계절 눈비속을 헤치고 지지는듯한 피악별을 이겨내며 수수천만년을 전해져오는 자연의 노래를 창조의 서사시로 바꾸어간다. 이 행성의 근 70프로의 면적에 군림하면서 온갖 전형을 일삼는 바다의 불가항력적인 힘과 용감하게 맞서 조국의 대지를 넓히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간다. 그것은 대자연개조의 거창한 화폭이다. 그것은 만물의 령장인 인간의 위대함을 격조높이 구가하는 건설자들의 삶과 투쟁의 서사시이다. 그것은 자연과의 처절한 싸움인 동시에 온갖 보수적인것과 나약성, 비겁성과의 피어린 투쟁과정이다.

사업소의 어느 부문이나 마감막이가 가까와오면서 드바쁜 형편이었지만 부채직장이야말로 엄청나게 밀린 계획으로 해서 경황이 없었다. 혜순이는 엿저녁에 머리속에 굳힌 계획대로 작업조구성을 다시 하자마자 이른새벽 조기작업부터 강도를 높였다. 모래와 자갈, 세멘트를 운반하는 조부터 몰탈다짐조의 마감공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작업반의 동무들이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불어오는 열풍과 작업열로 하여 누구라할것없이 모두가 땀발에 뻘다. 지척의 백사장이며 부두가에서 곤두박질하는 파도소리가 연방 귀전을 울리며 유혹하고있지만 오전과제를 끝내기 전에는 누구도 랑만적인 해수욕에 대한 갈망을 잊어야 했다. 뿔뿔 창공을 날아예다가는 먹이를 발견한듯 출렁이는 수면을 향해 살같이 내려쫓혔다가 슬쩍 파도를 차고 다시금 창공으로 유유히 솟구치는 갈매기들과 이따금 튀어올랐다가 《철새》하고 바다물에 떨어지기를 거듭하며 장난질에 흥이난 승어들의 곤두박질이 눈에 뜨인다.

과제를 수행한 뒤라야 와- 달러가 안길수 있는 바다, 《감시병》을 든든히 세워놓고 머리수건을 잡으면 금시 파아란 물이 들듯싶은 그 품에 풍덩 풍덩 뛰어들어 깔깔거리면서 물장구를 칠 때의 그 상쾌함, 더우기 너성이라는 체질적인 특성때문인지 처녀들은 류달리 물을 즐긴다. 하지만 지금은 중낮이 좀 못미친 전투의 한창때다.

남달리 일손이 켜 혜순이는 선참으로 제일 힘든 골재운반을 해제끼고니서 사공부원과 동행하여 선행한 부채들에 대한 검사에 참가하였다.

매주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일종의 시험이다. 제아무리 과제를 200프로로 하고 그이상을 제친다고 해도 오작품이 생기는 날이면 작업실적의 높고낮음은 벌써 후차다. 술한 자재와 로력, 시간이 랑비될뿐더러 재시공이 제기되기때문이다.

의외에도 오늘 부채검사에는 건설장의 입젠 처녀들의 《입새질》에 자주 오르는 이목구비가 그쫘하고 점잖은 총각부원 역철이가 나왔다.

사실 혜순이는 역철이에 대해 시답지 않은 감정과 지어 언짢은 생각까지 가지고있는터였다.

처녀들의 호감을 사기에는 충분할만큼 준수한

외모에 좀 예리할사한 눈빛과 큼직한 주먹코에다 대학졸업생이고 총국설계실 설계원의 경력까지 합치면 괜찮은 표징이지만 혜순이가 윈눈으로도 돌아보지 않을 리유가 있다. 우선 일터에서 우연히 귀결에 들은 《전도유망한 젊은이》라든가, 《현실체험이나 끝나면 이런 감탕관에 박혀있을리 없다.》는 소리도 있거니와 《거 미끈한 멧쟁이부원이 반장언니를 보는 눈치가 좀 이상해요.》하고 종알종알 불어넣는 처녀애들의 고자질을 여러차례 들은 다음부터 더했다. 혜순이의 나이도 작지는 않지만 구태여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따져볼것 같으면 우선 근면하고 성실하며 억센 남자여야 했고 보다는 한생을 간석지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할 사람이여야 했다. 혜순이도 처녀이건대 좀생각해본바이지만(하기는 어느 처녀인들 자기의 배우자에 대한 리상이 없으랴.) 역철이는 애초에 자기의 대상자가 될수 없는 《멧쟁이 대학졸업생》이었고 보나마나 실적이나 올리고 경력이나 갖추면 훌 떠나버릴 《철새》부류에 속했다. 솔직한 말로 혜순이가 역철이에 대해 못마땅한 감정을 가지게 된것은 지난해부터였다. 작업교대를 마치고 기중기에서 내려서면서 보니 신수멀끔한 청년이 시선을 피하면서 무척 당황해하는 모양이 눈에 띄우는것이였다.

그러다가 남몰래 처녀의 모습을 훑쳐본 계면적을 얼버무릴 심산이였는지 《저 처녀동문 꼭 닮시군 같더구만. 부채를 물어올릴 땐 신통하거던.》하고 객적인 소리를 한마디 하는것이였다.

그의 《닦시군》이라는 비유에 발끈 약이 오른 혜순이는 맵짜게 쏘아붙였다. 《별 싱거운 사람다 보겠네. 아니 내가 닦시질을 하든 샷대질을 하든 거기서 무슨 상관 있어요.》 그리고는 핵돌아서서 휴게실로 향했는데 그후로부터는 우연히 먼발치에서 역철이를 보기만 해도 뺨기를 풍기군했다. 그런데 부채직장에 옮겨와 반장이 되면서부터는 어쩔수없이 사업상 필요로 서로 종종 마주하게 되는 회수가 잦아지는것을 피할수 없었고 아무리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때로 역철이의 조언과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될 때도 드문했다. 더우기 반장이 시공부원의 부채검사를 외면할수는 없다. 혜순이는 불편으로 흐르는 땀방울을 연방 닦아내면서 세상에는 공교로운 일도 많다고 속으로 꾸념하며 역철이의 뒤를 따랐다.

부채직장의 반장치고 누구든 시공부원과의 관계를 나쁘게 가지려 들지 않는다.

휴식일이나 명절날에 조직되는 바다야유회때도 초청되는 시공부원은 의례히 찍어놓은 상좌에 의젓하게 틀고앉는다. 그렇다고 하여 불량부재가 무난하게 통과되는 폐단은 없지만 《합격》, 《불합격》의 권한을 가진 이들과 사이가 틀리거나 뺨뺨하게 지내서 리득날것은 없다는 공통심리때문 일것이다.

글쎄 돌아가는 여론에 의하면 역철이가 어느

시공부원들처럼 《원칙》이라는 자막대기를 만능처럼 휘두르면서 《합격》, 《불합격》의 선고만을 내리는 벽돌장같은 인간이 아니라 현장에 자주 내려와 요긴한 조언도 주고 일손도 걸싸게 거들어준다고 한다. 오늘날 해도 억척이가 오전 일찌기 작업장에 나타나 처녀들과 톱날도 주고받으며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면서 꾸역꾸역 거친 몰탈을 연방 토해내는 혼합기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다가는 그 무엇인가를 수첩에 적어넣곤 하는 모습을 보고있는 혜순이다. 지금 검사를 하는 억척이는 《금주, 금연가》로 온 건설장에 공인된 사람이다. 《해당화작업반》에 은근히 원심을 써준다는 소문도 있고 입빠른 처녀애들속에서는 그를 두고 《혹시 우리 반장언니를 맘에 두고있는게 안야?》하고 뒤에서 소곤거린다는것도 어지간히 알고있는 혜순이로서 낮추 불고싶은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었다. 1번부재부터 시작된 검사가 17번에 이르렀을 때 억척이의 걸음이 푹 멎어섰다. 혜순이는 불안한 예감에 억척이의 얼굴부터 바라보았다. 시커먼 눈섭사이에 《내천》자가 뚜렷이 새겨진것이 마음을 조이게 했다.

벌써 조짐이 심상치 않다. 글썽 녀살종은 다른 반장들 같으면 벌써 반죽종게 이야기라도 늘어놓았겠지만 혜순이는 두눈만 동그랗게 뗴을뿐이다. 《반장동무, 이쪽 휘틀을 떼시오.》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가 울렸다.

혜순이는 말없이 고정뎀을 뿜고 지레대를 들이댔다. 《철써덕》 휘틀관이 벗겨져내렸다.

모습을 드러낸 부재표면의 여기저기에 손바닥만큼씩한 기포집들이 대번에 눈을 자극한다.

일손을 멈춘 처녀들이 슬금슬금 모여들었다.

《어마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발 <불합격>만 되지 않았으면...》 시공부원이 좀 에누리해주었으면 하는 눈치가 험등하게 알리는 속삭임소리들이 등뒤에서 들려왔다. 억척이는 묵묵히손에 늘 들고다니는 맵시있는 망치로 표면에 로출된 철근을 탕탕 두드렸다. 처음엔 자갈 몇개가 툭툭 떨어져내리더니 뒤미처 와르르 하고 깊숙한 파공을 남기며 혼석이 무너져내렸다.

《불합격.》 억척이의 침중한 목소리가 혜순의 귀청을 두드렸다. 이어 하얀 백목이 부재표면에 《X》자를 그려놓았다. 《반장동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생각해봤소?》 《...》

《혼합기의 회전속도와 날개의 경사각 그리고 다짐봉의 능력이 모자라기때문이에요. 조금만 머리를 쓰고 기술혁신을 하면 얼마든지 해결될수 있는 문제인데 무엇때문에 아직도 이전의 낡은 방법에 매달려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

혜순의 귀에는 억척의 설명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았다. (흥, 말이야 쉽지. 기술혁신?! 이제 그러다가 언젠가처럼 《원시적》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나보지...) 무슨 말인가 더할듯 하다가 그만두는 억척이의 망치권 손을 지켜보는 혜순이는 분

이 치밀어올라 숨결까지 가빠졌다. 《옥경이, 함마 가져와!》 혜순이의 맵짠 목소리가 짱 울렸다.

몰려섰던 처녀들의 어깨가 축 처져내리고 이를 못할 시선들이 엇갈리는 속에 혜순이는 거친 작품의 비난자인 소꿉동무 숙희의 주의깊은 눈길을 외면했다. 어디선가 시진한 매미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쵩, 쵩... 혜순은 이를 사려물고 함마를 휘돌렸다.

콩알같은 땀방울이 랑편볼로 주룩주룩 구은다.

불과 몇대안팎에 부재는 부셔져내렸다.

다짐작업을 어설피게 한데다가 양생기일도 안된것이니 쉽사리 깨어져나갈수밖에 없다. 드디어 함마를 내동댕이친 혜순은 땀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뺨 쓸어넘기면서 울상이 된 옥경이네 조를 짚 흘려보았다. 《흥, 그래도 <청춘은 빛나라> 구...》 이 소리는 부재결면에 썩여졌던 글을 두고하는 소리다. 언제부터인지 딱히 알수 없는 일이지만 부재공들은 누구나 자기가 타입한 부재마다 꼭꼭 글발을 남기곤 한다. 다짐작업이 끝난 뒤엔 미장칼로 매끈하게 다림발을 세우고 자기의 희망과 궁지, 보람과 영예를 한 단어 또는 한문장씩 뿜을 부러 휘갈려 쓰는것이다. 때로 제 이름이나 날자, 작업반명칭까지 꼭꼭 박아쓰는 때도 있다.

《조국은 우리를 기억하리라》, 《청춘을 바치자 어머니조국에》라든가 《오늘 경쟁총화에서의 우승을 기념하여》하는 등의 그러루한 글줄이 제방을 이루는 매개의 부재마다 빠짐없이 적혀있다.

개중에는 감탕속에 또는 제방속에 영원히 묻혀버리는것도 있고 또는 제방가덕에 가지런히 쌓여있는것도 있어 그우를 걷느라만 거기에 썩여진 글줄을 읽어보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생각이 많아진다. 그때문이랄가, 혜순은 부재의 질보장에 대한 요구성이 지나치달만큼 높았다. 작업의 강도도 강도려니와 모든 작업공정을 잔잔히 따지고 들었으며 조기작업이나 야간전투는 물론 반복시공도 주저없이 요구해왔다. 어제는 아버지의 세대가, 오늘은 그 자손들이 넓혀가는 이 땅에 절대로 흠이 있고 불량한 창조물이 단 한점도 있어서는 안되며 절대로 타협할수 없다는것이 혜순이의 결심이고 주장이다. 사업작품이 나쁜것은 비판을 받고 고칠수 있다 해도 일단 쌓은 창조물은 영원히 남아있기때문이다. 혜순이의 야무진 눈총을 맞은 옥경이네 작업조가 고개를 움츠렸다.

불합격품을 낸 조다. 성미가 찬찬하지 못하고 덜렁거리길 좋아하는 조장의 품에 놀아나 잡담질이나 하고 웃고 떠들어대는 사이에 작업공정을 설쳤을것이다.

《... 서해가 땅속음작용을 받아 해마다 바닥이 2센치씩 높아진다는거야. 그러구 서해로 흘러드는 큰 강줄기가 압록강, 대동강을 비롯해서 10개가 넘는데 해마다 이 강물들이 날라내리는 자갈, 모래가 얼마나 많아? 자그만치 18억내지 20억립

방이야. 그러니까 이제 10년만 지나고보면...》하는 따위의 말잡담질을 작업도중에 한보따리 펼쳐놓았다가 혜순에게 걸려들어 줄경을 치른것만도 몇번은 잘된다. 그러면서도 좀처럼 고치지를 못한다. 세상에 어디에 품들이지 않고 저절로 되는 일이 있단 말인가. 반장인 자기가 눈을 똑바로 밝히고 땀을 돌리게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고도 미연에 막을수 있었을것이다. 혜순은 아무리 타산해도 야간작업으로 재시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작업시작!》하고 구령을 쳤다.

문득 사려깊은 억척이의 시선이 자기에게서 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을 감촉하자 왜서인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보겠으면 보라지....)

4

사업총화는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끝났다.

요사이 마감막이가 눈앞에 박두한때문인지 단위책임자들뿐만이 아니라 반장들까지 말짱 사업소회의실에 불러들여 기사장앞에서 그날 과제수행정형을 건당으로 따져가며 총화받는다. 오늘 혜순이는 속이 한줄만 해서 회의장에 앉았다.

오작사고때문이다. 회의장은 콤팩등불빛에 밝았지만 고개를 떨구고 손수건을 꼬집거리는 혜순이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었다. 총화가 시작되자 주석단에 덜썩 나앉은 기사장이 장내를 둘러보며 물었다. 《부제직장장동무! 거 <해당화>반장이 왔소?》

기사장의 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다. 《예...》혜순은 술한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다. 당장 상큼한 코등에 뽀지지 땀발이 섰다. (보나마나 그 일때문이야.) 각오는 하고있었지만 정작 널다란 회의실에 홀로 서고보니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괜찮아, 음...》의외에도 기사장의 목소리며 눈빛이 일껏 부드럽다. 아버지가 뜻밖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틈만 있으면 잊지 않고 자별하게 마음써주는 그였다. 《좀 들어들 보시오.》

기사장은 좌중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말했다.

《동무들도 모두 한번씩 시간을 내서 저 <해당화작업반>에 가보는게 좋겠소. 나 어린 처녀들이 정말 용커던. 응, 장하단 말ियो. 나부터두 말이지 계획, 계획하면서 발잔등에 불이 떨어졌다구우는 소리만 했는데 그새 우리 해당화들이 기적을 창조했던 말ियो. 기적을, 혼합기두 손색없이 개조하구 새로운 다짐봉도 만들어냈소.

내 시공과 동무들한테서 듣자니까 하루계획 120프로는 문제없이 노래하면서 제낄수 있다오. 20프로증산이요. 이게 어디요. 남자들도 힘에 부쳐하는 작업을 하면서두 그속에서 이악하게 달라붙어 기술혁신을 한다는게 말이 쉽지 어디 보통 문제요? 과학기술이자 실적이고 애국이라는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줄 아는 저 동무들한테서 모두 배워야겠소. 20년, 30년을 현장에서 일한다는 자랑과 긍지도 좋지만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선군시대의 요구를 이 심장으로 받드는 그 정신을 배워야했던 말ियो...》혜순은 어리둥절해졌다. 아니, 당황해었다. 분명히 오해였다. 세상에 이런 생소리를 제팔자랑하듯 하는 저 기사장의 머리가 혹시 잘못된게 아닐가 하는 억측까지 생겼다. 빨리 시정하고 바로잡지못하면 온 사업소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것은 물론이고 괜히 걸죽한 룡담이라도 한마디씩 시부령거려보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심검둥이들의 놀림가마리가 될것은 뻔했다.

혜순은 어느사이에 모임이 결속되었는지 몰랐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축하와 칭찬에 웅색해질대로 웅색해진 혜순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어디에 건사했으면 좋을지 몰라 서둘러 기사장을 찾아 허둥지둥 나가는데 이번에는 남의 속도 모르는 직장장이 팔굽을 잡으며 떠들썩 물어댔다.

《혜순반장, 이거 어떻게 된 감투끈이요? 처녀들이 그 희한한걸 정말루 만들어내긴 만들어냈소? 거 나부터 좀 보자구.》《야 참, 직장장동진 제발 좀 가만 계세요.》혜순은 진땀을 빼며 복도에서 겨우 기사장을 따라잡을수 있었다.

그가 입도 떼기 전에 얼굴에 한가득 웃음을 띄운 기사장이 《음, 혜순이가 정말 수고했다. 내 우리 꽃순이가 이렇게 컸는줄 여태 몰랐거든. 기술혁신에 시공부원 총각까지 나꾸어채면 더 좋지. 보배덩인데 뭘. 이번 사업총화는 너희네 작업반 현장에서 새루 만들어낸 기제들을 쫓 펼쳐놓구 단수있게 하기루 당위원회와 합의봤다.

그래 시운전은 언제쯤 하려느냐?》들을수록 어이없고 기가 막힌 소리만 하는 기사장이다.

《아니 ...기사장동지, 이건 도대체 뭐예요?》

억이 막혀 미처 말을 잊지 못하는 혜순이의 어깨를 자심하게 두드려주며 기사장은 다 알만 하다는듯 한 표정을 짓다가 문득 정신을 차린듯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크, 이게 협의회시간이 다 되였구나. 내뼌을 봐서 꼭 나가겠다. 어디 도무지 몸뻔 시간이 없구나.》

기사장은 성급하게 사업노트를 흔들며 뛰어갔다.

혜순은 자기의 팔꿈치를 꼬집어보았다. (아무리 헛갈렸기로써 이럴수까지야 있는가.) 자기네 일터에서 기술혁신이요 창의고안이라니 들을수록 어이없어진다. 그렇다면?! 혜순은 맥락없는 생각과 추측을 굴러보며 청사현관을 서성거렸으나 어찌된셈인지 회의는 좀처럼 끝날줄을 모른다.

하기야 술한 사람들앞에서 공포된 문제인데다가 지금쯤은 온 사업소에 소문이 짜하니 퍼졌을

텐데 손바닥뒤집듯 바로 잡기는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순은 터벅터벅 발길을 돌려 작업반으로 향했다. 원래 승벽이 센 옥경이네가 이 밤을 그냥 넘기지는 않을것이다 마음이 어수선하다나니 늘쌉 다니던 길이전만 벌스레 돌부리를 자꾸 찬다.

(도대체 이런 생똥같은 소리는 어디서 나와가 지구 기사장동지 귀에까지 들어갔담?)

밤하늘을 쪽 가르며 혜성이 눈부시게 빛났다. 점점 가까워지는 작업장의 정경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여느때없이 야외등이 여러개씩이나 켜진것이다. 어둠속으로 귀따갑게 재잘거리는 동무들의 목소리와 이따금 남자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혜순은 발뼘발뼘 현장을 넘겨다보았다.

순간 혜순의 눈이 커졌다. 언제든 스위치만 넣으면 아츠러운 소리를 내지르곤 하던 몰탈혼합기가 이밤엔 무슨 조화가 들었는지 수직수직 순한 소리를 내며 아구리가 미여지게 혼합물을 뿜아낸다. 작업반의 처녀들이 몽땅 떨쳐나온듯싶은데 현장엔 온통 뛰고 달리는 사람들과 그림자로 뒤설레인다. 거기에 역철이며 기술혁신조청년들의 낯익은 얼굴도 섞여돌아간다. 한개뿐만이 아니라 다섯개씩이나 되게 설치한 휘틀결에서는 두세명의 처녀들이 무엇인가를 술술 드다루는 모양이 의문을 자아냈다. 예전대로라면 한개 휘틀에만 해도 다섯명 이상의 로력이 뺄 둘러서서 절구질하듯 팔이 떨어져나갈지경으로 다짐봉을 내리쥘어도 모자랐을텐데... 혜순은 저도 모르게 작업장으로 들어섰다. 《반장언니, 인제야 와요?》

언제보나 불임새 좋은 옥경이가 어느결에 알아보며 선잠 반겼다. 《글쎄 시공부원동지가 무얼 가져왔나 좀 봐요. 이제서 춤을 추면서 일하게 됐지 뭐예요.》 그리고는 손뼉을 짹 짹 치며 웃어제킨다. 《하, 이거 주인도 없는데 일판을 벌려놔서 안됐소.》 곁에 다가온 역철이가 시뭇이 웃으며 하는 말이다. 혜순은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고 나서 끌리듯 서둘러 다가들어 차림새가 달라진 혼합기를 세세히 뜯어보았다. 몸체에 두개의 가속치차를 새로 설치한 혼합기는 초당 회전수가 훨씬 높아졌고 조작하기 편리한 자동조종장치까지 뻗이있게 만들어져있었다. 꿈은 아니였다. 척보는 눈맛에도 혼합기의 작업량이라든가 몰탈의 질이 전에 비해 훨씬 좋아진것이 대뜸 안겨왔다. 특히 다짐봉의 작업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다. 보나마나 방금전 사업총화에서 기사장으로부터 난데없이 받은 칭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할수 있었다. 고마운 생각이 구름같이 피여오르는중에도 쾌심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영큼하다니까. 한번 의논을 하든지 하다못해 한마디 귀뜸이라두 하지 않구...)

혜순은 평소에도 결도 주지 않던 자기 결함은 뒤

전으로 밀어놓고 되려 역철이만을 고깝게 생각했다.

《고마워요, 부원동지. 그런데 난 이런것도 모르구 오늘 사업총화때 굉장한 칭찬만 받았군요.》

《원래 좋은 일은 남이 모르게 슬쩍 해놓아야 더 즐겁다고 했는데. 허허.》

역철은 게면쩍게 대꾸하며 제 뒤머리를 톡 쳤다.

《사실이야 우리 <해당화처녀>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자던건데 그만 오늘 기술혁신조사업을 돌아보려고 나왔던 기사장동지한테 들짱나고말았지요.》

에라. 그래서 반장동무의 승인없이 이름을 좀 팔았습니다.》 곁에 섰던 기술혁신조의 오동무가 병글거리며 주를 달았다. 《처녀들이 밤낮없이 뛰여다니는걸 뻔히 보면서두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는걸 우리 시공부원동무기 발기해서야 따라나섰지요. 반장동무, 이걸 만드느라 이 부원동무가 몇 밤을 지냈는지 아니까?...》 《여 오동무, 그만하라구. 이젠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비행길 태우면서 ...》 역철이가 주근주근 능청스럽게 주어섬기려 드는 친구의 잔등을 철썩 소리가 나게 갈겼다. 혜순은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 사의를 표했다. 그 사이에도 작업은 불이 번쩍나게 진행되고있었다. 《호-》 느닷없이 혜순의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좋고 훌륭한것을 자기는 왜 미리 생각해내지 못했을가 아니, 아마도 상상속에 그려보았다 쳐도 만들 엄두는 못냈을것이라고 생각하니 자신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역철이가 까마득히 높은 존재로 돋보여진때문이다. 혜순은 손을 씻고난 역철의 앞에 손수건을 내밀었다. 《어서 ...》 《...》

《부원동지, 작업반동무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구 뭐구 할게 있소. 다 우리 일인데. 아무튼 마감막이에 조금이라두 보람을 주게 되었으니 나도 기쁘구만.》

《참, 마감막이설계를 준비한다더군요.》

역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좀 새롭게 해보자구 하니까 역시 지식이 모자라누만. 날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력학 계산도 못끝냈으니 말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 한 발명을 하는건 아니예요?》

《아니, 그건 솔직히 말해서 내 설계가 아닙니까.》

역철이의 목소리에는 추억의 감정이 비끼었다.

《구태여 설명한다면 이미전에 우리 사업소의 한 일군에 의해서 착상되고 실천에 도입되었던것인데 지금에 와서 다만 약간의 전문기술지식이 필요될뿐입니다.》

혜순은 두손을 가슴노리에 모아쥐며 서둘러 물었다.

《아니, 그게 누군데 …》

《10년전에 그런분이 있었습시다.》

《예?! 10년전이라구요?》

그때라면 사업소가 해일피해를 입은 시기와 비슷한 때다. 마감막이가 아득한 래일의것으로 치부되고있을때 오늘을 설계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혜순을 무척 놀랍게 했다.

《말하자면 오늘날 나의 설계는 한 고귀한 인간에게 바치는 의리라고 생각하고있습시다.》

밤바다의 서늘하고 염기가 느껴지는 바람이 휘 - 불어왔다.

반짝이는 린광을 담아실고 파도가 이랑이랑 기슭으로 다가든다. 벌써 밀물이 가까이에 들어섰는지 갈게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소리가 들려오고 게구멍들은 꾸룩- 꾸르륵 소란한 물방귀를 뀌다.

《그런데 반장동문 위낙 그렇게 딱딱스러운가요? 성미가 보통아니텐데요.》

억철의 물음에 혜순은 소리없는 웃음을 머금었다. 보나마나 오전에 《불합격》 품부재를 선자리에서 들부셔버린 소행을 두고 하는 소리일것이다.

《아마 부원동지가 아니라 내 눈에 걸려들었다 해도 저는 부재를 깨버렸을겁니다. 그러구 우리의 창조물에 티없는 진심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과 건설장에 자기의 화려한 경력이나 갖추려고 찾아드는 <철새>들에 한해서만은 절대로 관대할 수가 없는걸요.》 억철은 꺾꺾 선웃음을 터쳤다.

《철새라?! 그것 참 비유가 좋구만. 한철 왔다가 날아가버린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보건대 반장동무부터 떠나는게 옳을것 같소.》

《내가 떠나다니요?》 혜순은 그만 얼떠름해졌다.

《난 계절조가 아니랍니다. 영원히!》

《아니, 내 말을 너무 노엽게 들진 말아주시오. 사실 반장동무가 공업대학이라도 다녔으면 해서 해본 소리요. 늘쌍 고정격식적인 방법으로만 일할수야 없지 않소. 노동자출신의 쟁쟁한 기술자, 발명가들이 얼마나 많소. 솔직히 말해서 노동자들이라구 높은 실력을 겸비한 학위학직의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친 억철은 손수건을 돌려주고나서 동무들과 함께 떠나갔다. 혜순은 그만 당장에 숨이가빠올랐다. 그러지 않아도 작업반에서는 매주 기술학습을 하고있다. 하지만 새 기술지식보급을 비롯한 기술학습은 형식뿐이고 당면한 과제수행에만 치중하다보니 발명에 대해서는 생각밖인것이다. 억철의 충고에 부인할수 없는 진심이 담겨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간 아픈 소리가 아니다.

혜순은 다시금 《호-》 하고 긴숨을 내뿜었다. 그리고나서 동무들이 오구작작 모여들어 기념수표를 남기는 부재로 다가갔다.

래일부터 계획실적을 부쩍 높이게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시공부원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면서 《…반장동무부터 떠나는게 옳을것 같소.》 라던 목소리가 되새겨지고 까닭없이 마음이 무거워났다.

5

휴식일을 리용하여 집에 갔던 혜순이는 아침 일찌기 현장으로 향했다. 자식이라곤 자기 혼자뿐이지만 뻔어나가는 제방과 함께 집이 멀어지니 합숙생활을 하게 되고 어찌다 맘을 크게 먹어야 어머니도 만나보게 된다. 반장이 돼서부터는 집에 들어갈 짬이 더욱 부족했다. 이번 걸음도 엇그제가 돌아간 아버지의 제사날이여서 품들여 시간을 내였다. 딸은 웅근자식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어머니 홀로 쓸쓸해하실것만 같아 들어갔었는데 아침의 일기예보가 혜순이의 걸음을 부리나게 현장으로 돌려세워다. 서해안에서 50센치이상의 해일이 예견되니 해당 부문에서는 대책을 세우라고 거듭 반복하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어런시절처럼 어머니의 부드러운 가슴에 얼굴을 묻고 늦잠들고싶은 욕망을 뒤로 밀어놓게했다.

간석지건설장에서 《해일경보》는 군대에서의 《폭풍》구령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세방길에 접어들자 벌써 음습한 바람이 느닷없이 불어치고 하늘에서는 잔뜩 배를 내민 매지구름이 금시 통채로 내려앉을듯 무겁게 엉켜온다. 이날따라 어찌된 셈판인지 지나가는 차가 한대도 없다. 손에 잡힐듯 뻔히 보이면서도 좀처럼 촉나지 않는 길이 제방길이다. 금시라도 세찬 해일이 들이닥치는것만 같아 마음이 조급해진 혜순은 걸음을 다우쳤다.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6호제방 중간이 좀 지나쳐서 솟은 수문이 서서히 가까와졌다. 가슴이 찌르르해진다. 금방 제사를 하고 나선 걸음이어서 그런지 절로 아버지생각이 떠오른다. 아버지! 그 어려운 날날에 아버지가 쓰러져 숨을 거둔 곳이 바로 저 6호제방수문이라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무심히 스쳐지나게 되지 않는 장소였다. 그때 자기는 아직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닐 때여서 구체적인 내막은 알수 없었지만 심장질환이 아버지를 쓰러뜨렸다고 한다. 덮쳐드는 해일로부터 제방과 수문을 구원하기 위한 필사적인 전투가 진행되었던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왔고 오늘은 다음 세대들이 진지를 차지한셈이다. 그리고 기어이 간석지를 기름진 옥토로 만들고야 말것이다.

두서없는 생각에 묻혀 걸음을 옮기던 혜순은 문득 수문앞에 한대의 트랙토르가 발동을 끄지

않은채 툭툭거리며 서있는 모양을 보고 서둘러 그리로 다가갔다. 주변에는 인적이기 없었다.

적재함에 넘쳐나게 실은 혼석과 몇가마니정도의 세멘트가 눈에 띄일뿐이다. 갑자기 아득한 수문밑에서 침범거리리는 인기적이 들렸다. 《누구에요?》 혜순은 허리를 굽혀 시누런 거품을 떠인 감탕물이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가는 아래컨을 향해 소리쳐 물었다. 누군가 세찬 물살에 무너져내린 수문기초의 날개를 다시 쌓는 뒤모습이 보인다. 《거기서 일하는게 누구예요?》 혜순은 재쳐 물었다.

《아, 거 반장동무가 아니요?!》

반갑게 응대하는 얼굴을 보니 뜻밖에도 억철이다.

공교롭기란, 무슨 인연인지 요즘은 자주 부닥치게 되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우는듯 한 야릇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한켠 반가왔다. 억철은 장식을 징징징징 밟으며 혜순을 향해 올라왔다.

《아니, 예서 뭘합니까? 혹시 또 남모르게 좋은 일을 슬쩍 해치우자는건 아니겠지요.》

《글쎄 이상하구만. 이런 때면 꼭 반장동무에게 걸려들게 되는게 참. 그건 그렇고 어떻게 벌써 나타났소. 아버지제사는...》

혜순은 조용한 제방길에 단 둘이 마주선것이 좀 어색해졌다.

《해일경보라는데 어디 집에 그냥 있을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내쳐 달려오는 길이에요.》

《원 걱정두, 하루 더 설겄 그랬소. 사업소가 펼쳐나서 잊겨너부터 비상전투를 벌려 벌써 대책을 든든히 세워놓았다오.》

《그래요. 난 또...》 듣던중 반가운 소리에 혜순은 한시름 놓이는것을 느꼈다.

《하여튼 일감을 보고 그냥 가자니 뭇하군요.》

혜순은 새로운 류행이라며 어머니가 굳이 신겨준 여름신을 벗어놓고 그우에 뽕가방을 얹어놓고 나서 수문으로 내려갔다. 《아니, 시공부원동지! 어서 내려올 생각은 았구 뭇하구 셤어요?》

수첩장에 뭔가 성급히 써넣던 억철은 혜순의 독촉에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혹시 오늘은 뛰어난 설계가 아니라 멋진 시상이라도 떠오른게 아니예요?》

《설계가들에게 있어서 시란 곧 새로운 기술적 착상이구 발명이라오.》

수압에 허물어진 수문기초들을 다시 쌓아올리면서 세멘트물탕을 이겨넣고 그뒤로 혼석을 다져넣는것은 손이 많이 가고 품이 퍼그나 드는 일이었다.

《큍 바쁠텐데, 마감막이설계는 완성했어?》

《바쁘게 난 좋구만. 사실 언제부터 여기에 한번 나와본다는것이 오늘에야 짬을 냈소. 참 묘한데 위치를 잡았거던. 볼수록 명당자리란 말이요.

저길 보오. 이쪽과 저쪽의 물굽이 제일 선참으로 여기서 마주 치게 되어있는 곳이면서도 조수의 압력관계를 잘 타산했다는게 한눈에 안겨오거던.

세운지 10년은 잘됐다는데 끄떡없지 았소.

당의 뜻을 받들어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이 땅에 억척같이 세워놓은 전 세대들의 창조물을 대할 때면 정말이지 머리가 숙어지오.》

억철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혜순은 생각에 잠겨 입술을 감뻘었다. 바로 이 수문을 아버지세대가 세운것이라는것을 그도 들어서 알고있는터였다. 을씨년스러운 날씨가 누기진 바람을 한아름씩 몰아왔으나 억철은 끄떡없이 벌디디고서서 계속했다.

《나에게 로동의 첫걸음을 떼여준 잊지 못할 사람이 말하기를 <수문은 제방에서 숨구멍이라고 말할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초병에 비길수도 있지. 보초병이 없는 초소나 숨구멍이 막힌 생명체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듯이 우리 간석지건설자들은 수문의 위치와 유용성에 대해 절대로 차요시해선 안돼.>라고 하던 말이 정말 잊혀지지 았소.》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았소. ...순직했소. 바로 이 수문에서 말이오.》

혜순의 속눈썹이 놀라움에 파들거렸다. (혹시? ...) 《난 그분한테서 내 조국, 내 땅을 무엇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웠다고 말할수 있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고 해도 변함없이 이어져야 할 조국애랄가...》 갑자기 억철은 혜순을 돌아보며 미소했다. 《가만, 아까 반장동문 날보구 시상이 떠올랐는가고 물었지요.

난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해보았소. 어떤 사람들은 이 바다기슭이 조국땅의 끝이라구 생각한단 말이요. 여기서 룽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니까. 그 반대일수도 있지. 그러니 우리들은 시작과 끝이 함께 있는 이 기슭을 떠옮기는 사람들, 말하자면 내 조국의 미래를 통채로 떠옮기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래 어떻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처럼 그저 힘내기로만 그걸 해낼수 있을가? 아니...》 억철은 힘있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점점 심취되고 끌려드는 자신을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어인 영문인지 자기가 점점 작아지는듯 한 느낌에서 벗어날수 없는 혜순이었다. 혜순은 《작은》사람들을 본적이 있다. 기증기운전실에서 내려다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작고 우습게 느껴지는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수 있다.

《사실 언제부터 반장동무를 만나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괜찮겠소?》 《조용히... 말이에요?》 갑자기 호흡이 급해지는것을 의식하며 혜순은 별로 심중해진 표정의 억철을 건너다보았다.

여전히 길게 누운 제방에는 그들 두사람뿐이었다. 혜순의 머리에 작업반처녀들이 《반장언니, 그 멧쟁이 시공부원의 눈치가 요즘 바짝 이상해져요.》 하고 외워바치던 일이 피곳 떠올랐다. 잊었던 처녀의 경계심이 밀물처럼 불어오르는것을 느끼며 마음을 도슬머먹은 혜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그저 얘기가 아니구... 제기라구 해야 할지.》

《말씀하세요. 접수할만 한것이면 접수해야지요.》

《반장동무. 동무네 작업반동무들말이요. 전부 대학생으루 만들면 어떨가?》 《네-에?》

혜순은 두눈을 치떴다. 그리고 억철의 부리부리한 눈빛을 마주보았다. 그러니까 조용히 제기할것이란 이것이였는가.

《호-》

한숨비슷한 긴 숨이 나갔다. 다행이다싶으면서도 어딘가 서운한듯 한 감정이 야릇하게 엇갈린다. 《대학생?...》 억철의 말을 따라외우자 기다렸던듯 8월의 폭양밑에서 땀으로 미역을 감으면서 노동시간의 1분1초를 뛰고 달리는 동무들의 모습이 선히 떠오른다. 그리고 총화때면 조목조목 따지고드는 계획지표들, 밤이면 호실에서 업어가도 모를지경으로 뿜아떨어지군 하는 처녀들의 모습도 떠오른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것 같아요. 글썽 마감막이나 끝낸 다음이면 또 몰라라...》

《반장동무!》

갑자기 격한 억철이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툭 끊어버리며 울렸다. 《언제인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소. 파도, 감탕, 장마비, 추위, 전투에 또 전투. 정말 눈코 뜰 사이도 없는데 공부가 다 뭐가구 말이요. 그런 나를 호되게 질책해준분이 누군줄 아오? 나의 직장장동지였소. <억철이, 한생을 로동계급으로 살겠다는 결심은 나도 반대 없어. 하지만 레일의 로동계급이 지식이 없다면 조국이 뒤걸음쳐. 대학공부를 하라는건이 직장장의 부탁이 아니라 조국의 명령이야, 명령! 자, 어서 떠나라구. 배움의 전장으루 어서.> 바로 이자리에서 해일피해를 가시구 새로운 수문을 건설하느라 단 한공수의 로력조차 살점처럼 귀중한 때 서슴없이 나의 등을 떠밀어주었소. 그때 그분의 딸은 아직 중학생이었소...》 들물의 첫머리가 수문을 들이받더니 이어 삼시간에 불어올라 격랑처럼 끓어번졌다.

아, 혜순은 손으로 입을 가리우면서 먼바다쪽으로 시선을 준 억철의 모습을 뚫어저쳐 바라보았다. 그러고보니 기미연가미연하면서 어딘가 낮익어보인다 했던 느낌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러니까 이 동문 어제가 우리 아버지

의 제사날이라는것까지 다 알고있었구나. 그런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두고 아까 뭐라고 말했다. 그렇지. 순직했다구 했던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망둥어뉘시질이나 하다가 겹쌀이는 난관앞에서 맥없이 쓰러진걸 모르고있는가부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에도 아버지를 지금처럼 존경할가...

생각은 파도의 멀기마냥 두서없이 형클어졌다.

정말 해일이 들이닥치려는지 검푸른 바다물이 움썹움썹 용을 쓰면서 불어오른다. 수문으로 《짜-와르르. 짜-》하고 거품을 펄펄 잡아두르며 바다물이 팔팔 용솟음쳤다. 들은 싸우고난 사람들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운전칸에 올랐다.

억철은 파속으로 차를 몰아갔다. 잠간사이에 부채직장으로 갈라져드는 길목에 혜순을 내려놓은 트랙또르는 몽몽한 연기를 뿜어대며 잔교방향으로 질주한다. 툭탕 툭탕 툭통툭통...

아마도 부두에서 전마선을 잡아타고 《갈도》로 건너갈 작정인듯 했다. 혜순은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사나운 파도를 헤가르며 힘차게 노를 저어나가는 억철이를 상상해 보았다.

파도가 연방 덮쳐든다. 배가 사나운 물끓에 휘말려든다. (아니야, 그 동문 기어이 건너가고야말거야.) 마치도 억철이에게만은 그 어떤 격랑도 헤쳐나갈수 있는 만능의 힘과 지혜가 있는듯이 믿고만싶어지는 자기를 발견한 혜순은 은연중 얼굴이 붉어졌다. 혹시 이것이 사랑은 아닐가. 오래전부터 친근한 사이로 지내온듯 믿고 의지하고싶어지는 이 마음이... 다시한번 잔교에 눈길을 주자 이번에는 《갈도》가 지척인듯 안겨든다. 《갈도!》 아버지가 어린 혜순이와 새끼손가락을 꼬부려 걸면서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곳이다. 그 약속을 지켜 오늘은 딸이 가게 되었다. 걸어서... 마중하는 두 제방사이에는 아직도 잊혀진 파도가 제멋대로 넘실댄다. 이제 머지 않아 거기서 거창한 마감막이전투가 벌어지게 될것이다, 혜순은 서둘러 작업장으로 향했다.

6

2005년 X월 X일 날씨: 개입

갑자기 마감막이용합형부채치기를 중지하라는 지령이 떨어졌다. 들끓던 작업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쉬쉬하면서 돌아가는 소리가 마감막이설계문제가 복잡하게 상정되어 국설체실에서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왜서인지 이 문제에 억철동무가 련관되었을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요즘은 일을 해도 꿈을 꾸어도 그에 대한것뿐이다.

내가 짝은 부채는 꼭 억철동무의 손에 가닿을 것이라고 믿게 되고 누가 열썬거리기만 해도 혹시 그가 아닌가싶어 눈길을 주게 된다. 요즘은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우리 작업장에는 얼굴도 안 보이는 그를 그러보곤 한다. 부채생산이 왜 중지됐는지 사연을 알고 싶어 기술혁신조에 찾아가다.

물론 동무들에게는 몰탈운반의 자동흐름선연구 때문이라고 적당히 둘러맞추긴 했지만 눈치가 말짱한 그애들이 모를리 없을것이다. 혹시 내가 속회의 말처럼 짝사랑에 빠진건 아닐까. 그리구 여직껏 몰랐지만 억철동무와 못 잇을 인연을 맺은 아버지와 아버지께 대한 의리심이 내 마음을 자석처럼 그에게 쏠리게 하는것이 아닐까. 아니면 마음이 깊고 간석지건설에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는 그 성실성이 내 마음을 끌었을까. ... 정작 기술혁신조에 도착하니 억철동무는 없었다. 사업소 기술협의회에 참가하러 갔다고 한다. 그런데 오동무가 수군수군 들려주는 이야기가 나를 놀라게 했다. 현상응모에 제출된 억철동무의 《수문설치에 대한 서해갑문식마감막이》설계를 놓고 최종심 의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량심과 명예를 건 논쟁이여서 말할수없이 치열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었지만 하여튼 억철동무가 《만약 지난 시기에 써온 방법을 이번 마감막이에 또다시 적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막대한 국가적투자와 로력, 자재를 들이밀어야 한다는 결론에 떨어지게 됩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 공법이 탐구되지 못하고 도입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모인 100명도 넘는 기술자, 전문가들이 무엇에 필요합니까.》라고 절규하러갔을 뻔하다고 한다. 오동무에게서 그 말을 전해들은 순간 무언무언인지 가슴이 활랑거렸다. 마치도 나를 향해 부르짖는것 같기때문이다. 확실히 그 동무는 무엇인가 큰것을 안고 생각하며 모태기는 인간이다. 고작해서 눈앞에 덧쌓이는 과제만을 생각하는 나하구는 달라.

어제와 오늘, 래일에 대한 그 무엇인가 거창하면서도 아름다운것에 대한 사색과 지향을 안고사는 사람, 나보다 아득히 높은 곳에 서있는 사람.

돌아오는 길에 뜻밖에도 기사장동지와 함께 오는 억철동무를 딱 만날줄이야. 《기사장동지,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안타까운 속마음을 저도 모르게 드러내보였다. 기사장은 《같은 파도에두 날서는 돌이 있구 둥글둥글 다슬거리는 돌이 있는 법이지.》하고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며 억철동무를 나와 맞세워주었다. 《애기들이나 해라.》 그리고는 주먹으로 억철동무의 어깨를 툭쳐주고는 격실격실 가버렸다. 보건대 억철동무는 무척 흥분한것 같았다. 그는 밀도 끝도 없이 제미포구의 자그마한 만에 위치한 사업소부두를 가리켰다. 《반장동무, 저 술한 선박들이 마감막이구간에 횡렬로 쭉 늘어선 광경을 생각해봤습니까?》

그곳에는 사업소가 마감막이전투를 위해 집결하여놓은 각종 예선과 부선들, 자동부림배를 비롯한 크고작은 배들이 가득 들어차있었다. 그런데 이맘때면 웅당히 조직되는 저 일을 두고 억철동무는 왜 분개했을까. 《억철동무, 저거야 웅당...》 당황해진 나머지 나는 저도 모르게 그의 직무대신 이름을 부르는 실수를 했지만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하였다.

《설계가 부결당했나요?》 《자, 여길 좀 보시오.》 그는 한쪽무릎을 굽히고앉아 꼬챙이로 땅바닥에 쪽쪽 금을 그어가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나갔다. 《저배들과 쇠그물을 씌운 막돌을 가득 채운 함형부재가 마감막이구간에 들어서자면 바다물의 수위는 최소한 10메터이상은 돼야 하오. 그건 서해안의 밀물과 썰물의 차가 최고로 높아지는 최대만조때라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낳게 하오. 대신 성공의 확률은 겨우 50프로요. 만약 만조때 즉 수압이 최고로 높아지거나 해일과 태풍을 비롯한 이외의 원인으로 해서 마감막이구간의 바닥이 고르롭지 못해 제방이 밀리거나 터져나간다면 그 후과는 예상을 초월하게 된단 말이요. 이로부터 얻게 되는 결론은 성공의 확률이 100프로면서도 가장 빠른 시간안에 자재도 자금도 훨씬 적게 드는 우리 식 새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르게 되오. ...》

그는 누가 자기의 말을 가로막기라도 할듯 서둘러 설명을 계속해나갔다. 10년전에 세운 수문(우연히 억철동무와 만났던 그곳이었다.)을 대담하게 확장보강하고 지금의 마감막이구간의 안쪽에 보조제방을 설치하면서 물길을 돌리고 수압을 분산약화시키기 위한 공사를 와닥닥 해쳐야 한다는것이였다. 다음으로 조수의 차가 최고로 작아지는 조금사리를 리용하며 마감막이구간을 막아치우고 제방에 미치는 수압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제방을 단계별로 터뜨려야 한다는것...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자신의 기술적안목이 매우 협소하며 너무나도 모르는것이 많다는것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게서 확확 내뿜기는듯 한 간석지건설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애착, 과학기술적문제에서의 해박한 식견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매혹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휴식날에 그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수문에서 진행한 작업이 단순히 옛 직장장에 대한 런던이나 존경뿐만이 아니라 앞서간 세대의 창조물을 오늘의 값높은 위훈으로 빛내이기 위한것이였다는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꼈다.

《오늘은 비록 일부 사람들이 나의 설계를 리해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래일에는 반드시 현실로 되교야말거요. 난관이 막아선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중도해서 쫓겨나면 그게 무슨

청춘이고 과학자겠소. 반장동문... 나를 보고 마감막이나 끝나면 국으로 돌아갈 <철새>라고 했는데 내가 가면 어딜 간단 말이요?! 과학과 기술은 대학과 전문기관에 가야만 할수 있다는건 께변이요. 힘들다구 중도에서 께버리구 자그마한 성과를 거두었다구 만세를 부르면서 제 안락부터 찾는다면 이 땅에 도대체 무엇이 남겠소. 한번 해서 안되면 백천번을 다시 달라붙어서라도 조국의 미래를 앞당겨야 할 시대적의무가 우리의 어깨 위에 지워져있지 않소. 만약 오늘날 또다시 중도에서 께버릴 내기를 하구저 하나의 안식처나 찾아돌 생각부터 한다면 우리는 래일에 이제보다 더 어려운 진짜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될거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마치도 강성대국을 그 누가 선사해주거나 대신 건설해주기라도 한듯이 생각하면서 자기도, 운명도 기만하고있지만 여기에 버바다가 설레이 그날은 다름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 안아올려야 한다구 난 생각하오. ...》 그렇다. 누구나 밥술을 뜯 때 농사군의 수고를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도 간석지건설자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나는 역철동무와 함께 영원히 더 넓어지고 아름다와질 조국땅에 공민된 량심과 의리를 묻어가리라. ...

7

날은 흘렀다. ... 마감막이는 성과적으로 끝났다.

드디어 《갈도》와 룽지에서 서로 마중하던 두 제방이 하나로 이어졌다. 립시로 막았던 7호보조 제방을 터치자 갈 곳을 찾아 이리저리 사품치며 제방을 함부로 들이받던 바다물이 웅장하게 일떠선 6호제방의 대형수문으로 사품치며 장쾌하게 쏟아져내렸다. 새뽕안 물안개가 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짧은 기간에 일떠선 수문을 휩싸 안았고 수압에 의해 지심이 흔들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역철의 《수문설치에 의한 서해갑문식마감막이설계》가 성공한것이다. 수천명의 군중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모자며 옷가지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오색테프와 꽃보라, 꽃송이들이 바람에 실려 바다물을 수놓았다. 현장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드넓은 공간을 한가득 채우며 울려갔다. 《해당화작업반》을 비롯한 부채직장에서 찍어낸 《I》형부채들이 이발맞춰 가쁜하게 쌓아진 제방우로 사람들의 물결이 《갈도》로 흘렀다. 놀란 갈매기의 무리가 승기가 나서 《아-오》, 《아-오》하고 소리치며 떼지어 하얗게 날아오른다. 거친 파도가 와와 물려와서는 부채에 새겨진 글발을 깨끗이 닦아주려는듯 기슭을 찰싹찰싹 애무한다...

어느사이 해가 지고 어둠이 깃을 뿔다. 하늘가의 도글도글 영근 별무리가 그대로 바다에 내려

앉아 춤추며 뛰는다. 그 바다를 향해 사품치며 아우성치며 제방안의 간석지물이 쿵쿵 쏟아져내리는 수문에 두사람이 섰다. 역철이와 혜순이다. 수문주변에 합숙마당가에서 자래운 해당화포기들을 정성들여 옮겨심은 작업반동무들이 돌아간지도 이속했다. 수문의 기둥에 《해당화수문》이라는 다섯글자를 흰 세멘트로 동글동글하게 부각하여 새긴것이 어둠속에서도 또렷이 보인다. 머지않아 그들의 일터는 룽지와 제방으로 잇닿은 《갈도》로 옮겨질것이다. 새로운 전구가 그들을 부르는것이다. 아마도 먼 후일 사람들은 사전을 통해서나 《갈도》가 한때 날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던 외진 섬이었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혜순은 기증기운전공을 할 때 아득한 밑에서 자그마하게 안겨오는 사람들과 자동차들을 보면서 언제인가 읽은적이 있는 《갈리버러행기》라는 소설집의 《소인국방문기》를 련상했었다.

드넓은 바다와 우람하게 뻗어가는 제방에 비해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 자그마한 모습이었던가.

그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큰일을 해냈는가.

기슭을 옮겼다. 조국땅을 넓혔다. 조국을 자래웠다. 버바다 설레이는 드넓은 간석지벌이 새로 생길것이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고 많다. 제방을 막았으니 첫발자욱을 내짚은셈이다. 내부방공사를 해야 하고 소금기를 제거하기 위한 관개시설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득한 어린시절에 아버지가 꿈꾸듯 그려보시던 그 희망이 현실로 펼쳐질 날은 결코 멀지 않다. 혜순은 앞으로 이어지게 될 그 나날들에 언제나 역철이와 함께만 있고싶었다. 달밤은 이 저녁처럼 그와 함께 맘홀리며 창조하고 건설하고싶었다. 꼭 그렇게 될것이다.

돌이켜보면 자기는 그를 미처 몰랐어도 그는 언제나 자기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말없이 뒤에서 떠밀어주며 힘을 준 미더운 벗이었다. (얼마나 능청스러운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역철이의 그 방조와 도움의 밑바닥에 옛 직장장에 대한 진실한 의리가 깔려있다는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날수 없었다. 만약 역철이가 그토록 잊지 못하는 직장장의 딸이며 사랑하는 (그렇다. 확고히.) 련인의 아버지가 사업소가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주저하고 동면하던 끝에 값없이 쓰러진 사람이라는것을 안다면 그때에도 오늘의 사랑이 변함없겠는가를 생각하자 혜순에게는 갑자기 두려움이 서려들었다. 역철이가 이 사실을 영원히 몰랐으면싶었다. 영원히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만을 지니고 자기를 대해주었으면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벌써 진실에 대한 기만이고 아름다와야만 될 래일에 불화의 씨앗을

묻어두는것으로 된다고 혜순은 생각하였다. 말해주어야 했다. 마땅히 억척은 진실을 알고있어야 했다. 그다음엔...

《억척동무.》 혜순은 힘들게 말부리를 헐었다.

《하나 물어봐도 좋아요?》 그의 눈이 파고들듯 억척이를 주시했다. 《갑자기 새삼스레 뭘 그러오?》 《... 존경하던 한 인간이 사실은 고난과 시련앞에서 용감하지 못하고 동요하구 비판하다가 값없이 쓰러졌다면 동문 그때에도 그를 변함없이 좋게 생각할수 있어요?》 《그건... 누굴 두고 하는 소리요?》 혜순은 말하였다.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있는 아버지의 견해에 대하여. ... 갑자기 언젠가처럼 격해진 억척이의 목소리가 수문에서 쏟아지는 물소리를 누르며 우뢰처럼 혜순의 귀청을 두드렸다. 《그만하오. 그만하란 말이요.

동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구 함부로 그런 말을 막 하는거요.》 《이건 죄다 사실이예요. 난 우리사이에 애매한것이 남아있기를 원치 않아요.》 《아니요.》 격렬한 억척의 목소리가 수문에 메아리를 일으켰다.

그는 와락와락 거친 동작으로 작업복의 앞섶단추를 끄르고 무엇인가를 끄집어냈다. 《자, 보오. 아버지가, 우리 직장장동지가 어떤 인간이였는가를 좀 보란 말이요.》 불쑥 혜순의 눈앞에 크지 않은 공책이 다가들었다. 억척이가 켜준 전지불빛에 퍼그나 남아진 학습장이 드러났다.

《어서 펼쳐보란 말이요.》 두툼뚝한 억척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화끈 단 입김이 혜순의 귀부리를 뜨겁게 지졌다. 어리둥절해진 혜순은 학습장을 받아들었다. 겉표지에 큼직큼직한 글씨로 《부채직장장ㅇㅇㅇ》이라는 낯익은 아버지의 자필이 씌여져있었다. 혜순은 경황없이 학습장을 번쳐나갔다. 매 페이지마다 년월일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있었다. 문득 학습장을 번쳐나가던 혜순이의 손이 툭 멎었다. 아버지가 사망하던 무렵의 날자였는데 거기에는 수문이 그려져있었다. 바로 이 6호수문 비슷한것이였다. 그리고 고르롭지 못한 글씨가 가득 적혀있었다. 《...가슴이 아프다. 해일에 이어 장마비와 태풍때문에 제방이 네군데나 끊어져나갔다. 노동자들마저 손땀을 놓았다.

비물과 파도에 씻기워 골조만 앙상하게 드러난 제방과 부서진 부재들을 보느라니 내 팔다리가 부서진듯 가슴이 저려든다. 어떻게 쌓아나간 제방인데 이 지경이 되었던 말인가. 벌써 달을 넘기며 끊긴 제방을 손질해보았지만 육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는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남들이 보면 실성한 사람, 동요하는 사람이라고 할것 같아 낚시대를 들었다. 집에서 나갈 때나 들어설 때면 이상스러워하는

동네사람들과 안해와 딸을 대하기가 괴롭다.

육체에 생긴 병때문에 괴로운것이 아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어제날의 혁신자직장장이며 일박에 모르던 이 아버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평생 머리가 세도록 간석지를 건설하면서 끊임없이 옮겨지는 일터를 따라다니느라 별로 단란한 가정생활을 못해본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약속했던지 아름다운 래일에 대해, 벅바다가 펼쳐질 그날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해주었던가. 그런데 일시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때식조차 건느기가 일쑤다. 지금 세상의 수십억인가가 땅때문에 피도 흘리고 목숨을 내대면서 대를 두고 전쟁도 서슴지 않는 때에 내가 손땀을 놓고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두눈을 시퍼렇게 뜨고앉아 난관과 시련만 타발하면서 피땀으로 쌓아올린 제방까지 잃고있다니... 회의나 모임때마다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당에 맡긴다고 입이 다슬게 외우고는 시키는 일이나 수격수격하는것으로 만족을 찾았으니 내가 무슨 당원이고 로동계급이며 나라의 주인이란 말인가.

오늘도 중간수문을 돌아보면서 생각이 많았다.

머지않아 있게 될, 반드시 하고야말 <갈도> 제방의 마감막이를 구상해보았다. 내가 못하면 래일에는 그 누구든 반드시 해야만 할 새로운 공법이 나와야 한다. 확실히 지금처럼 예산과 부선, 자동부림배들을 들이대고 대형레무뭉음을 주련이 막아세운 다음 함형부재들을 폭파시켜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하는 마감막이공법을 다시한번 연구해보아야 한다. 내 딸을 대학공부를 시켰더라면 한번 의논해보는건데... 래일 중간수문을 다시한번 돌아볼 결심이다.》

혜순은 일기장에 가까운 사업일지와 어둠속에서 전지불을 비쳐주고 선 억척의 미더운 모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나날에 낚시대를 메고 집에 돌아온 저녁이면 늦도록 초불을 마주하고 이 수첩장에 무엇인가를 사색깊이 써넣곤 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였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혜순은 어느사이 억척의 실룩한 어깨에 자기 머리를 기대고있는것도 몰랐다. 바다가를 떠나선 못산다는 해당화가 향기를 풍겼다.

×

후기

나는 그후 억척이와 혜순이들이 간석지건설자들에 대한 성대한 국가수훈식장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다시금 텔레비죤화면에서 볼수 있었다.

인민사랑의 절승 칠보산

리근지

등산길 오르며

칠보산이 만들어준
오불꼬불 다래넝쿨
지팡이 꺾어짚고
푸른 운해 숲속에 감도는
등산길에 올랐노라

마주서는 기암절벽
하늘을 뚫어쫓고
주름잡은 산은
기세차게 구름 날리며
누운듯 달리는듯

꽃은 향기에 웃고
새들은 봉이봉이에
날으며 솟는데
하늘의 은하수는
폭포에 쏟아지네

서로 받들고 엮힌 돌 하나
나무 한그루
우짚는 새
피는 꽃
산천에 그대로 수놓은듯

×

그 누가 칠보산이라
이름지어
아니할 실수 후대에 남겼는가
어찌 일곱가지
보물만을 안았던 말인가

전선시찰길 바쁘신 나날
몸에 실린 피곤도 아니 푸시고
고색창연한 절간과 루각

불상 한상 풍경 하나하나 찾아주신
우리의 장군님

먼 옛날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비낀
귀중한 문화유물이라고
잘 보존하라시며
민족의 넋과 얼을 살려주신 그 은정

높은산 험한 절벽길 걸으시며
나무 한그루
바위돌 하나
꽃 한포기조차
손색갈세라 등산길 에돌아 내주시고

×

노래하는 새
뛰는 산짐승
놀랄세라 다칠세라
아끼고 보호하라신
한없는 그 사랑

아, 선군절경 휴양소로
인민을 불러주셨으니
칠보산아 너는 이 세상 복을 다 안은
칠선보산 칠만보산
인민의 명산

록수는 말없이 흘러가도
아버이장군님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따라
나는 명산과 뜨거운 이야기 나누며
사랑의 절경 등산길 오르네

1. 내칠보

가을의 청청한 새벽을 열고
내칠보등산길 오르니
고였던 안개 잦은듯 사라지고
온 산에 일어불는 불
연기없이 불길만 솟구치누나

황홀하다
내칠보가 온통 타는 단풍
그속에서 잠을 깬 새들이
깃을 치며 불새되어 날아올라
하늘땅에 은방울 쏟누나

청신한 풀향기에 옷깃 적시며
굽이굽이 산속으로 들어가니
험준한 암벽우에 솟은 탑같이
바위마다 신기묘묘하게
빛어놓은듯 다듬어세운듯

깎아지른 저 바위덕
묘한 소나무아지엔
이슬이 구슬로 맺혀 반짝이고
밤을 새운 부엉이 통방울눈 굴러
한쪽의 그림이여라

×

뻣뻣한 소나무 그늘밑엔
아련한 송이 갓쓰고 살쾅이 웃고
머리지진 고사리는 멋부리는데
파아란 도라지꽃은
푸른 하늘 한조각 입에 문듯

익은 머루다래는
바위에 엉키고 뻗어
길가에 나앉아
가는 바람에 흔들흔들
입술에 그 향기 감도네

아름다움에 취하며
신비로움에 끌려
골짜기에 넘치는 해빛을 헤치고
구름을 딛고 밟으며
만사봉에 오르니

어허?!
불쑥 앞에 뛰어들어
웅크리고 용을 쓰는 《사자》
내 겁먹고 다시 보니
점잖게 앉아 맞이하네

×

물어보자 《사자》
몇천년 이 산 주인으로 사느냐
세세년년 쌓여온
칠보산의 전설
너와 마주앉아 온종일 듣고싶은데

어서 오라 나를 부르는듯
란사봉 천불봉
저 봉우리에 모인 돌사람들
화창한 이 가을 어디로 가기에
저리도 행렬지어 명절인가

아하 저-어기
하늘가에 날가리 쌓은 로적봉으로
한해분배 총화지으려 가는듯
아니 청한들 어떠랴
나도 저 행렬따라 걸음 서두르네

그 언제 저 높은 날가리 쌓았는가
난알향기 함뿍 서린듯 한
로적가리 흐뭇이 쓰다듬으니
일년내 땀흘려 풍년을 가꾼
근면한 농민들 얼굴 안겨와

내 마음 마치
뺨파리 울리며 열두상모 날리는
우리 농장 분배장에 들어선듯
어깨춤 더덩실
노래도 저절로

×

웃음도 절로 노래도 흥얼흥얼
로적봉을 뒤에 두고 등산길 서두르니
금시 종소리 울려
칠보산절경 열어줄듯
하늘에 솟아오른 타종암

아, 전선길 수천수만리를
인민의 기쁨에 이어놓으신
우리 장군님 타종암을 찾으시여
때리면 종소리 쨍쨍
산악을 울릴것 같다고

정말 종이 신통하다고
이윽도록 미소지으시며 바라보시던
장군님 심중에 나누시던 이야기
내 오늘 여기서
가슴뜨겁게 새겨들노라

왜놈들과 관료들만 유흥에 몰렸던
이 칠보산절경에
저 타종암을 종소리로 울려
온 나라 인민을 등산길에 불러준다면
산천은 얼마나 환하고 웃음에 넘치라고

×

심중에 나누신 그 기쁨 안으시고
여기에 등산길 내어
인민들이 즐기게 하자시며
몸소 풍산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오늘은 온 나라 인민을
칠보산에 부르며
땡땡땡...
신산을 흔들어
타종암은 종소리 울릴 듯

가슴속에 뜨겁게 울리는
사랑의 종소리 안고
울울창창 수림을 헤쳐오르니
산마다 웅장함만 펼쳐지고
바위바위는 기묘하게 솟았네

놀랍다 해는 한낮인데
신갈나무 소나무 사시나무
무성한 우듬지에
숨겼다 나타났다
구름에 등실 떠가는 만월달

×

낮달맞이 하도 신기하여
지팡이 던지고 달려오르니
만월대에 앉은 달
밤은 몇천만년 흘렀는데
질줄 모르고 낮에도 뜨고있는가

아, 장군님을 모신 행복한 내 나라에
세월아 가지 말라 인민의 소원
지는 달을 만월대에 얹어놓고
칠보산 일반경치 펼쳐준
우리 당의 고마움 가슴뜨겁네

보는것마다 신비하여
마음은 즐거움에 두둥실
오는 길도 잃고
가는 길도 모르고
산정에 오르니

화목할손
지봉을 잇대여놓은

돌기와 농가마을
지나는 구름 굴뚝연기로 서린
예가 하늘아래 첫동네로구나

×

나도 한뼘 농민이라
마을사람들과 무릎 맞대고
감자농사 두벌농사
천만가지 농사이야기 나누며
한밤을 묵어가고싶은데

모두들 일하러 들로 나간듯
마을은 텅텅 비어
집주인들 만나보지 못한
아쉬운 마음만 남겨두고
등산길 이어가네

천지를 구르는 소리에 놀라
바위에 부딪치며 달려나오는
벽계수 따라 들어가니
하늘에서 날아떨어지는 폭포
장쾌하도다 섰돌며 뿜어치는 눈보라

고였다 넘치는 폭포담에
입술을 대니 해가 입맞추며 웃고
하늘도 산도 꺼꾸로 서서
무지개 드리우고 흔들흔들
요지경같은 아름다움 나를 부르네

×

내사 났잖아 폭포담에 뛰어들러는데
등산길 함께 오른 사람 하나
내 옷깃을 잡아채며
-시인선생
정신이 돌지 않았소
아, 오르고 오를수록
내칠보는 옥을 다듬어세운듯
비단필에 수놓은듯
걸음마다 더 호화로운 경계
하늘아래 펼쳐주네

꿈에도 거니는 이 명소를
인민에게 안겨주신
장군님사랑 봉이봉이에 얹혀
떠나자니 사랑에 젖어 걸음 못 떼고
절승이 붙잡아 아쉬움만 더해

외칠보등산길 앞서오른 사람들
어서 오라 재촉하는 소리
각시바위 저 새각시 수집은 머리 숙이고
잔치상에 청해 속삭이건만
오마고 다시 오마고 약속 남기네
(다음호에 계속)

삼국시기 옷차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을 비롯하여 가야, 후부여 등 초기봉건국가들은 모두 동족의 나라로서 주민들의 피줄이 같고 언어와 문화가 같았으며 옷차림도 거의 공통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옷이나 이러저러한 물건들은 그것을 입고 쓰고 다루는 사람들의 성격과 그들이 사는 시대와 사회상을 여러모로 나타낸다.》

삼국시기 근로인민들의 꾸준한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생산력이 이전보다 한층 더 발전하였고 과학기술과 문화분야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었다. 당대의 이러한 사회력사적환경은 다른 모든 문화부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옷차림에도 큰 영향을 미치였다.

고구려무덤벽화에 반영된 삼국시기 남녀의 옷차림은 고대의 옷차림을 계승발전시킨것이였다. 남자의 기본옷차림은 바지, 저고리, 겹옷, 머리스개, 신발, 치레거리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밖에 허리띠, 버선, 행전, 토수 등이 있었다. 너자의 기본 옷차림도 바지, 치마, 저고리, 겹옷, 머리스개, 신발, 치레거리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허리띠, 버선 등도 있었다.

남녀의 기본옷차림에서 차이점은 너자에 치마가 있었고 남자에 행전이나 토수 등이 있는것이였다.

바지는 남녀의것이 모두 오늘의 양복바지모양으로 생겼고 저고리는 길이가 허리아래부위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으며 그에 따라 긴저고리는 《장유》라고 불렀는데 것이 곧고 앞이 완전히 터쳐진것이였다.

겹옷은 이런 모양의 긴저고리를 무릎아래까지 더 길게 한것이였다.

이 시기 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보기 좋은 옷을 만들어입으려는 근로인민들, 특히 녀성들의 열망과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종래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옷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곧 짧은저고리나 달린옷, 주름치마나 무지개치마, 여러가지 형식의 겹옷이였다.

짧은저고리는 길이가 허리정도로 내려오는것이

였는데 고국원왕릉 앞칸 동쪽결칸벽화에 방아짚는 녀자가 입고있는 저고리가 바로 그런것이다.

주름치마나 무지개치마도 삼국시기에 새롭게 나타난 녀자옷이였다. 그리고 달린옷도 삼국시기에 새로 나온옷으로서 아래우가 맞달린 점에서는 오늘의 달린옷과 큰 차이가 없었다.

뿐만아니라 겹옷에는 것이 없고 맞설이며 길이가 당시의 긴저고리만큼 짧은것과 것이 없고 소매가 짧은 긴것이 있었다.

것이 없고 맞설이며 길이가 짧은 겹옷은 앞이 완전히 터쳐있어 입고 벗는데서와 활동에 편리하였으므로 주로 무사들이 입었으며 문관들도 민첩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 더러 입었다.

것이 없고 소매가 짧은 겹옷(반소매겹옷)은 오른쪽으로 여며입는 매우 화려한 옷이였다. 이 옷은 왕비와 같은 특별한 계층의 녀자들만 입었으나 그 형태는 리조시기의 당의나 전복(패자)등에 계승된것으로 보인다.

삼국시기의 옷에는 이밖에도 왕과 왕비의 특수한 옷들과 봉건관료들이 입던 관복들, 예술인들의 무대옷들도 있었다.

삼국시기에 우리의 민족옷차림은 비록 제한된 테두리안에서만 새로운 면모를 갖추면서 발전하였다. 그 발전모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삼국시기에 옷차림의 민족적특성이 확연하게 표현된것이였다.

또한 옷차림이 간편하고 활동적인것으로 발전한것이였다.

또한 이 시기의 옷차림에 봉건적인 계급신분제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옷차림전반에 걸쳐 계급신분적차이가 이전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것이였다.

여기서 봉건통치배들의 옷차림은 날을 따라 사치해지면서 허식적인 요소들이 늘어났으나 반면에 근로인민들은 자기 신분에 한정된 종류와 색깔, 재료로 된 옷만 입을수 있었으며 겨울에도 베와 짐승의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으면 안되였다.



박춘화

××군소재지 변두리에 현대적미감이 나게 새로 건설한 농촌문화주택이 즐비하게 늘어선 농장 마을앞으로 십여리 물길을 지나 언덕에 오르면 연푸른 하늘을 비껴나고 설레는 저수지가 기다린 듯 안겨든다. 거기서 우뚝이 마주서는 산봉우리들을 살펴느라 한 골짜기의 풍치에 눈길이 멈춰선다.

산타를 폭 짝어내린듯 아슬하게 깎아지른 절벽, 그 아래바닥에 오래 자란 분비나무, 가래나무, 백양나무들이 무성한 아지를 저으며 서느러운 그늘을 던지고있다. 나무밑을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개속에서처럼 아렴풋한데 나무숲을 마주한 몇동의 하얀 회칠을 한 허리긴 건물과 빨간 토기와를 이은 건물들이 한낮의 해빛을 받아 유난히 눈부시다. 어느 광산에서 운영하는 정양소이다.

이번기에는 착암공, 발파공을 비롯한 17명의 광부들과 갱지령원이 입소했다. 이 지령원으로 말하면 지난날 모범착암공이었다.

그가 숙련된 솜씨로 발파구멍자리잡이나 암질에 따르는 구멍방향과 각도판단을 편차없이 척척 해내고 알진 말뚝에 힘을 돋구며 드센 손탁으로 틀어잡으면 사납게 요동치는 착암기도 공손히 굳은 암층을 먹어대었다. 그는 남먼저 작업과제를 수행하여 광산의 대형영예게시판에 사진이 나붙곤 했고 국가적명절날에는 가슴에 훈장, 메달들이 번쩍거리었다.

그리던 그가 몇달전에 갱막장에서 뜻하지 않은 봉락사고가 났을 때 발뼈를 상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착암작업에서 지장을 받게 되었다. 광산지휘부에서는 모범착암공인 그를 광석캐기의 일선초소인 갱막장에서 때때기가 아쉬웠지만 하는수없어 갱지령원으로 돌려놓았던것이다. 광부들은 광산이 다 아는 모범착암공이었고 지금은 저들보다 직급이 높은 그를 존대했다.

그들은 하루 세끼 푸짐한 식사를 하고 온천치료를 한다.

이곳으로는 간혹 광산의 어느 책임일꾼이나 진료소의사가 돌아보는 외에 어느 사람이 오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던 어느날 까만 승용차가 마당에 들어와 멈춰섰다. 점심을 먹고 흐뭇한 기분으로 식당앞의 꽃밭머리에 둘러선 광부들이 호기심에 싸여 바라보았다.

차의 뒤문이 열리고 중기에 몸이 갈라한 사나이가 내리었다. 그는 재빛여름옷을 입고 같은 색깔의 구두를 신었는데 차림새며 몸짓이며 눈빛이 어딘가 유연하고 세련되어보이였다.

원칠한 키에 소매짧은 흰옷을 걸친 정양소책임자가 차있는데로 다가가고 넓은 하늘책달린옷을 입고 허리에 윤기도는 까만 띠를 졸라맨 관리원 처녀가 총총히 뒤따라갔다. 책임자가 새로 온 사나이에 자기 소개를 하자 그는 얼굴에 반기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습니까? 한동안 폐를 끼쳐야겠습니다.》

《폐라니요? 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대로 보강해드릴것 같지 못해 걱정입니다.》

《그런 말 마십시오. 대접받으러 온게 아니지요. 휴식하면 만족입니다.》

둘은 마주 웃었다.

《피곤하시겠는데 침실로 가십시오.》

《예, 그럼시다》

책임자가 안내하며 앞에서 걸었다. 그들은 정양생들의 침실이 전개된 기본건물과 좀 동떨어진 언덕진 곳의 단층건물을 향해 갔다.

침실에 들어서니 밤색칠을 한 깨끗한 나무침대에 침구류들이 포개여있었다, 창턱밑의 차대에는 늙쟁반에 푸른 수지보온병과 흰 사기잔이 얹혀있다. 구석쪽에는 천연색텔레비존수상기가 암갈색의 네발받침대를 타고있다.

침실로 통하는 복도와 잇달린 세면장에는 파랗한 타일을 둘러불인 욕조에서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맑은 물이 넘치고있다.

기웃이 몸을 숙이고 땀샘을 말던 새로 온 사나이가 곁에 선 책임자에게 물었다.

《온천물이 아닙니까?》

침실을 잘 꾸리지 못한것 같아 은근히 마음을 조이며 서있던 책임자가 금시 기분이 좋아진듯 활기롭게 대답했다.

《웁습니다.》

그는 명랑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5리쯤 가면 온천이 있습니다. 그 물을 끌어다 난방도 보강하고 온실도 꾸려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합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욕조의 물을 슬쩍 텅기며 제

속했다.

《한두고뿌 마시고 물속에 들어가 20분가량 있다 나오면 몸이 거뜨해지고 음식소화도 잘됩니다. 우리 광부들속에 위탈이나 신경통, 피부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온천치료를 건강을 회복합니다. 모두들 우리 온천을 <천연보배샘>, <건강젖줄기>라고 하지요.》

《그거 참 적중한 표현이군요.》

《여기 와있는 기간 하루 두번씩 이 물에 목욕을 하십시오. 건강에 좋을겁니다.》

《고마운 충고군요. 제 꼭 그러겠습니다.》

책임자는 문득 벌려놓고온 일이 생각나서 《그럼 몸을 씻고 꼭 쉬십시오. 전 좀...》 하며 방에서 나갔다. 관리원처녀가 실한 몸에 혈색이 도는 운전사와 불룩한 러행가방끈을 갈라잡고 침실에 들어와 내려놓았다. 처녀는 창가아래 차대에 다가가 마실 물을 갈아넣으려고 보온병을 들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방에는 두사람이 남았다. 그들은 정양소가 마음에 드는지 흐뭇해하는 표정들이었다.

광부들은 새로 온 사나이가 무슨 일을 하는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손님》이라고 불렀다.

그가 온지 삼일째 되는 날 낮이었다. 폭양이 대기를 녹이고 땅을 사를듯 쏟아져내리었다. 《손님》은 정양소옆을 흐르는 개울가로 나갔다. 바위를 활고 돌맹이에 부딪치며 내리는 물결은 우수한 은조각이 떠내리는것 같고 산천어들이 꼬리치며 뛰어오르는것 같기도 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손바닥으로 물을 튕기었다. 수정알갱이같은 물방울들이 분수처럼 튀어오르고 쏟아져내리었다. 몇번 그러고보니 눈앞에 안개가 서리고 애기무지개가 비낀다. 언뜻거리는 무지개를 보느라 어린이집에 고향마을 개울에서 물장난하며 가재잡이에 정신팔다가 학교에 늦어 어머니한테 꾸중 듣던 일이 떠올랐다. 그는 은근한 미소를 머금고 게모양으로 앉은걸음을 하며 물속의 돌맹이들을 들추어보았다.

아니나다를가 돌맹이밑에 숨어있던 덩지 큰 가재가 버쩍 가슴을 세우며 앞발을 내들었다. 물어 뜯을듯 집게발을 벌리고 용을 쓰는 서술에 일른 손을 당기었다. 이윽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두손가락으로 가재의 등허리를 답삭 집어들었다. 순간 짜릿한 쾌감을 느끼었다.

산채로 가지고가 안해를 놀래워주고 어항에 넣어 귀여운 딸애를 기쁘게 하리라...

그는 야릇한 동심에 싸여 개울가에서 물리나 거품을 물고 꼬리를 터는 가재를 들고 스적스적 침실로 걸어갔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광부들이 한마디씩 했다.

《승용차를 타고 와서 독침실에 든걸 보면 직급 높은 간부같아.》

《어처구니없는 소리 그만하게. 직급 높은 간부가 하필이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이 외진 곳에 오겠나?》

《왜?... 못 올것도 없지. 그만하면 우리 정양소 온천도 전국에 소문낼만 하지 않나?》

《하긴 그래. 그런데 내 생각엔 지식인일수 있다는거네. 대학교원, 아니 신문기자쯤 말이네.》

《그렇게 보이지 않아. 신문기자라면 책 보기에 도 눈빛이 예민하고 불임성이 있고 좀 끈질긴데

가 있네. 그래야 사람들속에 뚫고들어가 목적인 글감을 골라잡을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눈빛이 어쭙고 동작이 느리게 신문기자다운데가 없네. 무슨 일을 손탁세게 잡아쥐고 쟁싸게 제길것 같지 못해.》

다른 목소리가 끼여들었다.

《간밤에 무덤고 잠이 안 와서 밖에 나오니 저 사람방에 불이 켜져있더군. 아까운 전기를 끄지 않고 자는가 하는 고까운 생각이 들어 다가가보니 저 사람이 원탁을 마주하고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고있었네. 얼핏 보기에 무슨 제품도안 같았소. 도안전문가가 아닐까?》

《그럴수도 있겠지. 어쨌든 늘 머리를 짓속이고 다니는걸 보면 사색형의 사람이 틀림없네. 그런데 사람이 좀 불임성도 있어야지...》

지령원이 둘러앉은 광부들에게 심드렁하니 말을 건네며 고개를 저었다. 다른 광부들도 공감이라는듯 한표정이었다. 이때 식당쪽으로 난 길에 관리원처녀가 나타났다. 모두 그쪽에 눈길을 주었다.

관리원처녀는 빨간 머리수건을 날리며 흰 보자기를 썩은 음식쟁반을 두손으로 맞잡고 《손님》 침실로 종종걸음을 하고있다. 그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지령원에게 머리를 끄덕이며 눈웃음을 보내었다.

《손님》은 자기를 두고 말들이 오고가는줄 알리 없었다. 그는 광부들속에 끼우고싶어하는것 같았다. 그들이 나무그늘밑의 결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면 슬그머니 곁에 와앉아 귀를 강구었고 화제에 재미나는 이야기가 끼울 때면 빙그레 웃음을 머금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놀음짜패가 모자랄때 그가 곁에 있는데도 청하지 않고 먼데 있는 자기 동료들 소리쳐 불러들여었다.

어느날 낮이었다. 몇명의 광부들이 밖에 설치한 탁구판에서 탁구를 치고있었다. 숨씨들이 괜 찼었다. 회전이 빠른 처넣기공을 살짝 받아넘겨 거니 그물을 스칠듯 걸어치기로 날아넘어오는 공을 맞받아치기로 성공할 때면 구경꾼들이 환성을 터치였다.

젊은 광부가 두명을 이기자 다른 광부가 판에 마주 나섰다. 젊은 광부는 한숨 돌리려고 바지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와 목덜미를 훑치였다. 그리고는 결상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처보십시오》하며 채를 내밀었다. 《손님》은 한번 쳐보았으면 하던 참인지라 반가운 기색으로 일어나 채를 받았다. 그런데 심판을 썼던 지령원이 불쑥 일어나 《잠깐... 내차례요.》 하며 손을 내밀었다. 《손님》은 그를 흘끔 마주보고 공손히 채를 넘겨주었다. 그는 앉았던 결상에 도로 와앉아 지령원이 실한 몸을 뒤뚱거리며 공을 치는 모양을 지켜보았다.

한참 공을 치던 지령원이 승부가 나기 전에 《에- 발이 말째서 잘 안돼.》 하며 심판을 서고있는 광부에게 채를 넘겨주었다. 그는 결상에 물러나앉아 봉대같은 발을 무릎우에 올려놓고 어루만지였다. 피곤했던 수술담당의사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수술자리가 깨곳이 아물 때까지 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감염되면 골수염으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의사는 자못 엄숙한 표정으로 당부했던것이다. 지령원은 《후-》 꼬리 긴 한숨을 내그었다. 그는 생각했다.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행복한 사람은 발이 성한 사람이라. ... 별로 존경이 안 가고 어딘가모르게 마음이 끌리지 않는 저 《손님》 조차도 발이 성하니 마음 내키는것 확보하지 않는가?...

《손님》은 결상에서 일어나 탁구장을 떴다. 그의 침중한 낯빛을 여겨본 나이 지숙한 광부가 지령원에게 얼굴을 돌리었다.

《아까 너무하지 않았소? 받아전 채를 뺏다니?》 지령원은 그의 말이 시답잖은듯 등근 눈을 들었다놓았다.

《원-참, 체육에서야 양보가 있나...》

《그건 체육에 관한 문제가 아닌것 같네. 그가 뭐라겠소? 광산사람들은 레의도덕도 없고 웅졸하다고 하지않겠나?》

지령원의 낯이 저으기 달아올랐다.

《터놓고말해서 납득되지 않는것이 있어서 그러네. 그 사람이 막장에서 쇠돌개는 광부들보다 무슨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겠기에 정양소에 와서까지 특별대우를 받나? 그런 사람한테 존경이 안가네.》

《생각을 좀 깊이 해보게. 어떻게 막장에서 쇠돌개는 사람들만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고 보겠나? 국가와 혁명의 건지에서 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럼 물론 그가 영웅이거나 한것처럼 떠받들셈인가? 좋을대로 하게. 난 그 사람한테 빚진것도 없고 며칠 머물다 갈 <손님>인데 신경 안쓰겠네. 점심시간이 됐소 운반식사만 맛이겠나? 어서 가자구. 팔밥에 순두부 했대...》

지령원은 히죽 웃으며 일어나 절뚝거리며 식당으로 갔다. 말을 나누던 광부는 생각이 무거워진듯 머리를 수긏하고 뒤따라갔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손님》이 식사후 소풍을 하려고 침실을 나서는데 광부들이 마당어귀에 몰려섰다. 그들의 차림새가 이채로왔다. 모두 빈 배낭을 어깨에 걸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에 낫이나 손도끼를 들었다. 《손님》이 의아히 바라보는데 전날 탁구채를 쥐여주던 젊은 광부가 다가와 말을 건네었다.

《오늘은 <로동료법날>입니다. 산에 올라가보지 않겠습니까?》

《손님》은 기뻐다.

《함께 갑시다. 그런데 저도 배낭이나 무슨 도구가...》

《그건 세계 다 있으니 걱정놓으십시오. 그 반소매샤쓰대신 소매 긴 옷이 있으면 갈아입으십시오. 췌기란놈한테 쓰이면 며칠 고생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님》이 침실로 들어가 여벌로 가지고온 소매 긴옷을 갈아입고 목에 수건을 걸치고 나왔다. 그사이 광부들이 줄레줄레 마당을 벗어나 산자드락으로 오르고있었다.

《손님》은 젊은 광부를 따라 개울 돌다리를 딛고 건너가 산골짜기로 접어들었다. 그는 산에 익숙치 못해서인지 허약한탓인지 발을 제대로 가누어 건지 못했다. 젊은 광부가 그 모양을 슬쩍 결눈질해보았다.

《발이 말짱니까?》

《아니, 그저 좀...》

젊은 광부가 길녘에 선 물푸레나무아지를 휘여 잡아 낫으로 안대목을 톱 찍어들고 이리저리 잔가지를 다듬었다. 그리고는 한발되게 초리쪽을 썩둑 잘라 내밀었다.

《산에선 나무막대기가 사촌보다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요긴할것 같군요.》

《손님》은 막대기를 받아들고 마냥 기뻐했다. 그는 막대기를 쥔으며 젊은 광부를 따라 골짜기를 거슬러 올라갔다. 한껏 물기오른 갖가지 푸른 나무와 풀에서 풍기는 향긋하고 싱그러운 냄새가 찬공기에 섞여 흘러들며 가슴을 후련하게 했다. 앞서 오르던 젊은 광부가 무춤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히었다.

《보십시오. 참나물입니다, 저건 머위나물. 슬쩍 데쳐서 참기름양념에 무쳐먹으면 별맛이지요. 뜯읍시다.》

둘은 한참 참나물과 머위나물을 뜯어 배낭에 쑤셔넣었다. 그런 다음 골짜기를 뚫으며 우로 올라갔다. 젊은 광부가 뒤를 돌아다보며 물었다.

《저기 굽슬머리를 하고 선것들이 뭘지 아니까?》

《아- 그거야 알지요. 고사리군요》

《모양새가 비슷할뿐이지 아닙니다. 고비나물입니다.》

《손님》은 고개를 기웃하며 허구쁘게 웃었다.

《먹어는 보았는데 분간은 못하겠군요.》

그들은 신이 나서 고비나물을 꺾었다. 그러고 보니 배낭이 불룩해졌다. 젊은 광부가 배낭을 한쪽 어깨에 메고 산우로 올라갔다. 《손님》은 그를 따라잡기가 힘들었다. 가시돋친 분지나무와 살매나무가 옷자락을 물어당기고 덧쌓인 마른 활엽을 밟으면 미끄러웠다. 하지만 올라온 보람이 컸다. 아릅드리 참나수가 그들을 던져주고 선들바람이 땅에 젖은 가슴을 시원하게 했다.

앞이 탁 트이고 머리가 거뜨해났다. 납작해보이는 정양소의 건물들이 발아래에 내려다보이고 건너편에 신록이 짙은 산밑으로 광산이 자리잡고 있다.

계단맛게 건설한 선광장의 하얀 스텔지붕들, 그 옷쪽에 우뚝 솟은 거뒸한 권양탑. 머리를 저으며 정광무지를 파먹어대는 굴착기가 손에 잡힐듯 하다. 꼬리를 물고 늘어진 광차들을 끌며 갱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전차우에서 병긏거리리는 선팡이 광산의 생기와 활기를 돋구는듯 하다. 《손님》이 젊은 광부곁에 앉으며 그의 팔을 건드리었다.

《동무네 광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하는지 오웁니까?》

《제대배낭을 풀고 갱막장에 발을 들여놓은지 7년째입니다.》

《오래군요. 거기서 일하며 살기가 어떻습니까?》

《처음엔 낯선 고장이라 서먹서먹했는데 이젠 판데가선 일하지도 살지도 못할것 같습니다. 정들면 고향이란 말 그르네 없군요.》

《웁은 말이지요. 고향이 아닌 타지방에 정들인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광부는 씩긏 웃었다.

《전차운전공처녀를 안해로 맞아 아들을 보았습

니다. 내 혈육, 가정이 있고 내 손길, 발길이 남고 땀이 스민 곳이니 저 광산은 나의 집, 정든 고향입니다. 아들이 크면 아버지가 저 광산막장에서 일하였고 자기가 광산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긍지로 여길겁니다.》

《그러니 광산에 든든히 뿌리내린셈이군요.》

《아직은 그렇다고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 애가 자라서 내가 썼던 갱막장에 발을 들여놓고 광부구실을 해야 광산에 뿌리내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이윽히 광산쪽에 눈길을 주며 말을 이었다.

《전 아들을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한 선군시대 지하의 척후병으로 키우렵니다. 그때엔 최첨단기술로 보다 더 안전하고 손쉽고 능률적으로 쇠돌을 광광 캐낼겁니다.》

《그건 확정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동무는 참 훌륭한 생각을 품고 사는군요.》

둘은 잠시 입을 다물고 벽에 회칠을 하고 나무판자로 가끈히 울타리를 둘러친 주택이 촌촌히 물쳐선 광부마을을 넘어서 내려다보았다.

젊은 광부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려갑시다.》

《좀더 앉아있고싶군요. 좋은 말을 들은데다 청신한 공기, 수려한 산전경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 해도 내려는 갑시다. 식사시간은 지켜야지요.》

《손님》은 나무막대기를 세워 짚으며 일어났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광부들이 식당앞에 몰려들어 배낭에서 갖가지 산나물을 쏟고있다. 모두 흐뭇한 표정들이다. 수확도 있거니와 적당한 로동끝에 푸짐한 식사가 기다리니 그럴만도 했다. 《손님》은 전례없이 기분이 좋았다. 즐겁고 보람있는 정양의 한낮이 평온속에 흘러갔다...

저녁무렵이었다. 별이 싫어 해종일 풀숲에 숨어있던 개구리들이 어스름이 깃들자 때를 만난듯 승벽내기로 목청을 돋구며 앞벌과 골안이 메게 울어댄다. 뒤뜰의 버들숲에서 청개구리도 깨묵거리며 한몫 끼운다. 공기가 점차 습해지고 저기압이 짙어가고있다.

소나기가 내리려는가? 그런들 대수랴. 여름철의 범상스러운 일기현상인데... 광부들가운데 누구도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나 변화되는 일기현상을 가늠해보지 않았다. 그들은 저녁식사를 마치자마자 공동후계실에 모여앉아 마지막화면에 공화국기발이 날릴 때까지 텔레비존을 시청하고서야 침실로 흩어져갔다. 비로소 그들은 물려든 피로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

잠들었던 《손님》은 밖에서 살풍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번개 일고 우뢰가 울었다. 어디선가 아지껍이며 나무 넘어지는 아찔롭고 둔중한 소리가 났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광풍에 몸부림치며 비가 몰방으로 쏟아져내린다. 것처럼 창창하고 따사롭던 날씨가 언제 있었던가싶다.

정문처마밑에 대롱거리던 전등이 꺼졌다. 광풍에 전기선이 잘못되었는지 정전이 되었던것이다. 《손님》은 걸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다. 밖으로 나온 그는 전지불로 주위를 둘러비치었다. 놀라운 광경이 앞을 막아나섰다. 마당 한가득 물이 차서

출렁거린다. 그는 마당에 내려 물속을 발더듬하며 돌아보았다.

개울목에 서있던 황철나무가 넘어져 개울을 가로지르고 거기에 산골짜기에서 뿌리뿔혀 떠내리는 잡관목과 풀줄기들이 걸리고 자갈, 모래가 덧쌓여 큰 동을 이루었다. 그러다보니 동에 차고넘치는 물이 강줄기를 따라 흐르지 못하고 정양소 마당으로 쓸어들어 정양생들이 들고있는 기본건물의 기초를 파먹으며 뒤편 낭떠러지로 수채처럼 쏟아지고있다. 잠시라도 지체하면 건물이 통채로 무너지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왔다.

《기상!- 밖으로 나오시오.》

런거퍼 웨치는 다급한 소리에 놀란 광부들이 침대에서 벌떡벌떡 일어났다. 옷을 입거나 어깨에 대충 걸치거나 헤덤비며 방바닥에 내려서는데 출입문을 밀고 들어온 물이 무릎을 적시었다. 신발을 찾아 신는등 마는등 침방거리며 밖으로 뛰쳐들 나왔다. 비는 점점 더 기세를 돋구며 퍼부었다. 마당가운데서 한 사나이가 우뚝 서서 웨치었다.

《여기로 모이시오.》

빙글거리는 번개불에 그의 모습이 환영처럼 드러나보이였다. 모두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그가 다름아닌 《손님》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손님》이 전지불로 둘러선 사람들을 비쳐보았다. 그들속에는 경비원아바이와 요리사아주머니, 관리원처녀도 있었다.

정양소책임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전날 오후 식료품을 접수하러고 읍에 갔다가 늦어서 친척집에 들려자고 아침에 일찍 돌아올 심산으로 눌러앉았던것이다. 정양생들속에는 지령원이 보이지 않았다.

물아치는 비바람소리를 누르며 《손님》의 단호하고 저력있는 목소리가 울리었다.

《보는바대로 폭우요.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건물들이 무너지고 큰 피해를 입을수 있는데 전투를 벌려야겠소.》

사람들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빨리 파업을 주시오!》

《그럼 제 말을 들으시오.》

《손님》은 전날 산에 함께 올라갔던 젊은 광부에게 말했다.

《동무가 사람들을 두 조로 갈라 한 조는 기본건물앞에 물막이뚝을 쌓고 다른 조가 마당뚝을 파헤쳐 마당에 찬 물을 뽑는 일을 맡아주시오.》

그는 계속했다.

《경비원아바이는 관리원과 함께 정양소안에 있는 삼, 곡괭이, 빈 가마니와 포대를 있는껏 다 동원해주시오.》

그의 말꼬리를 물어채듯 경비원이 맞받아 소리쳤다.

《그것들이 창고에 있는데 책임자가 죄를 잡고 가서 어쩌라우?》

《내가 책임지겠소. 죄를 까고 꺼내시오. 그리고 나에게 도끼와 바줄을 가져와야겠소.》

《손님》은 한 광부의 팔을 잡았다.

《온천뿔프장에 가서 안전대책을 세워주요. 급한 정황이 조성되면 나에게 즉시 알리시오.》

그는 다른 광부에게로 돌아섰다.

《동무는 요리사아주머니와 함께 식당, 돼지우리, 오리사를 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겠소.》

분공을 마친 《손님》은 엄숙히 말했다.

《모두 빨리 움직이시오. 순간이 새롭소.》

그는 마지막말을 던지고 지령원이 들어있는 침실로 달려가 전지불을 비치였다. 지령원이 침대 밑전을 능실능실 활고있는 흙탕물에 내려설수 없어 안절부절하고있다. 《손님》이 물을 차며 들어가 등을 돌려대었다.

《엄히시오.》

지령원은 목소리를 듣고 그가 누구라는것을 알았다. 어쨌든... 도와주니 천만다행이고 고마왔다. 그는 수술한 발을 쳐들며 엄히였다. 《손님》이 천천히 움직이었다. 문턱을 넘어서기 힘들어한다. 자칫하면 꼬꾸라질것만 같다. 그러면서도 거듭 당부한다.

《발을 조심하오. 조심하오.》

지령원은 안타깝고 짜증이 났다. 당부는 말고 빨리 걷거나 할것이지 두발이 성해가지고 이다지 뭇간단 말인가? 겨우 문턱을 넘어섰다. 마당에 나선 《손님》은 여전히 제대로 걷지 못한다. 지령원은 너무 애타서 가슴이 바질대고 이마에 진땀이 돈았다. 본길에 등을 활밀어내고 감탕물에 침범 내리고싶은 심경이다. 《손님》이 가까스로 돌충계를 저저디디며 둔덕으로 올라가 자기 침실에 지령원을 내려놓았다.

《여긴 안전하오. 발을...》

그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희고무레하게 날이 새고있었다. 비는 악물이하듯 여전히 사납게 퍼붓고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흙, 자갈, 모래를 퍼담은 가마니, 포대들 어깨에 메거나 맞들거나 하며 건물앞에 날라다 독을 쌓고 곡괭이와 삽으로 마당독을 파헤치고있다.

경비원이 도끼와 사린 바줄을 들고 다가섰다.

《손님》이 제격 당겨잡고 달리며 소리쳤다.

《따라오시오.》

경비원이 침범거리며 허겁지겁 뒤따라갔다. 개울가에 이른 《손님》은 바줄 한끝을 자기 허리에 동여매고 다른 끝을 경비원에게 던지였다. 그리고는 도끼를 들고 개울을 가로지른 그 황철나무의 동허리를 딛고 올라가 우로 뻗은 아지에 몸을 의지하고 번쩍 도끼를 쳐들었다.

건물앞에 독을 쌓고 마당독을 파헤친다 해도 그 황철나무허리를 잘라 동을 터치지 않고서는 건물에 닥치는 위험을 막을수 없었다. 도끼질소리가 연방 울리였다. 그러기를 한참... 급기야 나무가 잘리워 동에 한껏 실리였던 물과 마당으로 흘러들던 물이 강줄기로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동강난 나무가 내리는 물어 채워 머리를 휩 돌리였다. 그 바람에 나무를 딛고있던 《손님》이 떨어져 사품치는 물살에 휘말려들었다. 바줄을 잡고있던 경비원이 《악!-》하고 경악했다.

그 소리에 놀란 광부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바줄을 잡아당기고 물속에서 뒤치락거리는 《손님》의 옷자락이며 말이며 손에 닿는대로 꼬당기며 법석이었다. 간난신고끝에 겨우 그를 강에서 안아내였다. 그런데 그는 의식을 잃고있었다.

몰려선 광부들은 당황하여 손을 떨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한 광부가 다가들어 《손님》을 업고 곁에서들 부축하며 그의 침실로 올라갔다.

비가 숨을 죽이고 마당에 찻던 물이 눈에 띄게 폭폭 찌기 시작했다. 그때 감탕이 한벌 깔린 마

당으로 승용차가 들어와 바퀴를 지키며 멈춰섰다. 《손님》의 기관에서 동해지구에 폭우와 해일이 있게 된다는 기상예보를 듣고 밤중으로 사람을 보냈던것이다.

차의 앞문이 벌럭 열리며 진회색작업복을 입고 까만 반장화를 신은 풍채좋은 사나이가 내리고 이어 뒤문이 열리며 하얀 위생복차림에 빨간 적십자표식을 단 가방을 든 녀의사가 내리였다. 운전사도 내리였는데 전번에 왔던 그 사람이다.

《손님》침실에 들어온 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라는것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의사가 환자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보고 위생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내며 혈압을 재었다. 그는 저르기 떨리는 손으로 환자의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신발을 벗기였다. 그 순간 둘러서서 지켜보던 광부들이 뜻밖의 놀라운 광경에 흠칫 뒤걸음쳤다. 그들틈에 끼워섰던 지령원은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쓰러질듯 비칠거리였다. 그들은 《손님》의 오른쪽발목에 의족이 매달려있는것을 보았던것이다. 발목에서 흐르는 피가 살빛의 죽을 빨강게 물들고있었다. 의사가 술령대는 그들을 피곳 뒤돌아보았다.

《좀 나가들 주십시오.》

그의 찌를듯 한 예리한 눈빛, 젖고 떨리는 목소리는 광부들에게 자책과 슬픔을 더해주었다. 그들은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방에서 나와 마당가에 몰켜섰다.

기초가 드러난 맞은편 2층건물이 묵묵히 그들을 내려다보며 서있다. 재빛 문계구름이 뒤틀린 심사를 채풀지 못한듯 뒤엉키며 서쪽하늘가로 서서히 떠가고있다.

아침해가 성긴 구름사이로 깃을 퍼듯 밝은빛을 짙 뿌린다. 비에 씻긴 산이며 건물들의 지붕이며 키높이 물려선 나무들이 해빛을 받아 령통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아름다운 풍경이건만 누구도 머리를 들어 바라보지않았다.

이윽하여 승용차를 타고온 그 사나이가 운전사와 함께 나오며 일렀다.

《30분간 안잠시키고 떠납시다.》

운전사는 슬픔에 잠긴듯 대답을 앓고 눈을 슴벅이며 마당으로 내려갔다.

모두 입을 다물고 서있는데 물참봉이 된 정양소책임자가 바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낮선 사나이에겐 어쭙은 낮빛으로 자기 소개를 했다. 그 사나이는 반기는 기색이 없이 《그렇습니까. ○○연구소 부소장입니다.》하고 받았다. 인사를 나누고나서 그는 손으로 침실을 가리키며 말하기 시작했다.

《저 동무는 우리 연구소에서 매우 아끼는 사람입니다. 해군에 복무했는데 적들의 도발로 벌어진 해상전투에서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고 적의 기총탄이 발목을 관통한 상태에서 갑판위에 쓰러진 전우를 한쪽 팔에 끼고 바다를 헤엄쳐나와 소생시킨 공화국영웅이며 영예군인입니다.》

모두 놀란 눈으로 부소장을 쳐다보았다.

그는 계속했다.

《제대되어 대학을 나와 우리 연구소에서 사업하는데 광물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건의 가치있는 설계를 한 책임설계원입니다.》

최근에 중요한 설계를 맡아하는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탐구를 거듭했지요. 그런데 전투에서

피를 많이 흘린데다가 파로운 탓에 몸이 더 쇠약해졌습니다. 얼마전엔 의식을 잃고 설계대밀에 쓰러졌드랬습니다. 소장이 당장 료양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당조직의 결정이라고 하자 저 동무는 머리를 숙이었습니다. 자기의 쇠약한 몸이 설계완성에 지장줄수 있다는것을 느꼈던 겁니다.»

정양소책임자가 듣다못해 참견했다.

《그렇게 귀중한 사람을 왜 치료조건이 좋은 국가료양소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자그만한 광산정양소에 보냈습니까?》

부소장이 잘못을 뉘우치는듯 낮빛을 흐리며 말했다.

《저 동무가 어졌는지 압니까? 소장이 국가료양소에 수십일간 갔다와야 한다고 하자 꺾쩍 뛰었습니다. <소장동지! 그건 안됩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시간과 날을 다투며 키돋움하는 정보산업시대가 아닙니까? 치료도 설제도 속도있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이면 저의 머리가 녹출기에 충분합니다. 녹슨 머리의 육체를 아꼈다 무엇에 쓰겠습니까?》

전 규모가 큰데보다 우리 사업과 련관있는 기업소의 정양소에 가서 소탈하고 대범한 광부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의 놀음놀이에도 끼우면서 두어주일 휴식하면 몸이 추서고 머리가 거뜬해질것 같습니다.>라고 했지요.

소장이 생각을 더듬고나서 그렇게 조직해주겠는데 몸무게가 불어오지 못하면 처벌로 사업에서 쫓겨 장기료양이나 입원치료를 시키겠다고 오금을 박았습니다.

저 동무가 이곳으로 떠나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장이 그의 가방을 보고 무엇이 들었기에 부피가 큰가고 들었는데 사품 몇가지라고 대답했지요. 소장이 좀 보자며 가방을 열었는데 사품밖에도 기술원서와 종이통구리, 제도기곽, 휴대용전자계산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소장이 <하- 이 친구 이렇다니까. 거기 가서 또...안되겠소. 모두 압수요.>하며 그것들을 다 꺼내어 결에 선 설계원처녀에게 넘겼습니다. 그대로 자기 집에서 준비해온 도중자사, 당과류, 영양제알약병이 든 비닐구역을 넣어주고 일어나 가뒀한 수지봉을 들고 설명했습니다.

<마디를 다 뽑으면 6.5메터 대형낙시대요. 정양소 가까운데 강이나 늪이 있으면 붕어를 낚아보시오. 낙시질에 재미붙이면 온갖 잡생각을 다 잊게 되고 머리가 거뜬해지오. 그렇다고 이 소장이나 부서동무들까지 잊으면 안되겠소.> 이 말에 결에서들 웃었지요. 모두 저 동무의 이번 정양이 잘되기를 바라고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부소장은 손수건으로 눈언거리를 문지르고나서 정양소책임자에게 물었다.

《저 동무가 그동안 식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자는 대답하기가 난감하여 낮을 찡그리며 입을 열었다.

《저희들이 성의껏 차려드렸는데 위가 말썽하면서 죽을 요구했습니다. 좀 만만한 음식을 해드리겠다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광부들과 한 식탁에서 먹겠다는걸 말렸습니다. 너무도 대조적인 식사가 광부들에게 격경 끼치고 본인의

치료에도 좋지 못할것 같아서요.

온천욕을 하니 위가 편안해지고 입맛이 돌아선다면서 며칠전부터는 밥을 요구했습니다. 료리사 아주머니와 관리원처녀는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줄은...》

두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광부들의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한 광부는 돌아서서 손바닥으로 눈굽을 훑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와 부소장에게 《이젠 떠나도 되겠습니다.》하고 알리었다. 부소장이 《알겠소.》하며 침실쪽으로 돌아섰다. 젊은 광부가 그보다 앞서 성큼성큼 침실로 들어가 책임설계원을 업고 나와 마당으로 내려섰다. 광부들도 하나둘 따라 내려갔다.

의사가 승용차안에 들어가 책임설계원을 안아들이었다. 그는 아기를 다루듯 그의 다리를 조심히 펴주고 상반신을 자기 가슴에 꼭 껴안았다.

모두 울적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지령원이 불쑥 다가가 차창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었다. 그런데 의사가 마주보며 머리를 저었다. 지령원은 주춤 손을 내리었다. 그는 고뇌로 멍치가 불뚱치같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빠개질듯 조여들었다.

어떻게 하나 책임설계원에게 정중하고 열렬하고 정깊은 말로 용서를 빌고 그의 건강회복과 사업에서의 성과를 고무해주고싶었다. 하건만 눈을 감고 시진하게 의사의 가슴에 안긴 그를 무슨 말로 불러 깨운단 말인가?

《순님!》이라고? 어찌 그럴수 있으랏...

그가 안타까와 턱을 떠는데 병곳 뇌리를 치는 충격에 쿵 가슴을 울리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참뜻을 심장으로 깨닫는 정중하고 열렬하고 정깊은 부름이 가슴벅차게 솟구치는 울림이었다. 그는 서슴없이 웨치었다.

《동지!》, 《동지!-》

책임설계원이 꼭 꺼진 그러나 예지로운 눈빛으로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웨치는 사람이 누구라는것을 알아보고 손을 들어 아래쪽을 가리켰다. 지령원은 그가 무엇을 묻는지 알아챘다. 그는 북받치는 오열을 눌러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제 - 발은... 별일 ... 없습니다》

그 말에 책임설계원은 안도의 숨을 쉬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끄덕이었다. 그리고는 맥이 진한듯 눈을 감으며 의사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승용차가 움직이었다. 지령원이 손을 들고 따라가다가 간격이 멀어지자 멈춰섰다. 승용차는 비물에 패워 울퉁불퉁해진 자갈길을 조심하는듯 앞머리를 저으며 들길로 나가 기본도로에 꺾어들자 쾌속으로 달리었다.

빨리 병원으로! 병원으로! ...

재촉하는 의사의 마음을 싣고 승용차는 점점 멀어지더니 사라졌다. 지령원은 못박힌듯 우뚝서서 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동지!》라는 부름이 새롭고 깊은 의미를 안고 고래치고있었다.

《카프》작가 류완희와 그의 창작

오늘날 독자들속에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카프》작가편)을 비롯하여 여러 영화와 출판물들을 통하여 조명희, 송영, 리기영, 박팔양 등 《카프》작가들에 대한 자료들이 적지 않게 알려져있다.

그러나 《카프》의 쟁쟁한 시인들중의 한사람이었던 류완희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그의 생애가 짧고 발굴된 작품이 적은데로부터 아는 사람이 흔치 않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명희, 송영, 리기영, 한설아, 류완희, 김창술, 박세영, 박팔양을 비롯한 <카프>에 망라된 많은 작가들이 맑스주의를 신봉하고 무산계급의 계급적해방을 지향하였으며 그들이 1927년이후에 내놓은 작품은 대체로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이였다.》

류완희는 《카프》의 손꼽히는 대표적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비교적 명백한 계급적립장과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창작 전기간 시종일관하게 착취받고 억압받는 근로인민대중의 편에 서서 사회적으로 순을 비판하고 민중을 투쟁으로 불러 일으켰다.

1903년 경기도 통인군 대사면 송문리(당시)의 한 빈농가정에서 출생한 류완희는 아버지의 피타는 노력으로 주체9(1920)년 서울제 1 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주체12(1923)년에 서울법정학교를 졸업하였다.

학창시절부터 문학에 뜻을 품고있던 그는 법률가가 되라는 사람들의 권고를 뿌리치고 《동아일보》 편집국기자로 그후 《시대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예리하게 까밝히는 신문기사를 쓰는 한편 시장작을 진행하였다.

류완희가 시인으로서의 자기의 얼굴을 처음으로 드러낸것은 법정졸업후 선진적인 시대사조에 편승하여 새롭고 힘있는 생활을 개척해나갈 결의를 담은 서정시 《내가에 앉아》를 《현대조선시인선집》 [주체12(1923)년]에 발표한 때부터이다.

주체14(1925)년에 《카프》가 조직되자 즉시 거기에 가입한 그는 보다 계급적성격이 뚜렷한 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적구》라는 자기의 필명을 가지고 경향성이 강한 시와 수필, 평론들을 련이어 문단에 발표하였다. 그의 필명을 우리 말로 풀이하면 《붉은 망아지》라는 뜻으로서 여기에는 당시 광범한 전세계 무산민중에게 승리의 희망을 안겨주고 계급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

려는 굳은 결의가 그대로 어리어있었다.

실지로 그는 그후 시 《너직공》, 《희생자》, 《향락시장》, 《나의 행진곡》, 《가두의 선언》, 《어둠에 흐르는 소리》 등 자기의 작품들에서 계급적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한껏 내달리는 것과 같이 자유분방하면서도 여운이 쟁쟁한 필치로 당대 사회의 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했으며 투쟁을 호소하였다.

당시의 《대조》잡지 제5호(1930.8)에 실린 《조선프로예술운동의 과거와 현재》(민병휘)라는 글에는 《그때 (1924~1925)의 평가(평론가-필자주)로는 예술과-협상섭-이 대표적맹장이였고 신흥파에는 박영희, 김기진씨 등이였고 작가로는 예술과에 라도향, 현병허, 박월란, 김안서 등이였으며 신흥파에는 리기영, 송영, 류완희, 리익상, 김영팔, 최승일 등이였다.》라는 구절이 있는바 이 글은 그 시기 카프문단에서 류완희의 지위를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참고로 되리라고 생각한다.

류완희의 대표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품의 하나로 평가해주신 시 《민중의 행렬》이다. 시에서는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투쟁에 나선 로동계급과 무산민중의 도도한 흐름을 승리에 대한 락관과 결부시켜 힘있게 노래하였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류완희의 시들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있는 《가두》의 설정이다.

그때 류완희보다 한발 앞서 활동한 《신경향파》작가 리익상은 자기의 수필 《이 풀, 저 풀》에서 《가두처럼 민중의 생활반면을 보이는것이 없다. 늘어나는 민중의 가두-늦은 봄에 피여오르는 숲 같이 보인다. 줄라드는 민중의 가두-조잔한 가을의 석양별에 누운 황야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서 《먼지와 같이 추악, 기만, 비밀, 음모, 유혹이 뛰고 노는 가두다. 조선의 가두에는 이밖엔 몇가지가 또 있다. -그것은 애조이다. 무기력이다.》라고 당시의 가두정서를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류완희의 시에서 《가두》는 《프로레타리아의 행렬》이 《군세계 전진하는》 《가두》, 《증오에 타는 거리, 본격에 불붙는 거리》, 시인자신이 《민중의 앞에 서서 민중과 함께》, 《간판이 되고 <뼈>가 되여》 나가려는 《가두》이다. 즉 그 가두는 크든작든 전진하는 민중, 투쟁하는 민중의 가두로서 계급적지향과 힘이 흐르는 가두, 공개적인 계급투쟁의 마당을 의미한다.

여기로부터 류완희의 시는 종전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가두》서정-투쟁의 서정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류완희는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이르러 되살아난 고질병으로 인하여 현실과 떨어져 탁상문학에 빠져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이후 그의 시들에서는 종전처럼 전투적이며 기백있는 시형상보다도 현실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애상적인 서정세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씌여진 대표작품이 편정시 《단장》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와서도 류완희는 시 《태양으로 가는 무리》, 《자라는 힘》, 《생명에 바치는 노래》 등에서와 같이 비록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시형상으로나마 새것은 승리하고 낡은것은 멸망한

다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려고 시도함으로써 부르조아지의 멸망과 무산계급의 승리를 지향하는 자기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물론 계급투쟁을 민족해방투쟁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우리 혁명의 구체적인 수행방도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따라세우지 못한 《카프》시문학일반의 부족점은 가지고있으나 류완희는 창작 전기간 동요나 변질이 없이 시종일관 무산계급의 리익을 옹호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시인으로서 문학사에 한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김청송

강철로에 띄우는 편지

전승일

강철로여

불덩어리되어 지동치는

너의 동체앞으로

우리 장군님께서 오르셨다지

눈물부터 앞서는 이 소식앞에

어제날의 용해공 나의 심장은

단숨에 백수십개 철계단을 뛰어넘어

로정으로 날아오른다

장군님 야전복자락을

눈물로 적셨다는 로장아바이며

장군님앞에서 출강구를 터쳤다는

동갑이 최동무며 박동무

잘 익은 쇠물남비를 로정의 하늘가에 들고

불새마냥 가로세로 날아다녔다는

단발머리 영아까지도

달아오른 이 가슴에 열싸안고

얼굴을 부비고싶구나

쇠물을 보니 힘이 생긴다고

붉은 쇠물이 폭포쳐야

선군조국이 굳건해진다고

찌렁찌렁 로정을 울리실 때

부럽구나 벗들이여

어제날의 용해공 이 시인도

강철의 근위병이라 불러주신 그대들곁에

함께 땀젖어 서있었더라면

-장군님 쇠물이 잘 익었습니다

행복한 이 한마디

그대들과 함께

뜨거이 아되일수 있었더라면...

허나 강철로여

장군님께 힘이 된 선군의 불덩어리여

믿어다오 어제날 너의 출신

식을수 없는 이 용해공의 심장을

너를 떠나 나의 시는

단 한줄의 사람도 노래하지 못하리라

너를 떠나

단 한줄의 뜨거운 애국도 서리발 증오도

웨치지 못하리라

나의 부대는

푸른 잉크가 아니라

너의 수천도 붉은 쇠물을 찍어

이 강토에 웨치고 웨치리라

나의 노래는

밤에도 낮에도 붉은 성새처럼 달아있는

너처럼, 너를 닮아 조국앞에

뜨겁고 또 뜨거우리라

오. 강철로여

너처럼 지동치며

너처럼 뜨겁게 살고싶어 몸부림치는

어제날의 이 용해공을

믿어다오

세월이 간다 해도

물갈기 사나운 불덩어리 네앞에서

붓대를 들어온 영원한 용해공으로

조국의 붉은 피를 끓이며

나도 함께 서있음을



《큰자종심》에 대한 이야기

김해성

겨울방학의 하루해를 얼음판우에서 지운 애들이 《척척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저마끔 돌아와 텔레비존앞에 나앉는 저녁무렵이었다.

조복심할머니는 2층집 아래방에서 중학생들인 손자, 손녀들을 앉혀놓고 옛말을 들려주고있었다. 80고개를 눈앞에 둔 할머니였지만 아직 기력이 정정하고 말도 류창하게 잘한다. 손짓과 표정을 써가며 하는 옛말이 어찌나 구수하고 생동한지 아이들은 텔레비존을 제쳐놓고 할머니곁에 모여 들곤 했다.

《이건 지어낸게 아니라 실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서두를 땀 할머니의 옛말은 오랜 세월을 거슬러 추억의 노를 저었다.

《옛날 서울장안엔 먹는 물이 참 귀했단다. 수십만 인종이 오구구 모여들어 북작거리는 도시라 땅속은 오수투성이였고 강물마저 어지러웠지. 그래서 왜놈들은 한강상류에 수원지를 건설하고 수도공사를 하느라고 했지만 수도물은 왜놈족속들과 몇몇 친일관료놈들에게나 차례졌을뿐이란다. 오죽하면 서울바닥엔 쌀보다 물이 더 귀하다는 말이 돌았겠니.》

그 물시제를 리용하여 여러 지방에서 물지게군들이 많이 몰려왔었지. 그들중에서도 북청물지게군이래면 이악하기로 유명했단다.

일찌기 반일애국운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항일유격대의 백두산바람에 눈이 튼 북청사람들은 애국심과 민족정신이 강했지. 그 북청물지게군들속에는 힘꼴이 세고 부지런하여 흰옷입은 <소>라는 뜻에서 백우라고 불리운 사람도 있었구나.》

새각시시절부터 여기 동천땅에서 살아오지만 여전히 감칠스러운 고향말씨가 숨배인 할머니의 이야기는 옷방의 침대에 걸터앉은 진학의 귀에도 흘러든다. 진학은 이미 여러번 들은 옛말이지만 또다시 그 이야기에 끌려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마 할머니의 풍부한 표현력의 《마술》때문인지.

...

젊어서는 희망에, 늙으면 추억에 산다고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옛말하기를 즐겼다. 진학이도 아이적에 할머니의 옛말에 귀가 솔깃해지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옛말의 흥미보다도 그속에 담긴 생활철학을 음미해보게 되는 어른인것이다.

《백우에게는 18살난 아들이 있었는데 서울에 와서 대학시험공부를 하고있었지. 백우는 아들을 대학에 붙이기 위한 돈을 마련할래, 두사람의 생활비를 댈래 그야말로 폭우가 쏟아지건 눈보라가 치건 가리지 않고 이른새벽부터 드달려다녔다.》

할머니는 텔레비존의 음향을 죽인 고요한 방안에 조상들이 걸어온 다난한 력사의 한토막을 방불히 펼쳐보인다.

...

서울시가지의 유축에 붓긔하게 솟아오른 둔덕우에는 《어여쁜 강남》이라는 이채로운 간판을 내건 화초원이있었다. 몇채 안되는 온실에 자그마한 정원과 음식점을 갖춘 아담한 화초원이었으나 원예학에 조예가 깊은 주인이 가꾸는 희귀한 꽃들로 사철 장식되어 춘하추동 손님들이 많은 곳이었다.

백우는 이 화초원과 음식점, 주인네 살림집에서 쓰는 물을 도맡았다. 화초원에서는 꽃들을 가꾸는데도 공장오수로 오염된 강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썼기때문에 길어야 할 물량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벅했다. 그는 어둑새벽에 100리터들이 목통 2개를 실은 손달구지를 끌고 20리 떨어진 산골짜기에 가서 물을 길어왔다. 그리고 둔덕우까지 물지게로 저올리곤 했다. 하루에도 세탕, 네탕씩 고역을 치르고나면 다리가 후들거렸다.

때로는 아들녀석이 아버지지를 돕겠다고 손달구지를 따라나서기도 했으나 그럴 때면 아버지의 입에서 벼락이 쳤다.

《내가 널 부려먹자고 이 고생을 하는거냐? 남들이 한시간 공부할 때 열시간 공부하는게 이 아비를 돕는거다.》

백우는 풍전을 쪼개여 학업의 기초가 약한 아

들을 공부시키자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원래 고역을 치르는 물지게군들은 누구라없이 황소식성이다. 그래서 서울에는 아무것도 남은게 없이 반반히 빈것을 보고 《울지게군의 밥상》(혹은 사발>갈다)는 성구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이 역대우같은 사나이는 저녁때마다 주인집에서 차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보자기에 싸곤 했다. 하숙집에서 배를 고으며 공부하고있을 아들과 나누기 위해서였다.

이런 일이 여러번 거듭되자 선량한 안주인은 아예 두사람몫의 밥과 반찬을 싸주도록 했다.

그러자 백우는 못내 미안해하며 안주인에게 말했다.

《날 렴치없는 놈으로 만들지 마시우. 정 그러면 굶배기밥값은 물샛에서 떼시우다.》

《아유. 고지식하거란... 아주버니의 수고때문에 우리음식점의 음료가 손님들을 끌어요. 그래서 화초원도 더 흥성거리구요.》

안주인의 말은 사실이였다. 백우는 길이 험하여 여느 물지게군들이 가기를 저어하는 청계골의 수질좋은 샘물로 음료수를 보장하였다. 그는 아무리 곳은 날도 다른 물을 길어다가 어물쩍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화초원집에서는 남들보다 물샛을 높이 쳐주려 했으나 백우는 여느 물지게군들이 받는 값이상 한푼도 더 받지 않았다.

안주인은 눈만 꺾뻗거리고 선 백우의 물지게초롱에 푸집한 밥보자기를 엮어주었다.

《우리 다같은 조선사람들인데 아들을 공부시켜 쪽발이놈들을 놀려보자는 그 심정을 왜 모르겠나요.》

백우는 더 거절하지 못하고 아들이 기다리는 하숙집으로 종종걸음쳤다.

...

진학은 전화종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침대머리에 놓인 원탁우에서 뿔릴리리- 하며 보채는 송수화기를 들자 삼촌의 웅글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진학이냐? 오늘은 일찍 들어왔구나.》

《할머니가 삼촌의 생일이라고 빨리 오라기에...》

《이 바쁜 때 생일이 다 뭐냐. 오늘 공장참모회의가 있었다.》

진학은 마을을 도사리며 귀를 강구었다. 그의 조바심을 헤아린듯 삼촌은 직통배기로 말했다.

《우리 너의 <멋쟁이로> 대신 이미 있던 로들을 개조하여 <보열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삼촌이 《반대파》의 거두로 나선 지금 달리 될수 없는 관건이었지만 정작 그것을 받아들이자니 진학은 숨뭉치를 삼키는듯 했다.

《로를 잘 아는 공장기술자를 <보열식>팀에 붙여주기로 했으니 빨리 로개조안에 착수하거라. 명심하길 바란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데 사나이의 용기가 필요하다는걸.》

기사장 허국산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는듯 전화를 끊었다.

진학은 원탁우에 말아놓은 《멋쟁이로》도면을

열없이 지켜보았다. 아기같이 사랑스럽고 거인같이 자랑스럽던 자기의 창조물이 한갓 종이우에 그려진 봉황새에 불과했는가. ...

진학이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자진하여 이곳 내화물연구소에 내려온것은 함흥화학공업대학 학부장인 아버지의 뜻이였다.

《너도 알다싶이 동천땅은 네 할아버지가 큰 공장의 지배인으로 일하시던 곳이다. 지금은 네 삼촌이 그 공장의 기사장으로 있구.

그곳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에서 밝혀주신대로 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떨쳐나섰는데 풀어야 할 기술적문제가 적지 않은가부다.

네가 그곳에 가서 한몫 해준다면 난 고향사람들앞에 떴뻐하겠다.》

진학은 아버지의 요구를 혼연히 접수하였다. 전망이 큰 동천지구야말로 새 세대 주인공들이 나래를 펼쳐볼만 한 활무대였다. 그는 연구소에 입직한 후 할머니를 모시고있는 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국내산연료로 고품질의 경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맡았다.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경소는 날로 수요가 높아 마그네사공업의 전방적인 수출품으로 인정되고있다. 하지만 이때껏 국내산연료로 생산한 경소는 질이 낮아 국제시장에서 호평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비싼 콕스나 증유를 때는 것은 원가수지가 맞지 않을뿐더러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 절름발이식이였다.

젊은 연구사 허진학은 공장활성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탐구의 강행군을 시작하였다. 인민대학습당에서 열공학기술문헌자료들을 깡그리 뒤져 보았고 이름난 공장의 소성로는 물론 지방공장의 보이랴에 이르기까지 열효률을 높이는데서 성공했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며 방도를 모색했다.

드디어 3년, 열공학이라는 험산준령을 뚫으며 자기 식의 길을 개척해온 3년만에 그는 새로운 열공법에 의한 《보열식》로를 창안하였다. 그것은 그야말로 비상한 창조력의 산물로서 비상한 과문을 일으켰다. 고품질경소생산연구에 10년, 20년을 바쳐온 로세대 기술자들속에서는 부정하는 사람,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나 기발하게 착상한 《멋쟁이로》라고 감탄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더구나 공장의 권위있는 실력가인 기사장이 《보열식》을 적극 지지했기때문에 《반대파》들도 완강히 반기를 들지 못했다.

사실 삼촌이 떠밀어주지 않았다면 진학은 세찬 역풍에 갈팡질팡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연구에 불을 다루던 풍부한 경험도 보태어주고 그가 길을 떠날 때면 도중식사로부터 여러모로 마음을 써주는 삼촌이였다.

기사장의 후원으로 배심든든한 진학이는 자기의 창안이 운명적인 저울대에 오른 때에조차 자기네 연구조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보란듯이 배구를 치면서 꺾꺾 웃어댈수 있었다.

이윽고 공장과 연구소의 일군들, 기술자들이 다 참가한 기술협의회가 열리였다. 먼저 새로운 소성법의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학술적인

론의가 벌어졌다. 진학은 논리정연하고 확신에 찬 주장으로 모두를 납득시키었다. 협의회분위기는 30살이 갓 넘은 연구사의 젊은 심장에서 타오르는 창조적지향의 불에 찬물을 끼얹는것은 물지각한 행위로 여기게끔 번져졌다. 결국 대담하게 투자하여 《보열식》시험로를 건설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때 뒤구석에 얹전하게 앉아있던 녀인이 조심히 일어났다. 별에 그을려서인지 낮이 가무스레하고 오목한 눈가에 잔주름이 비껴 처녀인지 부인인지 대중할수 없는 녀기사였다. 그는 아련한 인상과는 달리 처음부터 여무진 말로 좌중의 이목을 틀어잡았다.

《저도 <보열식>의 혁신적인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장에는 <고난의 행군>때부터 실리가 맞지 않아 그냥 서있는 소성로들도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로를 건설하느라고 나라에서 돌려준 귀한 자금을 꺼내쓰기가 손이 떨리지 않겠는가고 말입니다. 만일 제 주머니에서 꺼낸 돈이라면 누구나 심사숙고할것입니다. 나라에서 술한 자금을 들여 건설한 로들을 다 켜버리는것은 죄악입니다. 사실 그 로들은 10여년밖에 돌리지 못했고 아직 낡았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세워둔 소성로들의 화실만 개조하면 얼마든지 <보열식>을 도입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 로들에 컴퓨터화까지 실현한다면 새로 창안된 <멋쟁이로>에 못지 않게 개변할수 있는데 구태여 새 로들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녀기사의 말은 길지 않았으나 좌중에 던진 충격은 컸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보였다.

진학은 모욕감에 아래입술을 감쳐물고 잘근잘근 깨물었다.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도전이었다. 진학은 젊은 자기를 모욕하는것은 참을수 있었으나 새 로건설의 주창자인 삼촌을, 기사장을 모욕하는것은 참을수 없었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물론 이미 있던 로들을 개조한다면 자금은 훨씬 절약될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시간을 잃게 됩니다.

가장 적합한 계산수치로 이루어진 설계를 뒤집고 다시 시작하자면 용적이 어방없이 큰 기성로들의 열효율을 보장하는것도 그래, 이미 갖추어진 설비들을 리용하여 컴퓨터화된련속소성공정을 꾸리는것도 그래, 이모저모로 불합리합니다. 때문에 기성로들을 개조하느라고 씨름하면서 시일을 질질 끄는것보다 새 로를 건설하는것이 효과적인 지름길이라는것은 명백합니다. 종전보다 훨씬 적은 원가로 큰 리운을 얻게 될 새 로들은 인차 건설비를 뽑을것입니다.》

진학은 열변을 토하며 앞자리에 앉은 삼촌을 슬며시 쳐다보았다. 기사장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벗어진 이마가 별로 창백해보였다.

《우리가 새 세기의 추세에 맞게 기술을 발전시

키자면 대담하게 투자해야 한다는것은 이미 상식으로 되고있습니다. 문제는 자금이 아니라 실무적인 타산만 앞세우는 립장입니다.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관점때문에 우리는 더 높고, 더 빨리 도약하지 못하고있는것입니다.》

진학의 말이 날카롭게 날이 서자 삼촌은 눈을 홑떴다. 술갈이 수복한 눈섭이 꿈틀거렸다.

진학이가 자리에 앉자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의견이 엇갈리는 불협화음속에서 녀기사는 머리를 수그린채 어깨를 떨고있었다. 녀성의 무기라는 눈물로 계속 도전하는듯싶었다.

기술협의회는 밤이 깊어서야 끝났다.

그날 밤, 진학은 삼촌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물었다.

《도대체 그 녀자는 누구니까?》

《공장대학을 졸업하고 공업시험실에서 일하는 처녀이다. 29살이 되도록 숨죽인 로들을 실리적으로 개조해보겠다고 제탄에 애를 써온다.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없지만 마음만은 기특하지.》

(그러니 우물안에서 앓아몽개는 개구리가 창공에 나는 수리개에게 주먹질을 하는셈인가.)

진학은 자존심이 불끈거려 분격을 터치였다.

《처녀인데 어벌푼지가 크군요. 죄악이요 뭐요 남을 함부로 비난하면서...》

《순아가사의 말이 옳다. 큰 죄악이지.》

삼촌의 돌변한 태도에 진학은 얼터름해졌다.

그때 국산의 걸음은 무거웠다. 국에서는 수출품경소의 품질을 높이는 문제가 절박하기때문에 다른 나라의 《연가스화》를 받아들이자는 안도 제기되었다. 《연가스화》는 그 나라에서 선진기술을 개발했다고 떠드는 수수께끼같은 경소소성방식인데 그것을 도입하자면 많은 외화를 들여 설비를 일식으로 사와야 한다. 그게 마음에 걸려 우리 식의 소성법을 빨리 추진시킬 욕심만 앞세운 그였다.

《내가 너무 흥분되어 현실을 보는 눈이 벌어졌다. 현실의 토양에 뿌리박지 못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겠느냐.》

국산의 무거운 음성은 진화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떨어졌다. 진학은 결정적인 대목에서 뒤걸음치는것 같은 삼촌이 못마땅했다.

《삼촌, 정말 답답합니다. 눈앞의 공장실정만 운운하다가 언제 최첨단수준에 도약하겠어요. 될수록 빠른 길을 택해야지요.》

《빠른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택하자는거지. 나라사정은 안중에 없이... 난 <보열식>을 창안한네가 대학공부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고 기뻐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넌 대학에서 신발을 바로 신지 못했구나.》

(내가?... 대학적인 최우수졸업생인 내가 신발을 바로신지 못했대구?)

진학의 자존심을 창끝처럼 찌러대는 삼촌의 호된 질책은 계속 이어졌다.

《옛날 북청 물지게군들은 제 자식 하나를 공부시키려고 아득바득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를 어찌 아무리 어려워도 허리띠를 조이며 천만자식

을 공부시킨 나라의 부모구실에 비기겠니.

그래 너를 대학공부시킨 나라의 자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거냐? 넌 대학에서 기술지식만 배웠지 나라부터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배우지 못했구나. 현실에 발을 붙이자면 신발부터 바로 신어야 한다. 그래야 제발로 걸을수 있거든.》

삼촌의 준절한 말에 진학은 자기 주장을 더 고집할수 없었다. 그는 과학기술의 무한대한 창공을 마음껏 활개쳐보려던 날개가 《공장실정》이라는 절벽에 부딪쳐 죽지부러진 새가 된듯 한 심정이었다.

...

아래방에서는 할머니의 옛말이 시내물처럼 도란도란 흘러가고있었다.

《백우의 아들은 아버지가 아글라글 벌여주는 돈을 헛되게 할세라 밥을 때며 공부했지. 밥먹는 시간마저 아까워 책을 읽으며 술질을 하다보니 짹하면 하숙집 고양이한테 밥을 떼우곤 했단다.》

아이들이 키드득 웃는 소리가 들린다.

진학에게는 할머니의 옛말이 먼산의 메아리처럼 울려왔다. 아까부터 삼촌이 전화로 던진 말이 뇌리에 파고들뿐이다.

《명심하길 바란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데 사나이의 용기가 필요하다는걸.》

(좋다. 내 사나이의 용기를 보여줄래다.)

그는 속으로 부르짖으며 부라부라 웃을 찾아있었다. 그가 도면말이를 부둥켜안채 아래방으로 내려가자 할머니는 옛말을 그치었다.

《삼촌이 곧 들어올텐데 어델 가려구?》

《삼촌이 뭐 생일을 아나요. 혼자 공장일을 다하는것처럼 ... 나도 나가봐야겠어요.》

진학이가 우물렁거리며 뛰쳐나가다싶이 하자 조씨는 하얗게 센 머리를 흔들며 꾸념했다.

《원, 성미들도...》

남한테 지는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미를 피줄과 함께 물려받은 자식들때문에 기쁠 때도 속썩을 때도 많은 할머니였다. 강한 승벽심에서 솟구치는 불은 건잡을수없이 타번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과 불이 마주쳐 격렬한 불꽃을 튀기기도 하는것이다.

할머니가 창가에서 점도록 내려다보는 밤거리에 나선 진학은 어둠을 태우며 화광을 뿜어올리는 공장을 향해 씨엥씨엥 걸었다. 공장은 밤바다속에서 움쉴움쉴 태동하며 씩씩 통숨을 내쉬는것 같았다. 이밤에도 쉬임없이 달리는 공장의 거센 숨결이 활력을 부어준듯 진학의 걸음은 빨라졌다.

×

아침에 터진 바람이 눈가루를 뽀얗게 날리며 공장구내를 태질하고있었다. 일찌감치 연구소를 나선 진학은 숨죽인 로들이 쓸쓸히 서있는 현장으로 갔다.

뜻밖에도 로체장밀에 큼직한 가방을 든 처녀가 먼저 와있었다 연회색솜옷을 껴입고 흰 털수건을

목에 두른 수수한 옷차림의 처녀를 알아본 진학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그러자 처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전 연구사선생을 기다리는중입니다.》

《나를?- 어째서요?》

《전 오늘부터 <보열식>팀에 망라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후보선수라고 할지...》

추위때문인지 처녀의 낮빛이 차거워보였다.

아마 세워둔 로들을 살려보자고 다년간 씨름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너기사를 일명 <보열식>팀이라고 부르는 진학이네 연구조에 보낸듯 했다.

(아무 일도 치지 못한 로처녀가 무슨 도움을 주겠다구... 이 말쑥 너자는 오히려 우리 팀의 안삼불만 흐려놓지 않겠는가.)

진학은 삼촌의 조치가 내심 달갑지 않았으나 대범한 기색을 지어보이려고 애썼다.

《어쨌든 같이 일해봅시다.》

순아는 입김을 허공에 뿌리며 계단으로 먼저 올랐다. 진학은 그의 안내를 받아 텅 빈 로들을 돌아보았다. 어수선한 바람에 먼지만 흩날리고 구석구석에 녹이 쓴 로들을 보니 막연했다.

진학은 셈숫듯 하는 한숨을 억지로 누르며 기성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순아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순아는 단마디로 대답하곤 했으나 그가 로상태를 손금보듯 안다는것이 느껴졌다.

그들이 돌아올 때 처녀는 얼마간 뒤떨어져 따라왔다. 너자의 보폭이 짧으니깐 그런가부다고 생각한 진학은 걸음을 늦추었다. 그러자 처녀도 역시 걸음을 늦추는게 아닌가 어쩐지 나란히 함께 걷는것을 굳이 피하는 눈치였다.

(기술협회의때 얼어든 감정이 웅쳐있는가?...)

진학은 연구소의 자기 방에 들어 오자 잠자코 뒤따라온 순아에게 불쾌한 내심을 터놓았다.

《우린 앞으로 보조를 맞추기가 힘들것 같구만.》

순아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더니 입을 열었다.

《리해해주십시오. 사실 전 공장사람들앞에 나서기조차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뭘 한다고 소문만 내고 몇해동안 공밥을 먹은 저를 모두 손가락질하는것 같아서요. 이런 꼴로 어떻게 공장의 전망을 열어놓을 기발한 소성법을 창안하여 이름이난 연구사동지와 어깨나란히 걸을수 있겠습니까. 전 함께 걸을 자격도 없습니다. 동지의 인격마저 깎는것 같아서...》

진학은 다소 어리둥절하여 새삼스럽게 처녀를 여겨보았다. 지어낸 겉손은 일종의 교만이다. 그러나 순아의 낮에는 꾸밈없는 진정이 어려있었다.

《히, 공장의 전망을 열어놓을 <기발한 소성법>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가 아닐가요?》

《전 20대에 벌써 학위까지 받은 동지의 열정과 실력을 믿습니다. 이때껏 숨죽인 로들을 볼 때면 죄를 지은듯 했었는데... 제 능력이 너무 딸리다 보니 욕망뿐이었지요. 인젠 그 로들이 <보열식>

이라는 새 기술의 옷을 입은 멧쟁이로들로 개변 되리라고 생각하니 막 기쁩니다.》

《동문 기사가 아니라 시인이 될걸 그랬구만.》

진학은 마음이 혼돈해졌다. 곧 박사론문을 남게 될 자기의 야심작에 가차없이 돌을 던진 처녀에 대한 고까운 감정이 스르르 풀리는것 같았다.

순아는 머뭇머뭇 가방을 열고 서류봉투기를 꺼냈다. 그가 이렇게저렇게 고심하며 그려본 로개조도면들과 연구자료였다.

《혹시 참고가 되겠는지요.》

처녀의 소심한 말에 담긴 기대에 진학은 마치 못해 서류들을 뒤져보았다. 예상대로였다. 순아의 개조안들은 종전의 소성방식을 뒤집어놓은 독특한 열공법인 《보열식》에 참고할 가치가 거의 없었다. 거기에는 습죽인 로들을 살려보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이 있었을뿐 기존방식을 뛰어넘어 퍼덕거리는 창조적환상의 나래가 보이지 않았다.

(온통 북대기로군.)

진학은 흥심없이 서류들을 책상 한쪽에 무저놓으며 처녀가 실망할세라 한마디 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소. 동무의 소원대로 구새먹은 나무통처럼 불품없는 로들에 입힐 멧쟁이 옷을 지어봅시다.》

진학은 그날부터 돌진했다. 각오한대로 허다한 난문제들이 막아섰다.

순아는 진학의 사색에 방해가 될세라 될수록 침묵을 지켰다. 그는 진학의 팔다리가 되어 어울려 돌아가는 《보열식》팀의 젊은 《선수》들과도 휩쓸리지 않았다. 그저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로에 탄을 갈아대고 꽃병에 물을 주는것으로 자기도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주려는듯 했다. 진학이가 때식을 잇고 일할 때면 어느새 파곤한 밥과 국이 책상위에 오르고 밤을 펴 때면 간식봉지들도 눈에 띄우곤 했다.

그러나 착실한 녀성으로만 보이던 그가 차츰 유능한 기사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진학은 어차피 순아에게 로개조의 골치거리들을 풀기 위한 문제를 내놓고 답을 토론하는 일이 잦아졌다. 뿐만아니라 순아의 《북대기》를 거듭 뒤지며 요긴한 《난알》을 찾아 써먹게 되었다. 그때면 처녀는 자기가 바쳐온 노력이 《보열식》에 의한 로개조에 얼마간의 밑거름으로 된다는 기쁨에 낮이 밝아지는것이였다.

진학은 삼촌이 자기에게 훌륭한 방조자를 붙여 주었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순아는 《보열식》팀에 없어서는 안될 《날개공격수》로 되었다.

달포가량 지났을 때였다. 꼭 손으로 지은 밥을 순아에게 먹이고싶어하는 할머니의 당부를 받은 진학은 점심때 순아를 집에 보냈다.

그가 한창 계산수치들을 따져보는데 삼촌이 방에 들렀다. 그는 들고온 과학기술잡지를 펼치더니 진학에게 내밀었다. 진학은 금방 나온 신간잡지를 받아들고 《세계 열공과학기술계의 동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단숨에 읽었다.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로들을 건설하지 않고 이미 쓰던 로들을 개조하여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추세로 나가

고있다는것, 그것은 기술개건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제전략의 하나라는 자료가 실렸다.

진학은 낮이 화끈거렸다.

(제길, 우물안의 개구리는 순아가 아니라 나였단 일인가...)

국산은 흘려한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다.

《순아가 얼마나 똑똑한 처녀이냐. 돈주머니가 크다고 자랑하는 나라들도 돈을 쪼개쓰는데 우린 세계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제와 총부리를 맞대고있지 않니. 그런데 나는 부모의 돈을 아낌없이 망탕 쓰는 호부자자식의 흥내를 냈으니... 난 순아에게 머리가 숙여진다.》

《삼촌은 그저 순아, 순아...》

진학은 틀들대는체 했으나 속으로는 삼촌이 돋보였다. 조카딸같은 처녀에게 면박을 당하고 기사장의 체면이 여지없이 깎인 삼촌에게 자존심인들 왜 없겠는가. 확실히 삼촌은 체격도 거울이지만 속도 큼직큼직한 사나이다.

국산은 로개조안의 추진정형을 알아보더니 새소식을 알려주었다.

《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연가스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내가 그 단장으로 선출되었구나.》

진학은 부지중 주먹을 불끈 틀어쥐었다.

《정녕 남의 <옷>을 빌려입자는겁니까? 아무리 화려한 옷도 제몸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걸 모르진 않을텐데...》

《이녀석, 남의 기술을 파악도 없이 무턱대고 무시하는게 자존심이 아니야. 남에게서 배울줄도 알아야지. 우리 기술이 우월하다는걸 실천으로 보여주자면 <보열식>에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

삼촌이 채찍질하고 간지 얼마 안되어 순아가 꾸레미를 들고왔다. 꾸레미를 펼치니 주먹만큼 빛이 짙어 붙어 담근 남비가 나왔다. 말큰말큰한 덩이들에 사탕가루를 묻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그 속성떡은 진학이가 좋아하는 특식이다.

진학은 불현듯 대학시절을 상기했다.

진학은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기에 대학에 입학했다. 나라사정이 곤란한 때라 대학기숙사의 형편도 넉넉치 못했다.

그때 한창나이인 진학이가 배를 곯을세라 부모들보다도 동천땅의 할머니가 더 원심을 썼다. 극성스러운 할머니는 해마다 두세마리씩 돼지를 길러 장만한 강냉이변성가루를 진학에게 보내주곤 했다. 변성가루는 물론 있으면 남자들끼리도 척척 빚어 잠간사이에 떡을 만들어 먹을수 있었는데 기름이나 콩고물에 묻히면 별맛이였다. 그래서 진학이네 호실친구들은 변성가루로 만든 떡에 《속성떡》이니 《잠간떡》이니 하는 애칭을 붙이였다.

한번은 소포에 넣어보낸 할머니의 편지가 모두를 웃긴적도 있었다.

제길 아끼지 말고 동무들과 푹푹 나누어먹어야 사내답지. 아무렴, 이 할머니가 변성가루야 보장 못하겠니...

사실 진학의 대학졸업증과 학사증은 할머니의 무거운 수고가 깃들어 더욱더 무게가 있는 것이었다.

진학은 저가락에 펜 떡을 순아에게 들려주고 자기도 하나 들면서 말했다.

《내 할머니가 해준 옛말을 들려줄까?》

《옛말도 할줄 아세요?》

순아는 과학기술의 세계에만 빠져있는 무뚝뚝한 청년으로 알았던 진학을 희한한 눈길로 쳐다본다. 처녀의 오목한 눈이 박우물처럼 맑아졌다.

진학은 깨끗한 눈빛이 뽕뽕 솟구치는 그 박우물에 시내물처럼 한곳으로 흘러온 인생의 의미를 찰랑찰랑 가득 채워주고 싶어졌다.

...

백우가 것처럼 애를 쓴 보람이 있어 시골뜨기가 대학에 입학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분이 등등 뜬 백우의 물지게에 나래가 돋힌듯 했다.

화초원집에서도 백우의 경사를 자기 집 경사로 받아들였다. 주인이 차린 축하연에 초청된 백우는 저녁에 대학생복을 쪽 빼입고 사각모를 쓴 아들을 앞세운채 개선장군처럼 호기있게 마당에 들어섰다.

그 축하연에서 화초원집의 외동딸 꽃순이가 노래를 불렀다. 하얀 나리옷을 차려입은 소녀는 고운 목소리로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을 부르는 백우와 아들의 눈굽을 애뜻하게 적시며 머나먼 북청땅에도 찾아갔을 《고향의 봄》을 불렀다. 꽃순이는 그날 부모의 옆에 단정히 앉아 압전을 빼면서도 나이에 비해 퍼그나 림름해보이고 빼주름한 턱으로 하여 뚝뚝치 않음 인상을 주는 대학생총각을 자꾸만 훑쳐보게 되었다.

한해후 꽃순이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다.

성수가 나서 물지게를 지고 펄펄 날아다니던 백우는 그만 돌서덜길에서 발목을 빼여 운신할수 없게 되었다. 하는수없이 아들이 공부가 끝나면 밤늦게까지 물지게를 저야 했다. 하루라도 물을 길여주지 않으면 단골집들을 다른 물지게군에게 떼울수 있기 때문이다. 그즈음 새로 나타나는 경쟁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한낮이면 언 땅이 녹아 질척거리는 봄날, 아버지의 배잠뱅이를 걸친 대학생총각은 진흙이 잔뜩 엉켜붙은 지하축을 가대기처럼 끌면서 물지게를 지고 휘청휘청 둔덕을 올랐다. 화초원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 세라복차림의 소녀가 부엌문을 젖히고 내다보았다. 한해전의 애티가 가서지고 흐로 의젓해보이는 꽃순이의 눈빛이 촌스럽히 흐려들자 총각은 당황해졌다. 소녀의 그윽한 눈에 비친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느끼며 그는 아래입술을 감쳐물었다. 마침 안주인도 없어 그는 초롱의 물을 부엌안의 물독에 쏟아놓고 총총히 돌아섰다. 그가 대문밖을 나서는데 등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울리었다.

《저... 여보세요.》

얼핏 돌아보니 대문밖까지 따라나선 꽃순이가 쭈뼛거리며 손에 든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학비에 보태주세요.》

어안이 뱅뱅해진 총각이 봉투를 받아들자 소녀는 황망히 대문안으로 사라졌다. 봉투를 뜯어보니 빨락거리는 1원짜리 지폐 10장이 들어있었다. 그가 처음 쥐어보는 큰돈이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 돈은 농촌에서 땅마지기나 가지고있는 외할아버지가 학용품을 사쓰라고 외손녀에게 선사한 것이었다.

다음날 저녁 총각은 화초원에서 화분들에 물을 주고있는 꽃순이를 만났다. 노을빛에 유리들이 연지를 살짝 바른듯 발가우리한 홍조로 물들여진 온실안으로 들어간 그는 새 품종의 장미꽃들이 싱싱하게 피어난 큰 화분우에 어제 받은 돈봉투를 놓았다. 꽃순이는 눈이 윙글해서 갓 부풀어오르기 시작한 앞가슴을 부여잡았다.

총각은 억양 센 말투로 꾸점없이 말했다.

《우린 비록 가난하여 물지게를 지지만 비렁뱅이는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음... 전 그저 ...》

《아가씨의 마음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정은 사내의 인격에 상처를 내지요. 우리가 온갖 수모와 창피를 참고 견디는것은 큰 자존심을 위해 작은 자존심을 버려야 하기때문입니다.》

총각이 성큼성큼 온실을 뜨자 꽃순은 빨개진 낯을 두손으로 싸쥐었다. 세상리치에 눈이 트기 시작한 중학생소녀는 총각이 말하는 《큰 자존심》이란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달리며 남한테 지지 않는 나라로 일떠세워야 한다는 자각이라는것을 감득할수 있었다. 비록 길은 초라해도 허름한 베적삼에 가리워진 가슴속에 얼마나 도고한 배짱과 기개가 자리잡고있는가!

소녀의 얼굴에 비낀 홍조는 차츰 랑만의 노을로 심혼에 비끼었다. 잊을수 없는 저녁, 천진한 소녀의 닛을 푸르른 꿈의 하늘로 불러준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그러나 망국노의 운명을 지닌 청춘들이 《큰 자존심》의 꿈을 어이 키울수 있으랴.

태평양전쟁에서 수세에 빠진 일제는 대학생들에게까지 《학도병》의 군모를 씌워 전선에 끌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모자라는 병력을 보충하자는 징집이 아니었다. 조선의 대학생들속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민족의 얼을 고수하는 기세가 급격히 높아지자 장차 제놈들과 맞설 이 나라의 《두뇌진》을 사전에 말살하려는 음흉한 기도였다.

대학 3학년때 《학도병》징집에 걸린 북청총각은 전선출동을 기피하고 한동안 꽃순이네 화초원에 은신하게 되었다. 어언 처녀꼴이 다 잡힌 꽃순이는 침침하고 곰팡이내 풍기는 지하의 종자보관실에 숨어있는 청년에게 밤을 날라다주곤 했다. 그 나날에 두 청춘남녀의 정은 바닥없이 깊어졌다.

그러나 화초원도 그들의 사랑을 꽃피울 안식처가 못되었다. 이미 조선굴간판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산산조각을 냈던 일본경찰놈들은 《어여쁜 강남》이라는 말에 불온사상이 담겨져있다고 생트집을 걸며 꽃순의 아버지를 끌어갔다.

놈들의 감시가 쏠려진 화초원에 더 피신할수

없게 된 청년은 일선을 타고 멀리 떠나갔다.

그가 서울에 다시 나타난것은 조국해방전쟁때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조국을 해방시켜주시고 평양에 세워주신 **김일성** 종합대학은 항학열에 몸살이 난 그에게도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대군관이 되어 해방된 감격으로 들끓는 서울을 활보하여 《어여쁜 강남》 화초원에 찾아왔던것이다.

꽃순이는 애인의 군복앞섶을 눈물로 적시면서 억센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대장부의 가슴에서 쿵쿵거리는 심장의 박동이 《큰 자존심》을 충대로 지키려는 의지의 메아리로 처녀의 넋을 두드렸다.

꽃순이는 주저없이 이 나라 젊은이들이 앞을 다투어가는 그 정의의 길을 따라나섰다.

...

순아는 떡그릇을 거두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웠다.

《다음이야기를 마저 할가요? 꽃순이는 전쟁이 끝난후 **김일성** 종합대학에 찾아갔어요. 어느새 전선에서 소환되어 대학을 마저 졸업한 청년이 교원에게 맡긴 편지가 대신 기다리고있었지요. 고향과 멀지 않은 동천땅으로 가니 따라오라는 군대식명령이 적힌 편지였어요.

꽃순이는 흥안의 시절에 품었던 청운의 뜻을 나라의 보물고인 동천땅에서 이루어보리라 결심한 청년을 따라 이곳에 가정의 보금자리를 꾸렸어요.》

진학은 웃음이 새물거리는 처녀의 눈을 응시했다.

《동무의 안테나가 꽤 높는데?...》

《꽃순이는 할머니의 아이적기름이지요? 저의 아버지도 공장을 확장하는 건설을 자꾸 해서 별명이 불은 <기중기지배인>이 키운 로장이였어요. 공장의 오랜 사람들은 지금도 <기중기지배인>을 외웁니다.》

진학은 세계를 굽어볼수 있도록 마그네사공업을 발전시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생을 깡그리 바친 할아버지를 추억속에 간직하고있는 공장사람들이 고마웠다.

그는 순아에게 느닷없이 물었다.

《순아동무, 내가 몹시 미웠지요?》

《미웠어요. 피차 마찬가지로. 누가 옳고 그르든 사람에겐 감정이 있으니깐요. 그러나 기사장동지랑 연구사동지랑 아무런 내색도 없이 저를 <보열식>팀에 받아주실 땐 역시 사나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간난신고를 이기는것보다 자기를 이길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나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아니, 난 진짜사나이가 되자면 멀었소.》

이 말은 진학의 진심이었다. 그는 삼촌은 물론 순아앞에서도 어쩐지 자기는 철부지같이 느껴졌다.

《난 <보열식>을 통해 광석보다 먼저 진학이라는 인간을 소성하자는거요. 찌꺼기를 다 태워버

린 순도높은 진짜배기로...》

《그렇듯 한 철학이군요. 제가 시인이라면 동지는 철학가예요.》

두사람은 처음으로 마주보며 무랍없이 웃었다.

×

《보열식》팀은 공장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일을 내밀었다. 모두가 지혜를 합치고 발을 맞추어 맹공격을 들이대자 어려운 난문제들로 겹겹이 방어진을 친 철벽의 요새같던 로개조안도 쉽사리 돌파되었다. 진학은 외국에 간 기술대표단이 오기전에 시제품을 뽑으려고 서둘렀다. 석달만에 설계가 완성되고 시험로로 선정된 소성로의 화실개조공사가 와닥닥 끝나자 곧 불을 지피게 되었다.

그러나 첫 시험은 실패하였다. 여러모로 기술조작을 달리해보았으나 여전히 불량품경소덩이만 쏟아져나왔던것이다.

진학이가 밤이 펍 깊어 집으로 들어가니 할머니는 부뚜막에 밥그릇을 얹어놓고 기다리고있었다. 조씨는 진학의 어두운 표정에서 시험결과가 시원치 않다는것을 짐작하고 묵묵히 밥상을 차려주었다. 진학은 억지로 몇술 뜨고 상을 물렸다.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짙어지며 주름살들이 한층 깊어졌다.

이윽고 조씨는 손자의 눈치를 슬슬 엿보며 입을 열었다.

《참, 너와 함께 일하는 처녀가 어찌냐?》

《순아기사말이에요? 꽤찮지요 뭐.》

《내 보기엔 속이 영글었더라. 그런 처녀를 만 손주며느리로 맞으면 좋겠구나.》

상사집에서 혼사말이라더니 할머니의 생똥같은 말에 진학은 어이가 없어 피씩- 웃었다.

《할머니두... 그 처녀가 뭐 볼게 있다구.》

《늙은이의 눈은 헛보지 않는다. 너자의 맴시는 결모양이 아니라 속모양에 있느니라.》

그동안 진학의 심부름으로 종종 집에 들리어 여러 소식도 전해주고 일손도 도와준 순아에게 할머니는 마음이 끌린듯 했다. 용모도 수수하고 애교도 피울줄 모르는 순아였지만 어딘가 상대방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진정의 향기라고 할가...

손자의 기분을 농쳐주려고 일부러 처녀말을 꺼낸듯 싶은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난 남정들이 모두 기술자들인 집안에서 부대끼며 살다보니 새 기술의 연구가 순탄한 유보도 길이 아니라는걸 잘 안다. 그 길엔 가시덤불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지. 그럴수록 마음을 부족해주는 진정이 필요한게다. 짐이 큰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함정은 고독이야.》

할머니의 말에서 풍기는 따뜻한 정은 진학을 격려해주었다. 이런 할머니를 모신 자기가 행복했다. 진학은 그를 낳아준 부모의 아들이기 전에 할머니의 손자였다.

할머니는 때없이 진학이가 할아버지를 꼭 빼물었다고 혀를 차곤 한다. 부리부리한 눈이며 빼주름한 턱이며 어데라없이 생김새도 성미도 한형라

에 찍은듯 하다. 지어는 심각해지면 아래입술을 감쳐물고 잘근잘근 씹는 버릇까지도 어찌면 그리도 실통한지. 피죽은 어쩔수 없다니까... 이러며 자기에게 기어여주는 할머니의 각별한 애무에는 내 조국을 남한에 지지 않는 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큰 자존심》을 물려받으리라는 기대가 어려있음을 잘 아는 진학이었다.

첫 시험의 날부터 이들이 지났을 때였다.

진학이네가 한참 컴퓨터에 기입된 시험자료를 분석하고있던 저녁무렵에 기사장이 불쑥 방에 들어섰다. 그는 젊은이들의 인사를 받는등마는등하며 성급히 컴퓨터앞에 다가갔다.

《경소덩이들이 설익었다지? 흔히 별치 않게 여긴 요소가 큰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이웃집에 잠시 다녀온듯 오자바람으로 일부러 파고드는 삼촌을 보며 진학은 가볍게 웃었다.

《경소를 번개불에 익히겠군요. 먼저 도착성명부터 발표해야지요.》

그제서야 국산은 덩달아 웃으며 진학이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예견한대로 <연가소화>는 위낙 기술공정이 까다롭고 연료원천이 제한되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불편한 <웃>이다. 우린 우리 식의 소성법인 <보열식>에 공장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이제 바로 우리 기술대표단의 도착성명이야.》

진학은 자기의 두어깨에 공장의 운명이 실린듯 가슴이 뻐근해졌다.

젊은이들에게 간단히 그 나라의 경제실태를 이야기해주고나서 국산은 곧 일에 달라붙었다. 시험자료를 간간히 분석해보던 그는 손등으로 책상을 다독거렸다.

《아무래도 가스의 회리와 분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 몸안에 생기는 가스가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 소화에 지장을 주는 것처럼...》

그 말은 진학을 채찍처럼 후려갈겼다.

설계를 한창 무르익힐 때 순아가 가스분출구며 가스연도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 몇마디 의견을 비친적이 있었다. 그때 진학은 공장대학 졸업생의 《좁은》 견해를 무시해버렸다.

《새 소성법은 열량을 높이는데 치중하던 종전의 방식과 달리 열효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특성이 있소. 때문에 가스가 빨리 빠지면 그만큼 열도 손실되거든.》

진학의 독선적인 리론에 순아는 지고말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로를 많이 다루어본 경험을 존중했어야 했다. 진학은 리론상착오가 아니라 자기 우월감의 모순에 빠져 실패했다. 한마디로 《보열식》팀의 주장인 그가 자기 기술만 믿고 공격선에서 혼자 공을 몰다가 꼴을 넣지 못한것이다.

벽에 걸린 시계가 종을 치자 얼핏 시계를 쳐다본 국산은 바빠 일어났다.

《난 가봐야겠다. 로안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결론을 찾을수 있으니 로가 식을 동안 며칠

좀 쉬거라.》

삼촌이 나간 후 진학은 손아앞에서 고개를 쳐들수 없었다. 그는 피로가 쌓여 물동이진 입술을 감쌀며 방안을 거닐었다.

《순아동무, 실패원인은 단계 아니라 이 잘난 머리였소. 나의 턱없는 자존심때문에 술한 연료를 공짜로 태워버렸단 말이요.》

순아도 역시 가책에 잠겨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전 리론적인 확신이 없어 주견을 세우지 못했어요. 제가 실력이 없다보니...》

《입이 쓰거워 맞서고싶지 않았겠지.》

《10년째나 수십번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의 실패를 두고 너무 자기를 괴롭히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아니, 난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말을 방패로 삼고싶지 않소. 동무도 말했지. 나라의 자금을 제 주머니에서 꺼낸것처럼 여기라구. ... 내가 공장에 끼친 손실을 계산한다면 뭘로 보상하겠소. 난 자기를 용서할수 없소.》

침묵이 흘렀다. 진학은 자격지심에 모태졌다.

《이건 실력의 높낮이가 아니라 인격의 높낮이에 대한 문제이다. 동지를 깔보는 인간의 자존심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 서퍽짜리인가!》

창밖이 어둑어둑해졌다. 진학은 다짜고짜 작업복을 갈아입고 두툼한 장갑을 꼈다.

그는 의아해진 순아에게 엄숙히 물었다.

《순아동무, 오늘 밤 나와 운명을 함께 해주지?》

순아는 어마어마한 말에 눈이 커졌다.

《뭘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글쎄 날 따라와주시요.》

순아는 영문을 모르고 진학을 따라나섰다. 그들은 전지불로 어둠을 헤가르며 공장에 들어갔다. 로들이 돌지 않는 시험로쪽은 인적없이 조용했다. 다만 로를 빨리 식히려고 로안에 바람을 쐬넣는 송풍기의 동음이 단조롭게 들려올뿐이었다.

그들이 굴뚝밑에 이르자 진학은 처녀에게 나직이 말했다.

《배풍관을 통해 가스연도로 들어갈수 있지?》

비로소 진학의 의도를 알아차린 순아는 펄쩍 뛰었다.

《안됩니다. 이런 모험은 왜 하는가요?》

《우리에겐 뭐니뭐니해도 시간을 잃은게 큰 손실이요. 공장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우리가 또 며칠을 그냥 잃겠소?》

진학은 열기뽀 목소리로 순아를 설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순아는 앞을 막으며 부르짖었다.

《동문 자기가 공장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를 몰라요? 동문... 동문 귀중한 사람이예요.》

늘 부르던 《동지》대신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동무》라는 부름이 진학의 마음을 애뜻하게 그리잡았다.

《마음을 놓소. 로가 어지간히 식었으니 별일 없을거요. 동문 만일을 위해 여기서 지키고있소.》

진학은 순아를 밀어제끼며 무작정 굴뚝밑의 비상구로 들어갔다. 마침 로를 식힐 때라 비상구의

철문이 열려져있었다. 운명적인 판가리에 나서서 화구라도 막을것 같은 비장한 총동이 진학을 한 걸음한걸음 떠밀었다. 전지불을 켜든 그는 굴뚝 안쪽의 사다리를 타고 올랐다. 얼마쯤 오르니 배풍구가 나쳤다.

그는 경사진 배풍관을 타고 병사들처럼 포복전진했다. 센 바람과 함께 화끈한 열이 몰아쳐나온다. 숨이 꺾꺾 막힌다. 순식간에 얼굴을 질펀하게 적신 땀물에 눈이 쓰렸다.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가스연도에 뛰어들려는 자기의 무모한 《영웅성》에 화가 났다.

(에익, 이 미련한 똥개야. 넌 그 잘난 자기 우월감의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해. 누구나 자기를 깨닫는 과정이 성장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속으로 뇌이며 기를 쓰고 기었다. 점차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다.

언제 따라왔는지 배풍구쪽에서 《가스가 채 빠지지 않은것 같아요- 질식될수 있어요 - 빨리 나오라요-》 하는 순아의 웨침이 들려왔다.

(순아, 고맙다. 동무가 가까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진다. 그래, 할머니는 제일 무서운게 고독이라고 했지. 난 고독하지 않아. 언제든지...)

진학이가 잠시 숨을 돌리는데 문득 앞에서 어둡서니같은 형체가 전지불빛에 드러났다. 진학은 흠칫 놀랐다. 찬찬히 여겨보니 방독마스크를 끼고 방열모를 투구처럼 눌러쓴 사람이 마주 기여 오고있었다. 그는 가까이 오자 전지로 진학의 앞통수를 쿡 내지르며 바깥쪽을 가리켰다.

(삼촌이?!... 나를 알아보고 성이 났구나.)

진학은 가까스로 몸을 돌려 도로 기여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비상구를 빠져나오자 마스크를 벗고 걸탐스럽게 맑은 공기를 들이키던 국산은 온통 검댕이로 매달릴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진학은 순아와 함께 그의 어깨를 그러안고 어쩔바를 몰랐다.

한잠만에 정신을 차린 국산은 진학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너석두... 우리에게겐 제일 아까운게 인재의 머리아. 그런데 넌 ...》

《삼촌은 나보다도 더 지독한 독선주의자군요. 먼길을 다녀와서 쉬지도 않구... 우리한테 한마디 일러주지도 않구...》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고 어찌겠니. 남의 <웃>에 눈물 파는 사람도 있으니 빨리 우리 <웃>을 지어야지.》

국산은 몸에 끼입은 방열복의 앞섶을 제끼더니 한줌되는 주머니를 꺼냈다.

《가스가 제대로 빠지지 못해 분출구가 거의 메워졌더구나. 아구리에 붙은 가스그늘음의 시료를 가져왔다.

이걸 분석해보고 가스분출구와 가스연도를 합리적으로 개작해야 한다. 여기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

진학이가 시료주머니를 소중히 받는데 순아는 울먹거리며 말했다.

《기사장동진 빨리 병원부터 가야 합니다.》

《팬잖아. 기사장이라는 랑반이 애들처럼 숨바꼭질을 했다고 소문이 나자구? 집에 가서 김치불이나 한사발 들이키면 거든해지겠지.》

국산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도 혼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별안간 순아는 저쪽으로 몇걸음 옮기더니 등을 돌려댔다. 흑- 하는 흐느낌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진학은 급히 다가가 그의 등에 손을 얹었다.

《왜 그러오?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기사장동지도... 동무도... 너무해요.》

《뭐가 너무하오?》

《너무나도... 좋은분들이예요.》

순아의 입에서 새어나온 속삭임이 진학의 심금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난생처음으로 처녀의 나긋나긋한 손목을 꼭 틀어잡았다.

《순아, 내 두번 다시 실패한다면 사나이가 아니요. 순아도 날 믿겠지? 성공하는 날 우린... 우린 함께 할머니한테 가서...》

진학은 뒤말을 잊지 못하고 순아의 손목을 이끌었다. 그 뒤말을 감축한 순아는 손목을 맡긴채 몸돌바를 몰라했다.

《어마나, 전... 너무 짝이 기울어요.》

그들은 몸을 일으키고 선 기사장에게 다가갔다. 국산은 두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흐뭇하게 말했다.

《너희들이 부럽다. 얼마나 좋은 나이냐.》

낮동안 썰렁하게 불던 바람도 멎고 상긋한 훈향이 감도는 봄밤이었다. 초정한 어둠도 어리광치며 세사람에게 안겨들어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

한달후 시험로에서 하얗게 익은 경소덩이들이 쏟아져나왔다. 종전보다 연료를 절반 때면서도 예상을 초월한 높은 품질의 제품이였다.

국산은 분석실에서 가져온 품질분석표를 높이 쳐들고 찰찔 웃었다.

《하하하... 우린 경소생산에서 앞섰다는 나라의 기술을 늘렸소. 우리의 연료로 제일 값죽게, 제일 질 좋게 경소를 팡팡 생산하게 되었으니 <보열식>은 우리 식의 첨단기술이라고 당당히 소리칠수 있소.》

시험로밑에 모여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그들은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야 할 주인공을 찾았다. 아무리 둘러봐야 진학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각 그는 지령실에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고있었다. 그를 찾아 로체장을 한바퀴 돌고난 기사장과 순아가 지령실에 가보니 진학은 목이 메여 말을 한토막씩 탕쳐 송화구에 쏟아붓고있었다.

《할머니. 전... 이 기쁜 소식을... 할머니에게 먼저 ... 알리고싶었어요. 할머니두 참... 올긴 왜 우세요? 오늘 저녁 순아동무와 함께... 집에 들어가겠으니... 기다려주세요.》

국산은 전화기를 놓는 진학을 와락 껴안았다. 두사람은 국제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처럼 역세게 포옹했다.

그들을 바라보는 순아의 눈썹에도 이슬이 펴고였다. 대를 이어 《큰 자존심》을 지니고 사는 사나이들-그들은 어제날 북청물지계군의 후손들이며 우리 혁명의 3세, 4세들이였다.